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 주 제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 일 시 : 2017. 10. 13(금) 10:00~18:00
- ▣ 장 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당
- ▣ 주 최 : 한국청동기학회
- ▣ 후 원 : 가경고고학연구소 · 누리고고학연구소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울산문화재연구원 · 전북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한성문화재연구원 · 한양문화재연구원

한국청동기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주제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일시 : 2017.10.13(금) 10:00~18:00
- 장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당
- 주최 : 한국청동기학회
- 후원 : 가령고고학연구소·누리고고학연구소·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울산문화재연구원·전북문화재연구원
충부고고학연구소·중앙문화재연구원·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한성문화재연구원·한양문화재연구원

한국청동기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주제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 일시 : 2017.10.13(금) 10:00~18:00
- 장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당
- 주최 : 한국청동기학회
- 후원 : 가경고고학연구소 누리고고학연구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양문화재연구원

일 정

사회: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총무)

■ 개 회

09:30 ~ 10:00 접수

10:00 ~ 10:10 개회사

축 사

박양진(한국청동기학회장)

이청규(한국청동기학회 초대회장)

■ 기조강연 10:10 ~ 10:40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 발표: 박양진(충남대학교)

■ 주제발표

- ◆ 제1발표 10:40 ~ 11:10 최근 자료로 본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남한 청동기의 특성-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 출토품을 중심으로
발표: 강인욱(경희대학교) 토론: 조진선(전남대학교)

◆ 제2발표 11:10 ~ 12:00 韓国青銅遺物と日本列島

발표: 宮井善郎(후쿠오카시교육위원회) 토론: 이양수(국립중앙박물관)

■ 중식 12:00 ~ 13:00

◆ 제3발표 13:00 ~ 13:30 한국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방

발표: 천선행(전북대학교) 토론: 안재호(동국대학교)

◆ 제4발표 13:30 ~ 14:20 無文土器と弥生土器

발표: 川上洋一(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토론: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5발표 14:20 ~ 14:50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발전

발표: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토론: 윤호필(중부고고학연구소)

◆ 제6발표 14:50 ~ 15:40 人文背景下的“千山山地石棚”起源与发展

발표: 華玉冰(랴오닝대학) 통역: 오진석(한국고고환경연구소)

토론: 이영문(목포대학교)

■ 휴식 15:40 ~ 16:00

■ 종합토론 16:00 ~ 17:40

토론좌장: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이홍중(고려대학교)

■ 총회 17:40~18:00

■ 만찬

[목 차]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

朴 洋 震 / 1

- 한반도 청동기 사용의 기원과 계통 -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 출토품을 중심으로 -

강 인 옥 / 15

- 「東北アジアにおける韓国青銅器時代文化」発表要旨

宮井 善朗 / 45

- 한국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역

천 선 행 / 63

- 無文土器と弥生土器

川上洋一 / 85

- 한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발전

허 의 행 / 109

- 人文背景下的“千山山地石棚”起源与发展(概要)

华 玉 冰 / 131

- 토론문

/ 145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

朴 洋 震
충남대 고고학과

目 次

- I. 머리말
- II. 청동기시대의 유물
- III. 청동기시대의 생업과 묘제
- IV. 청동기시대의 인구와 사회
- V.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은 18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지성적 전통 속에서 과학적 학문으로 성립되었는데 한반도에서는 1900년을 전후하여 최초로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고고학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의 고고학 발굴과 조사를 철저히 독점한 일본고고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은 뒤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식민지적 유산을 먼저 극복한 것은 북한고고학자들이었는데, 일본 학자들의 소위 “金石竝用期”를 부정하고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구분하여 청동기시대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였다(박양진 1998, 이기성 2011).

또한 북한고고학자들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서 강상(崗上), 러우상(樓上) 등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포함한 여러 유적을 발굴 조사함으로써 한반도 선사시대 문화 연구의 지평을 중국 동북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a). 북한 학계에서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이 대두된 이후에는 강상, 러우상 무덤의 고고학 자료를 고조선의 이른바 노예소유주의 순장 무덤으로 해석하는데 사용하였다(이지린 196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남한에서도 고고학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청동기시대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게 되고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金元龍 교수는 일찍이 한국고고학 개설서에서 “우리의 靑銅器文化는 오르도스(중국 綏遠地方)-遼寧地方의 靑銅文化와 連結되고 이것은 다시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스키타이 靑銅文化와 聯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金元龍 1977: 87쪽). 이후 개정판에서는 약간 수정하여 “우리나라 청동기문화는 遼寧지방 청동기를 통해서 華北綏遠(Ordos), 그리고 다시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Minussinsk), 스킷(Scyth) 청동문화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金元龍 1986: 63쪽).

하지만 1980년대부터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기원 및 계통에 관한 연구는 더 이상 시베리아 또는 오르도스 지역에 주목하지 않고 중국 동북지방 가운데 특히 랴오닝(遼寧) 지역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李健茂(1992: 130쪽)는 “韓國의 初期靑銅器文化는 기본적으로 現 中國 遼寧地方의 遼寧式銅劍文化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크게는 遼寧式銅劍文化圈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遼寧式銅劍文化는 遼西, 遼東, 吉林長春 지역과 함께 4대 동검문화권의 하나로써 요서지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청동기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의 공동 주제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로 선정된데 맞추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 번 거시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청동기와 토기, 석기 등 유물에 대한 미시적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왕의 연구 성과를 세부적으로 요약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생계의 변화와 묘제의 성격을 동북아시아의 범지역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와 인구를 역시 동북아시아의 범지역적 맥락 속에서 접근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선사고고학의 문화 변화에 대한 연구와 해석이 계통론과 전파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李盛周 2016). 이 글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기본 논지는 이주와 전파의 기원·계통론보다는 인접 지역간 상호작용과 쌍방향 문화교류에 좀더 비중을 두고 문화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II. 청동기시대의 유물

1. 청동기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역시 청동기이다. 청동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지 유물은 동검인데, 한반도에서는 이른 시기의 비파형 동검에서 늦은 시기의 세형 동검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고 이는 청동기시대의 편년¹⁾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파형 동검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멍구 동남부에 위치한 샤자텐(夏家店) 하층 문화의 다톈쯔(大甸子) 유적(기원전 1600년경)의 무덤에서는 청동, 납, 금 등으로 만든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와 장대끝 장식, 도끼자루 장식 등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b). 한반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요동반도 남단에 위치한 다쭈이쯔(大嘴子) 유적의 제1기 문화층(기원전 2000-1600년경)에서는 청동 꺾창이 출토되어 역시 기원전 2천년기 전반에 이 지역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따라서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른 시기의 청동 유물(강인욱의 발표문 참조)은 대부분 기원전 15세기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보다 앞선 시기의 청동기가 발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역시 인접한 중국 동북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짧은 스텝에 달린 비파형(중국에서는 曲刃) 동검의 분포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서쪽으로는 네이멍구 동남부, 허베이 북부, 랴오닝 서부 지역까지 이르고 있다. 이

1) 이 글에서는 한국 청동기시대를 조기, 전기, 중기, 후기의 네 시기로 나누는 편년안(이청규 2015)을 따른다.

때문에 웨이잉쯔(魏營子) 문화, 샤자텐(夏家店) 상층문화, 스얼타이잉쯔(十二台營子) 문화, 정자와쯔(鄭家洼子) 문화, 강상(崗上) 문화, 쌍팡(雙房) 문화 등이 각각 한국의 청동기문화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문화와 한국의 비파형동검 문화의 출토 청동기의 종류, 수량 및 성격과 출토 유구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성과 함께 차별성도 뚜렷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파형의 곡인동검이 이 문화들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지만 지역 간, 유적 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특히 청동 그릇과 거마구, 장신구 등의 존재/부재를 고려한다면 비파형동검 분포 지역을 모두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특히 청동 馬具의 경우 騎馬 행위의 존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기마문화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 등의 지역과는 뚜렷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한국 비파형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부여 송국리 유적과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 유적과의 상관성과 상대적인 친소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系統樹(cladogram)을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박양진 201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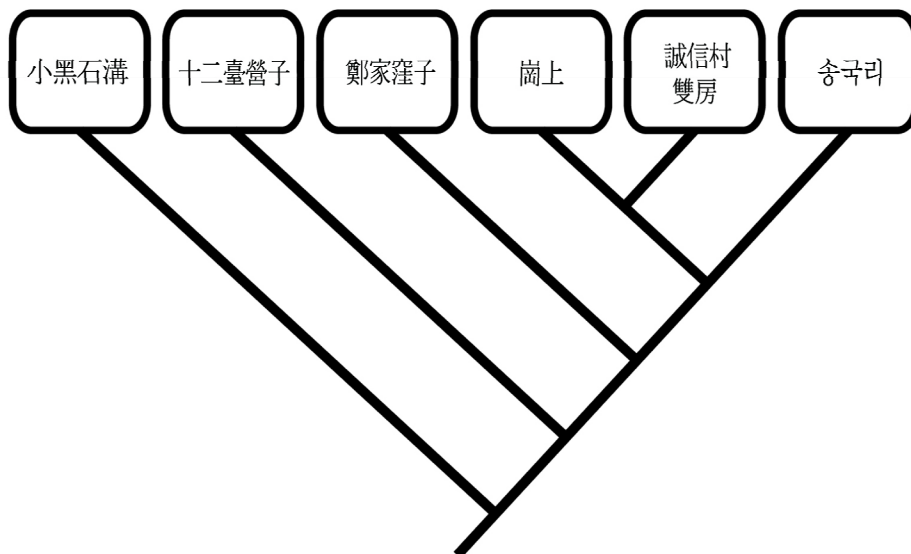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동북지방 및 한반도 청동기시대 주요 유적 간 계통수

한국의 청동유물은 대부분 합범과 같은 석제 거푸집을 이용하여 주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거푸집도 실제로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여러 유적에서 청동기를 제작하였던 석제 거푸집이 출토되어 유사한 청동제작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원전 8세기경으로 편년되는 난산근(南山根) 101호묘와 샤오헤이스거우(小黑石溝) 8501호묘 등 샤자텐

상층문화의 대형무덤에서는 석제 거푸집으로 주조하기 불가능한 鬲, 鼎, 豆, 鉢 등의 청동 그릇이 여러 점 출토된 바 있다(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이들 그릇이 중국 중원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제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샤자텐 상층문화에서 고도로 발달했던 청동 그릇의 주조기술이 중국 동북지방의 다른 지역이나 한반도에 직접 전해지거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토기

한반도의 토기 문화와 동북아시아 주변 지역의 토기 문화와의 비교 연구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주로 이중구연, 돌대각목문 등 문양 요소와 토기 기형의 형식학적 비교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문토기로 대표되는 한국 청동기시대의 토기문화는 역시 중국 동북지방의 토기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수많은 연구들에 통하여 밝혀졌다. 하지만 청동기와는 달리 토기의 경우에는 ‘중국 라오닝 지역 - 서북한 - 남한’ (安在皓 2010, 천선행 2014)과 ‘중국 지린 지역/연해주 - 동북한 - 남한’ (강인옥 2007, 김재운 2011) 등의 두 갈래의 문화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차원에서 소규모인 토기 문화의 지역적 범위 및 가장 인접한 지역과의 직접적 문화교류의 개연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의 토기와 한반도의 무문토기를 거시적으로 비교할 때 주목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삼족토기의 존재/부재이다. 鬲, 鼎, 甗 등의 삼족토기는 남쪽 옌산(燕山) 일대의 샤자텐(夏家店) 하층문화에서부터 북쪽 다싱안링(大興安嶺)의 바이진바오(白金寶) 문화(張忠培 2009)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북지방의 서쪽/북쪽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취사 용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삼족토기는 요동반도의 쌍톈쯔(雙砬子) 문화에서부터 창바이산(長白山) 일대의 싱청(興城) 문화(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2001)에 이르는 중국 동북지방의 동부/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전혀 없다(趙賓福 2009). 한국의 청동기시대 토기에서도 鬲, 鼎 등의 삼족토기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역시 인접한 요동반도 및 창바이산 지역의 토기문화 양상과 대체로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 토기 가운데 특징적인 하나는 소성 후 토기 표면을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한 채색토기이다. 특히 라오닝 서부 및 네이멍구 동남부 지

역의 샤자덴 하층문화의 채색토기는 매우 발달하여 甗, 罐, 鼎, 壺 등 다양한 기종이 무덤의 부장품으로서 다수 출토된 바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b). 하지만 이런 채색토기의 영향은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중국 동북지방의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한편 요동반도에서는 쌍토피(雙砬子) 1기 문화층에서 紅, 白, 黃의 색깔로 삼각형, 사각형, 능형 등의 기하학적 문양을 장식한 채색토기편이 발견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a). 이러한 채색토기 문화는 인접한 압록강 유역과 서북한에 약간의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요한 토기문화 전통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소성 전에 산화철 성분을 바른 한반도 남부의 붉은간토기는 요동반도에서부터 한반도 동북지방에 퍼진 농경문화의 요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석기

한국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는 신석기시대와 달리 그 종류가 다양화되어 새로운 종류의 석기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것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데, 석검, 석촉, 석도, 석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마제석기와 주변지역 즉 중국 요동반도 및 일본 북부 큐슈 지역의 마제석기와 비교 연구는 손준호에 의하여 자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孫峻鎬 2006).

한국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 가운데 반월형석도를 도작농경기술과 함께 전파된 수확구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다(미야자토 카즈오 2011, 이기성 2015). 이 석기가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비로소 출현하지만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벼농사가 출현하기 이전인 기원전 4천년기의 홍산(紅山) 문화 유적과 기원전 3천년기의 샤오주산(小珠山) 제5기문화 유적에서 이미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도작농경과 배타적으로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석기는 토기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 소비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역적 범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재료의 지역적 특성이 직접 반영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청동기시대 각 지역의 석기의 형식 및 그 변화는 바로 인접한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대체로 동조하여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청동기시대의 생업과 묘제

1. 생업경제

한국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로 간주된다(김민구 2015; 김장석 2002, 2009, 이홍중 2010).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벼라는 아열대 습지성 작물과 水田과 논농사라는 농경기술이 한반도에 유입되었는지는 고고학 자료가 확실하지 않고 학자들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 청동기시대의 개시기가 조기의 설정으로 기원전 15세기까지 소급되면서 과연 벼농사가 이 시기에 이미 도입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의 어느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농경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는 미야모토 카즈오(宮本一夫)로서 그는 농경화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미야모토 카즈오 2011). 농경화 제1단계는 조·수수 농경이 화북형 농경석기와 함께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안승모 2012 참조), 연해주 지방까지 확산되는 단계로서 대체로 기원전 4천년기까지 계속된다. 그의 농경화 제2단계는 기원전 2500-2000년경 조·수수 농경에 부가하여 재배곡물로서 벼가 추가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옥천 대천리의 벼가 출토된 기원전 2500년경의 토기와 진주 어은유적 출토 탄화미의 보정연대 1950calBC 등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는 수전과 전작이 특징인 관개농경과 팽이, 보습, 반월형석도 등의 농경구가 기원전 2천년기 중엽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로 확산되고 이것이 기원전 2천년기 후반 한반도로 확산되는 과정이 동북아시아 농경화 제3단계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해석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농경화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반도는 오히려 이전 시기의 정주취락이 해체되고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어로의 생활로 회귀하였다는 주장이 있다(임상택 2008). 중국 동북지방의 요동반도에서도 벼농사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상튀쯔3기 문화 단계인 다쭈이쯔 유적의 제3기 문화층이라고 생각되었다(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하지만 최근에는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인 다롄 왕자촌(王家村) 패총 유적의 샤오주산 5기 문화층에서 2립이 확인된 바 있다(趙志軍 안승모 2015). 벼농사가 산동반도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었음은 현재의 고고학 자료가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만 한반도 최초의 유입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앞으로 조사 자료의 증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일부 연구자들은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농경의 집약화, 또는 농업생산력의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양

남경 유적이나 여주 혼암리 유적 등에서 이미 확인된 벼농사가 청동기시대 중기가 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약화되거나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국리문화의 외래기원설 보다는 자체발 전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 어떤 원인과 맥락에서 출현하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재배작물로는 벼와 함께 밀, 보리와 같이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맥류가 있는데 한국 청동기시대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다(안승모 2015). 밀의 유체는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인 다렌 왕자춘(王家村) 유적의 샤오주산 5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바 있다(趙志軍 안승모 2015). 이 패총 유적에서 출토된 벼의 증거를 함께 고려하면 벼와 밀농사가 이미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물물교환을 통해 획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구체적인 생업경제의 양상은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함께 지속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묘제

한국 청동기시대의 주요 묘제는 지석묘, 석관묘²⁾, 토광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는데 인접한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시대의 묘제와 상당히 유사하며 대부분 돌로 축조한 무덤방에 시신을 직접 안치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동반도 남단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청동기시대까지 지속되는 다인장의 집단 묘지인 積石墓와 요동반도 구룡지대에서 유행하였던 洞穴墓의 사례는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지석묘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지만 특히 서남부인 전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었다(李榮文 2002).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의 동북지방에도 이와 유사한 무덤이 존재하는데 이른바 탁자식 지석묘를 중심으로 석봉(石棚)으로 불리우고 있는데(박양진 1999), 최근에는 大石蓋墓, 大蓋石墓, 석관묘, 단독 적석묘 등도 석봉의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華玉冰 2011).

한반도의 지석묘와 중국 동북지방의 지석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 동북지방의 지석묘는 이르면 기원전 16-15세기경에 출현하였다고 보는데(위 책 238쪽),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반도의 지석묘와 중국 동북지방의 지석묘의 출현과 발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히는 것

2) 정선 아우라지, 흥천 외삼포리, 철정리 등의 이른바 석곽묘는 그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을 직접 안치한 석관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華玉氷 발표문 참조). 요동반도 남단의 경우에는 신석기시대 후기 샤오주산(小珠山) 상층문화 이래 오랜 동안 적석묘의 전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적석묘가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적석묘는 적석묘가 출현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요동반도 千山山地의 적석묘 출현 과정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청동기시대의 인구와 사회

한국 청동기시대의 전기와 중기는 취락의 숫자와 규모가 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분포도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농경민의 이주와 인구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고고학 자료가 증가하고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이의 문화적 연속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축적되면서 이른바 고아시아-통구스 주민 교체설은 이미 입지를 잃게 되었지만, 농경민의 이주에 의한 청동기시대 농업경제의 확산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어느 시기에 벼농사가 도입되고 다시 농경이 질적으로 도약하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농경민의 이주 시기 역시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한반도 이주 농경민의 故地는 요동반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고찰한다고 해도 특정 시기 주민의 대규모 이주의 이유나 증거는 찾기 어렵다. 어쩌면 농경민의 이주와 확산은 소규모, 국지적, 단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李清圭 2011).

한국 청동기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중국 동북지방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연구 가운데 많은 사례가 고조선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고고학자들이 고조선의 사회적 성격(노예소유주의 고대국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동반도의 강상과 러우상 유적을 노예소유주와 그 노예들의 순장 무덤으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기원전 7-8세기 요동반도에 있다가 한반도 서북지방으로 이동하였다는 중심지 이동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강상 무덤의 경우 하나의 무덤칸 안에 2~18명이 묻힌 다인장의 집단 무덤(최소 144명)으로서 피장자들 사이의 종속적인 사회적 신분 차이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성립될 수 없다.

고조선과 관련된 또다른 연구의 갈래는 비파형동검을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인식하고 그 분포 범위를 고조선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비파형동

검을 제외한 다른 공반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 토기의 양상, 취락 및 무덤 자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해석이다. 랴오닝 서부 지역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분포하는 비파형동검을 근거로 이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공동체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는 사회정치적 권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랴오닝 서부의 샤자텐 상층문화 또는 스얼타이잉쯔 문화의 유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복잡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지역이 이 (가상적)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고 한반도는 주변지가 되어버릴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샤자텐 상층문화 샤오헤이스거우(小黑石溝) 유적의 8501호와 9601호 석곽묘 등에서는 중원의 청동 의례용 그릇, 재지적 청동 그릇, 거마구, 무기, 도구, 장신구 등이 수백여 점 출토되었고(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심지어 인간을 의례용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구덩이도 조사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종교의례적 복잡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박양진 2012). 하지만 이 지역이 중국 동북지방이나 한반도의 다른 청동기시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의 “세계체계”의 형성과 변형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흥미로운 시도가 있다(李盛周 2007). 샤자텐(夏家店) 상층문화의 샤오헤이스거우(小黑石溝) 석곽묘 단계에 전기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계가 형성되고 정자와쯔(鄭家洼子) 6512호묘 단계에서 후기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계로 변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은 중원 지역을 중심지, 요서 지역을 1차 주변지, 요동 지역 및 길장지구·한반도를 각각 2차, 3차 주변지로 설정하고 각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나뉘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사회가 이른바 주변지대(periphery)로서 中原(당시로서는 춘추 시대의 周 왕실과 여러 제후국이 분포)의 중심지대(core)에 정치적으로는 종속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하는 이른바 “세계체계(world system)”를 과연 형성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심지가 구체적으로 中原의 어느 사회이며 1차, 2차, 3차 주변지가 이 중심지에 어떤 방식으로 종속되었거나 중심지와 주변지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체계이론을 활용한 이러한 신선한 시도는 잘못하면 중국동북지방의 선사 및 고대 사회를 화하(華夏) 문명과 중원 왕조의 조공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소위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와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사이의

뚜렷한 상사성은 각 지역간의 세부적 상이성과 함께 동시에 접근하여 고찰해야 한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선사시대 문화의 친연성은 청동기시대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심지어 후기구석기시대의 세석기문화(23,000~10,000년전)까지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다(Qu et al. 2013). 이러한 문화적 친연성을 민족 집단의 차원에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였던 이러한 범지역적 문화적 친연성과 각 시기별, 지역별 문화 변동과 차별성을 동시에 균형있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선사시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를 동북아시아의 범지역적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묘제, 생업경제, 인구와 사회 등을 최근 중국 동북지방에서 누적된 고고학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와 그 관계를 검토하였고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일본열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발표자의 학문적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수준 높은 여러 연구가 이미 축적되어 있고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宮井善郎 및 川上洋一 발표문 참조)에서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청동기와 토기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양해를 구한다.

한국고고학계에서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조사와 연구도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학문의 발전과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청동기학회를 창립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위치를 동북아시아라는 범지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도 그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제62집, 46-89쪽.
- 김권구 공민규 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聚落』. 서경문화사.
- 김민구 2015 「생계경제: 농경, 채집, 수렵, 어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110-127쪽, 진인진.
- 金元龍 1977 『韓國考古學概說』. 改訂新版. 一志社.
-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 김장석 2002 「남한지역 후기신석기-전기청동기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한국고고학보』 48.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조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 김장석 2009 「농경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 『선사농경연구의 새로운 경향』, 안승모 이준정 편, 사회평론.
- 김재윤 2011 「동북한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동북아역사논총』 32, 281-331.
- 미야모토 카즈오 2011 「일본열도의 문명 기원과 교류」,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엮음, 259-85. 학연문화사.
- 미야자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양진 1998 「북한고고학의 몇 가지 특징」,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5권 2호, 79-92쪽.
- 박양진 1999 「중국(만주)」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崔夢龍 李清圭 李榮文 李盛周 編著, 119-143쪽.
- 박양진 2012 「小黑石溝 유적과 夏家店 상층문화의 새로운 이해」 『21세기의 한국의 고고학 V』, 591-616쪽, 주류성.
- 박양진 2014 「청동기의 계통」, 이창규·손준호 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道具論』, 146-158쪽. 서경문화사.
-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배진성 2011 「韓半島 靑銅器時代 開始期の 이해」,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 125-144쪽.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 孫峻鎬 2006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서경문화사.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안승모 2012 「동아시아 조·기장 기원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6, 161-196쪽.
- 안승모 2015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 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安在皓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の 時期丘墳」 『考古學誌』 제16집.
- 안재호 이형원 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서경문화사.
- 李健茂 1992 「韓國의 青銅器文化」 『韓國의 青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 國立光州博物館.
- 이기성 2011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 청동기시대 구분」, 『호서고고학』 25권, 4-29쪽.
- 이기성 2015 「도구와 수공생산」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128-146쪽, 진인진.
- 이동주 2014 「신석기 말기 토기의 양상과 전개」,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380-407쪽.
-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 이성주 2016 「韓國考古學의 起源論과 系統論」,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제4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5-44.
- 李榮文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 이영문 윤호필 편 2017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墳墓와 儀禮』. 서경문화사.
- 이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李清圭 2011 「遼東과 韓半島 青銅器文化의 變遷과 相互交流」 『한국고대사연구』 63, 227-268쪽.
- 이청규 2015 「총설」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8-25쪽. 진인진
- 이청규 손준호 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道具論』. 서경문화사.
- 이홍종 2010 「도작문화의 정착과 확산」 『한국 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이홍종 이회진 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1 人間과 環境』. 서경문화사.
-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 임상택 2016 「한국 선사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제4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65-105.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 趙志軍 안승모 2015 『동아시아 고고식물 자료집 선사시대 중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선행 2014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湖南考古

學報』 48, 5-33쪽.

한국고고학회 편 2007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개정신판. 사회평론.

한국청동기학회 편 2013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2001 『和龍興城』 文物出版社.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小黑石溝』 科學出版社.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 大連出版社.

張忠培 主編 『肇源白金寶』 科學出版社.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a 『雙砬子與崗上』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b 『大甸子』 科學出版社.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Lee, Gyoung-Ah, 2011, “The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prehistoric Korea,” *Current Anthropology* 52-S4, pp. S307-S329.

Qu, Tongli, Ofer Bar-Yosef, Youping Wang, and Xiaohong Wu, 2013 “The Chinese Upper Paleolithic: Geography, Chronology, and Techno-typology,”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21: 1-73.

한반도 청동기 사용의 기원과 계통

-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 출토품을 중심으로 -

강 인 옥
경희대학교

目 次

- I. 서론
- II. 주요 청동기 및 반출유구
- III. 청동기의 유입시과 계통기
- IV. 결론

I. 서론

청동기시대는 지난 20여년간 한국 고고학을 끌어온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전공자와 자료의 축적이 괄목했다는 뜻이다. 다양한 자료의 등장과 편년 및 유형의 설정과 재논의 등 연구가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청동기시대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다.

한중일 3국에서 유일하게 전형적인 삼시기법을 채택할 정도로 고고학의 보편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한국이지만, 여전히 청동기시대에 대해서는 남한만의 고립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는 그 이유를 지나치게 토기에 편중된 연구에서 찾고자 한다. ‘청동기시대’로 명명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무엇보다 청동기 자체에서 찾아야한다. 청동기는 동광의 채굴에서 청동기의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적인 발달과 청동제품을 공급, 재분배하여 사회적으로 상징화된 체계로 사용되는 사회 복합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청동기가 삼시기법의 하나인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한 시기를 대표하는 보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청동기의 유입과정 및 동검문화로의 발달되는 과정은 동

아시아 청동기시대라는 거시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이 유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남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토기, 주거지 등에 편중되었다. 물론, 발표자는 토기와 취락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¹⁾,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청동기시대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동기 자체의 등장과 발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와 일본은 청동기의 발생은 중국이나 북방 유라시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다고 보던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²⁾. 또한, 비파형동검의 발생 시기를 전세기간을 고려해서 몇 세기 늦게 편년하는 것은 야요이 연대를 기원전 300년대로 한정했었던 일본 학계의 전통적인 견해와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일본의 야요이 재편년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전세기간을 고려하는 연대 편년의 봉인은 해제가 되었다. 새로운 편년관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AMS에 근거한 편년에 더하여 한반도를 건너뛰어서 요서지역과 내몽골 동남부 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를 직접 야요이 연대의 상한으로 이어서 새로운 연대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연대관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청동기 자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지난 20여년간의 발굴자료의 엄청난 증가, AMS 연대의 적극적인 도입에 따른 절대연대의 신뢰도 증가되면서 그 연대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초기 청동기의 자료도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청동기의 경우 비파형동검의 유입경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룰 뿐³⁾, 최근의 새로운 연대관과 신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미진하다.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에 대해서는 신암리 출토 청동도자, 팽이형토기문화인 금탄리 8호주거지, 봉산 신흥동 7호의 청동단추, 나진 초도의 청동단추 등 북한을 중심으로 몇 예가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들 초기 청동기의 존재는 우발적인 유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도 마찬가지여서 고토 다다시, 미야자토 오사무 등 일본학자는 물론, 한국에서는 박순발이 선동검기⁴⁾를

- 1) 물론 최근에는 토기를 통하여 남한과 요동, 송화강 중류 지역의 교차편년을 수립하려는 연구의 성과가 주목된다. (천선행) 2014.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호남고고학보 48. 단일호: 5-33.) 그럼에도 북한 지역의 공백과 지역 간의 유적 연구의 밀도차이 등으로 전체 무문토기의 편년체계 및 병행관계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2) 멀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진 금석병용기 시대 논쟁이 있다. 그 이후도 아키야마 신고(秋山進午)가 비파형동검의 연대를 중원과 비교해서 수세기 떨어뜨린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한반도의 청동기 유입은 상당히 늦은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미야자토 오사무는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는 우발적인 유입으로 보았고, 동검 자체의 성립기도 기원전 6세기 이전으로 보았다. 미야자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전개, 사회평론. p. 267~270.
- 3) 강인옥 2010 비파형동검의 한반도 유입과정에 대하여 - 소흑석구 출토 동검의 재해석과 마제석검의 기원을 중심으로 제 6회 한국청동기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pp.85~112.
김권구. 2012. 김천지역으로의 비파형동검문화 유입경로에 관한 고찰. 계명사학, 23, 43-70.
- 4) 박순발 「한국유역의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한강유역사』, 민음사.

제기한 것도 ‘청동기가 없는 청동기시대’를 의미하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때마침 최근 몇 년간에 한반도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발굴의 결과 많은 초기 청동기 및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들이 출토되어서 청동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조기로 상정되는 청동기시대 돌대문단계와 전기의 초기 청동기 및 비파형동검 최신의 자료를 살펴보고, 남한으로 청동기의 유입, 비파형동검의 지역화 등을 다루어 보겠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형성이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형성에서 차지하는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을 고찰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주요 청동기 및 반출유구

비파형동검의 유입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춘천 중도를 중심으로 몇 기의 양호한 자료가 입수되었다. 대부분 약보고서만 제출된 상태라서 전반적인 유물 공반상황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청동기시대 전기(그리고 초기) 단계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유구에서 정식 발굴로 청동기가 출토된다는 것 자체로서도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유구및 출토상황이 확실한 청동기 예를 출토 유구를 중심으로 주거지 출토와 무덤 출토로 나누어서 일별하겠다.

II-1 주거지 출토

1. 정선 아우라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년조사) 17호 주거지의 청동장신구

2016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정선 여량면 여량리(아우라지 유적) 청동기시대 17호 주거지의 출토품이다⁵⁾. 이 주거지는 장방형 석상위석식 노지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전형적인 각목돌대문 단계의 주거지이다. 제원은 872cm x 700cm x 48cm이다. 청동기 이외에 삼각만입 석촉, 장방형 석도, 석제 어망추, 토제 어망추,

5)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정선여량면여량리191번지(정선아우라지유적)내유적발굴(정밀)조사2차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강원문화재연구소 2017 『정선여량면여량리191번지(정선아우라지유적)내유적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한성백제박물관 2017 [한강과 마을의 흔적-한강유역 신규 발굴 유물 특별전시회], pp.75~83.

옥장식품(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약보고서에 제시된 도면만으로는 돌대문토기의 자세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장설명회의 자료르 참고하면 일부 절상 돌대문토기가 공반되었다고 한다. 주거지 내부에서 토기와 석기(석촉, 어망추, 석도 등)이 일정 공간에서 세트로 출토되어 거주 당시의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청동동장신구(단조의 청동제품이며 관옥과 함께 섞여 출토되었다.)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



그림 3.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 석제 목걸이 일괄과 청동기(원형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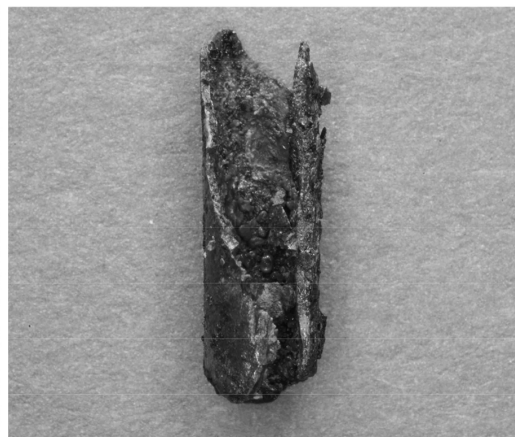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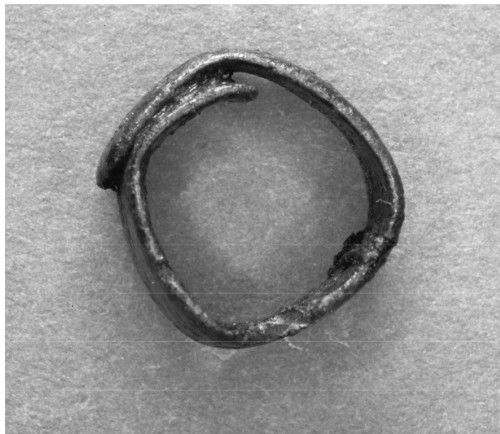


그림 4.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 출토 청동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17)

아우라지 17호 주거지에서는 모두 4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모두 단조로 청동을 주조해서 휘게 만들었다. 2점은 조금 두꺼운 청동판을 구부려서 반지처럼 만들었고, 또 다른 2점은 얇게 관형으로 휘게 만들었다. 이들 청동기는 석제 목걸이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상으로 판단할 때 길죽한 관옥과 납작한 구슬형의 장식을 이용해서 석제 목걸이를 만들었던 바, 이 두 종류의 청동 장식은 각각 관형 장식과 구슬형 장식의 일부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상으로 볼 때 관옥형 장식의 속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된 바, 대롱처럼 목걸이에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슬형 장식의 경우 그냥 목걸이에 걸기엔 다소 크기 때문에 석제 구슬을 랩처럼 감싸서 치레거리의 일부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주 학평리 219-5번지

2016년 7월에 청주 학평리 219-5번지에서 발견된 장방형의 가락동식 주거지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다⁶⁾.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비교적 훼손이 심해서 공반 유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주거지 크기는 1.450 x 640cm로 대형이다. 출토유물로는 비파형동검과 함께 마제석검, 방추차, 반월형석도, 그리고 이중구연토기와 저부편 등이 있다⁷⁾. 주거지 내부에는 모두 3개의 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부구조가 남아있는 1번과 3번노지는 모두 위석식이다. 비파형동검은 2번 노지에서 남쪽으로 15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닥에서 5cm정도 뜬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북벽부근에서는 혈구의 흠이 잘 살아있는 유엽형 마제석검 봉부편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석제 방추차, 이중구연토기1점, 마제석촉 1점, 지석 1점, 반월형석도1점, 무문토기편 1점, 무문토기 저부편 3점 등이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은 출토 당시의 사진과 출토 이후 공개된 사진들이 있다. 전체 크기는 19.8cm이나 봉부가 일부 결실되어서 실제로는 25cm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검날의 하반부는 비교적 발달했으나 상반부는 결실이 심하지만 돌기부도 다소 발달했던 형태로 보인다. 이 유적의 연대는 이중구연 토기와 가락동 유형의 절대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1~10세기대로 돌대문토기보다 한단계 늦은 시기로 편년된다.

6) 문화재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fpcp2010/220777492745>

한국문화재단 2016 『청주 학평리(219-5번지)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2395&ref=A>



그림 5. 청원 학평리 비파형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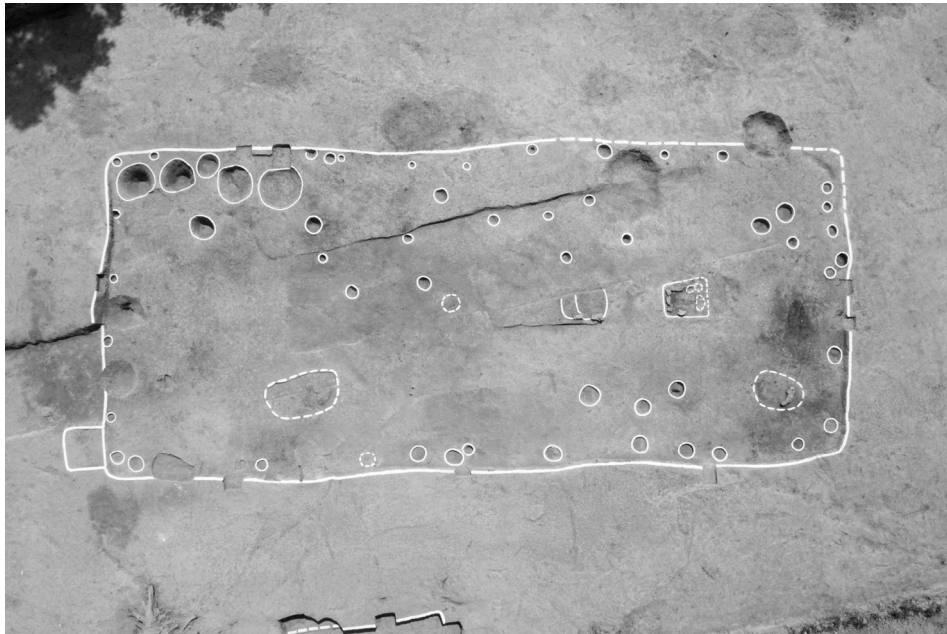


그림 6. 청원 학평리 주거지



그림 7. 청주 학평리 출토 유물(TV방송 캡처)

3. 중도 레고랜드 부지 2014년 37호 출토 선형동부 40호주거지(한얼문화재연구원)

2014년 7월에 보고된 중도 주거지유적에서 2기의 의미있는 청동기가 보고되었다. 선형동부는 한얼 발굴 37호 주거지의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전형적인 역삼동식 주거지 형태이다. 동부는 공부 부분에 5조의 돌대가 있고, 공부는 약간 벌어지게 마무리되었다. 날부분은 부챗날처럼 펼쳐지는 형태로 대체로 길림 송화강 일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이 선형동부는 타원형의 검과 두식과 공반되었다. 그밖에 37호 주거지에서는 공렬토기, 양부호, 유경식 석검, 석창, 석촉(유엽식, 삼각만입식, 일단경식), 석도(주형, 어형), 등이 공반되었다. 후술하겠는 바, 40호 출토의 석검은 날렵한 형태로 광주 역동, 춘천 우두동, 서천 오석리의 비파형동검과 유사한 것인 바, 비파형동검의 현지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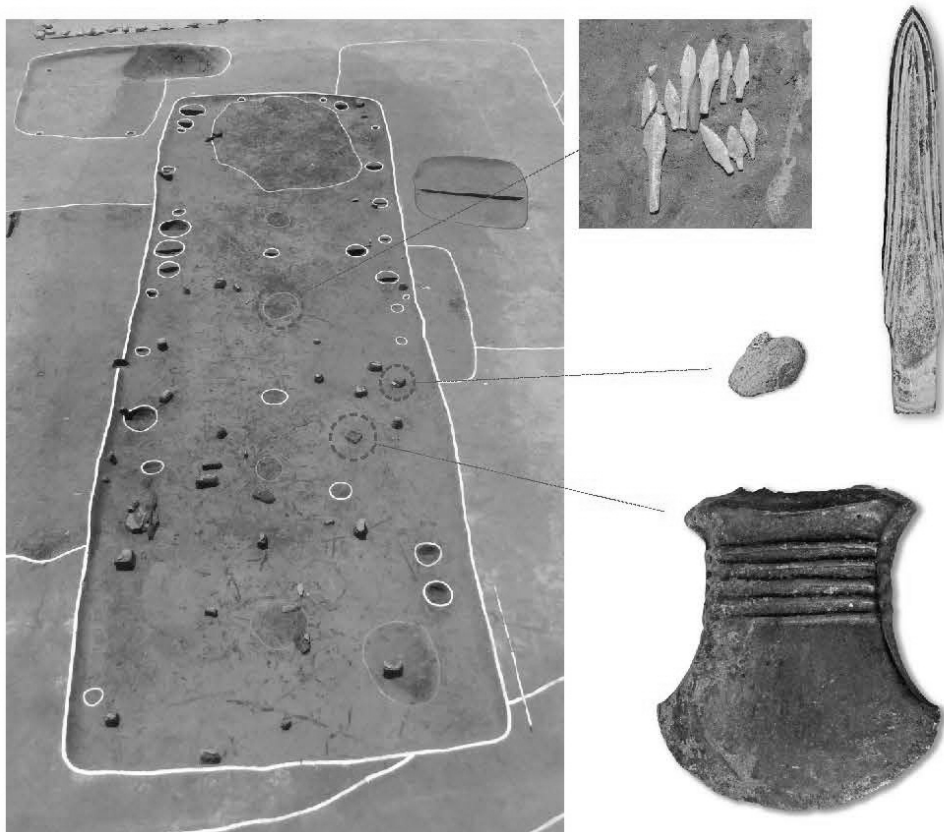


그림 8. 춘천 중도 한얼문화재연구원 조사 37호 주거지

4. 중도 레고랜드 부지 40호 주거지 출토 비파형동검(한얼문화재연구원)

비파형동검은 40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40호주거지는 37호와 달리 정방형의 소형 주거지이다. 비파형동검의 출토 지점은 주거지 한쪽 벽면 노지 근처에서 바닥면에서 약간 뜬 채로 발견되었다⁸⁾. 다만 40호 주거지의 경우 다른 장방형의 천전리식 주거지와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동검의 소속 및 공반관계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의 출판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정방형의 주거지보다는 그와 중첩된 장방형의 역삼동식 주거지와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40호 비파형동검은 잔존길이 14.5cm, 돌기부 최대 폭 3.6cm, 봉부길이는 2.3cm이다. 전반적으로 봉부가 비교적 발달했으며 등날은 단면 원형에 가깝다. 돌대부분이 도드라진 편이며 척돌도 잘 남아있다. 동검 상반부만의 특징으로 본다면 십이대영자식 전형적인 동검의 영향을 받은 서포동식에 가깝다. 봉부의 형태는 최근에 평창 하리 240-4번지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⁹⁾과도 비슷하다. 다만, 평창 하리의 경우 돌대의 발달이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세장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중도 40호주거지보다 한 단계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그림 9. 40호 주거지 출토유물

8) 2014년 7월 현장설명회의 설명 및 실견에 기초함.

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평창 하리 240-4번지 소규모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자료』.

5. 양구 고대리 57호 주거지

2015년에 보고된 양구 고대리 5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이다. 길이는 7.5cm, 너비 1.4cm, 두께 1.3cm이다. 주거지의 남쪽 점토 바닥에서 출토되었고, 잔존상태가 불량한 잔편이어서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필자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실견한 결과 등날이 잘 발달되었으며 검날의 일부가 남아있다. 등날에 전혀 마연의 흔적이 없는 점, 그리고 등날이 휘어져가는 각도를 볼 때 선암리식 또는 예전동식 동검의 검신 하부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리 유적의 성격은 홍주희의 최근 논고에 잘 정리되어 있다¹⁰⁾. 고대리 57호는 중간에 노지를 부분을 제외하고 주변에 모두 점토다짐이 있는 주거지이다. 이는 역삼동 유형에서 천전리식 주거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고대리 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57호 주거지에서는

공열문, 구순각목문 등이 시문된 토기와 일·이단경축, (장)주형 석도, 석창형 석검편 등이 공반되었다. 57호 전기 후반으로부터 일부 중기 초반의 유물도 포함하는 양상이다. 57호 주거지의 AMS 절대연대는 2720 ± 50 으로 대체로 기원전 8세기대에 해당한다. 기타 고대리식 2단계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18, 33, 60, 75호 주거지에서도 비슷한 연대가 나왔다. 홍주희¹¹⁾는 57호 주거지를 전기 후반~중기 전반대로 편년하여 그 연대를 기원전 10~9세기로 위치했다.



그림 10. 고대리 출토 동검편의 측면과 앞면(필자 촬영)

고대리 유형은 전기의 역삼동식 주거와 친연성을 보이는 물질문화를 기반으로 천전리식 주거에 앞서 전기 후반 무렵 출현해 중기 전반까지 천전리식 주거와 병존하는 과도기의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전기 후반을 대표하는 유적이며, 남한의 비파형동검 사용의 특징인 재사용되는 동검의 연대, 그리고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0) 홍주희 2016 「천전리식 주거의 출현과정에 관한 새로운 견해-양주 고대리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 19호, pp.48~71.

11) 홍주희 전거서,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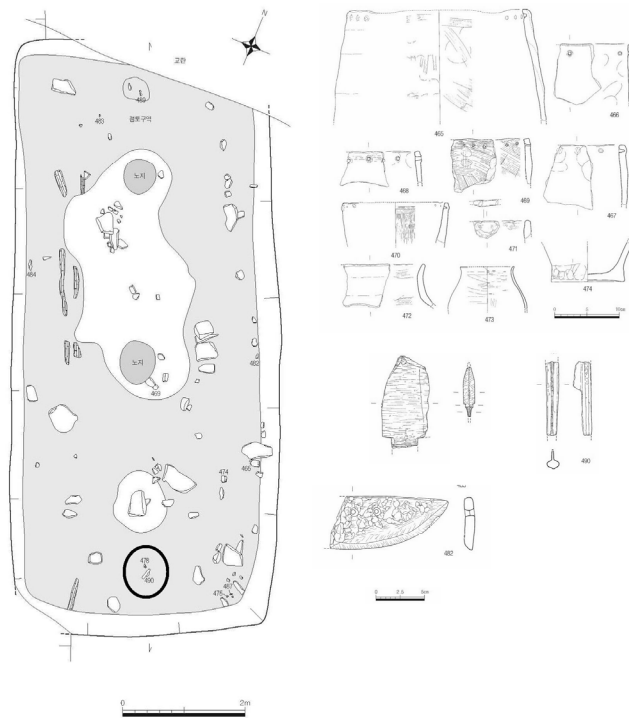


그림 11. 고대리 57호 주거지 출토유물(검은색 원형 표시 부분은 동검 출토 위치)

6. 춘천 우두동 33호 주거지 출토 동촉¹²⁾

춘천 우두동 조사구역 북동쪽 경계면에서 확인된 화재주거지이다. 비교적 교란과 주거지 중복이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노지가 2곳이상인 세장방형의 천전리식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길이는 4.92(잔존)x4.6m이고 잔존깊이 55cm이다. 석촉은 주거지 남쪽의 점토다짐 구역에서 석촉(무경식, 유경식-일체형, 유경식 양익형), 석침에 가까운 석촉(찌르개살),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그밖에 찰절구 등 다양한 석기 가공도구들도 함께 출토되었다. 석침형 석촉은 소영자를 비롯한 두만강 일대의 초기 청동기시대 석관묘에서 널리 사용된



그림 12. 우두동 33호 주거지 출토 동촉(필자 촬영)

12) 홍주희, 2011, 『춘천 우두동유적 I』, 강원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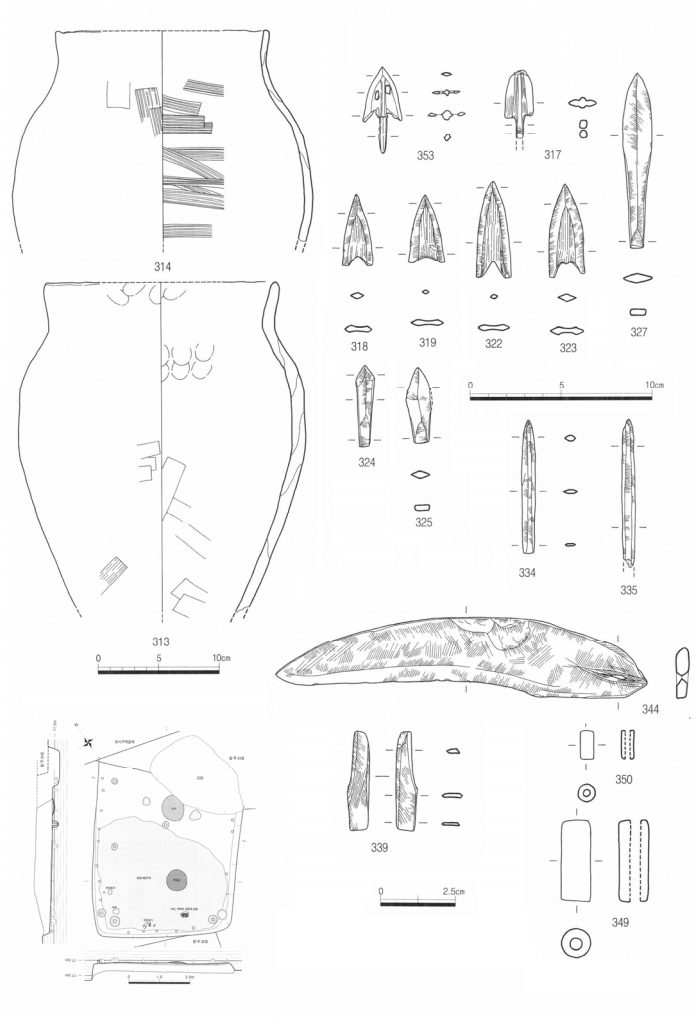


그림 13. 춘천 우두동 33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기적 양상으로 보았다(홍주희 2011, p.443). 따라서 우두동 주거지의 연대는 고대리와 비슷하여 대체로 기원전 10~9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II-2. 무덤 출토 청동기자료

7. 중도 레고랜드 구역 A1-29호묘(한강문화재연구원)

2016년에 약보고 된 중도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이다¹³⁾. 29호묘는 묘역식 지석묘에 해당되는데, 상석은 있지만 교란이 매우 심하게 되어서 하부에 매장주체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29호묘는 전체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A1구역 36기 중

13) 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구역내 유적 발굴조사 1차부분 완료 보고서(한강)』.

것과 매우 유사하다.

동축은 길이 4.8cm, 너비 2.15cm, 두께 0.5cm이다.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축 끝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동축의 날을 형성하고, 날의 가운데에는 천공이 되어 있다. 경부는 단을 지어서 끝으로 이어져 마무리 되었다. 제작시 용범이 잘 맞지 않아 주조흔이 잘 남아있다. 양양쪽 날의 각도로 볼 때 이러한 형태의 동축은 중원의 경우 서주시기에 주로 보인다(석암 2007). 또한 공반한 석침형 석촉은 소영자 유적에서 많이 보이는 전형적인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의 양식이다. 한편, 발굴자는 33호주거지를 우두동 5유형의 주거지로 보고 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과도

에서 가장 동떨어져서 동쪽에 별도로 존재한다. 상석의 크기는 210x134x62cm이며 묘역은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246x254x19cm(높이)정도로 추정될 뿐이다. 참고로 A1구역에서 길이가 A1-29호묘와 같이 2.5m이내인 것은 5기에 불과하다. 즉, 이 고인돌은 입지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당시 중도 지석묘 축조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공반유물 또한 불명이다.

동검은 경부와 하반부만 남아있다¹⁴⁾. 남아있는 길이는 12.5cm이며 검신 하반부는 9.3cm, 경부는 3.2cm이다. 경부의 양쪽은 남한 비파형동검의 전형적인 특징인 홈이 양쪽으로 파여있다. 등날은 원형으로 비교적 발 발달해있지만, 별도로 마연을 한 흔적은 없다. 검날의 경우 파손이 심해서 재마연이나 재가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결실인지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발견된 비파형동검 중에서 경부에 홈이 파여져있는 비파형동검 중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것이다.

유구의 파괴가 워낙 심해서 동검이 매납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남아있는 사진으로 판단하건데 동검은 매장주체부의 바깥이었으며, 당시 개석이 놓였던 가장자리에 구지표면에 가깝게 얹게 묻혀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동검은 김천 송죽리의 실제 동검 출토에 및 오림동 지석묘의 예와 마찬가지로 고인돌 앞에 거꾸로 꽂아놓았던 풍습¹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4. A1-29호 고인돌 하부구조와 동검 그림 15. 김천 송죽리 동검 출토상황(계명대 박물관 전시)

14) 약보고서에는 동검의 형태가 다소 불분명하나, 다음의 자료들에 비교적 명확한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2015년 2월 24일 JTBC뉴스(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79364)
이형구 2015 「춘천 중도의 고대 공동체사회」 『한국고대사탐구』 21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5) 강인옥 2016 「완주 상림리 유적으로 본 동아시아 동검문화의 교류와 전개 -동주식검의 매납과 청동기 장인의 이주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4집, pp.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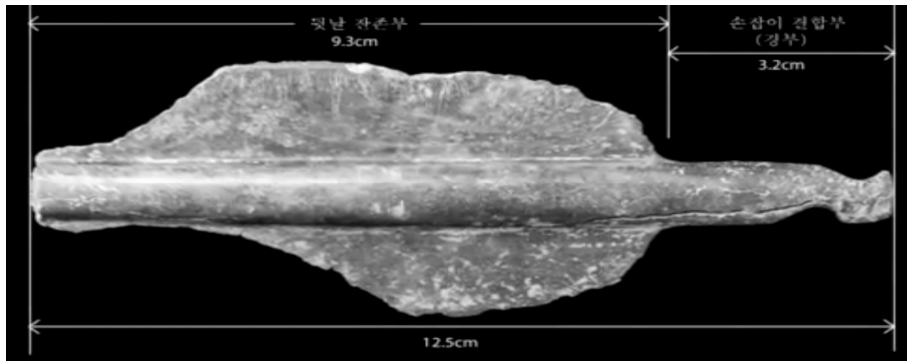


그림 16. 중도 A1-29호 지석묘 출토 비파형동검(TV방송화면 캡처)

8. 광주 역동 화장석곽묘 출토 동검

유구는 길이 230, 폭 100cm, 깊이 2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190x90cm이다. 출토 유물로는 날이 거의 닳아 없어진 동검, 이형청동기, 화살촉, 구슬 등이 발견되었다. 화살촉은 삼각만입식이고 이형동기는 김해 연지리 및 대련 강상 7호묘와 유사한 것이다.

동검은 잔존길이 22.0cm, 경부 2.5cm, 경부폭 1.85cm 최대두께 1.2cm이다.

광주 역동 화장 석관묘에서는 탄화목재와 인골의 AMS치가 제시되었는데, 각각 2986 ± 19 , 2954 ± 23 등이 나와서 대체로 기원전 12세기대로 편년된다. 현재까지 무덤에서 발견된 동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주목된다. 다만, 이 역동 유적과 거의 유사한 강상무덤의 경우 요령지역의 상대편년상 그 편년적 위치가 기원전 8~7세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청동장식의 형태도 완전히 일치 하지 않는다¹⁶⁾. 비슷한 청동장식은 나진 초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역동의 동검은 춘천 우두동과 유사하며 삼각형 만입석촉, AMS연대로 볼 때 우두동보다 다소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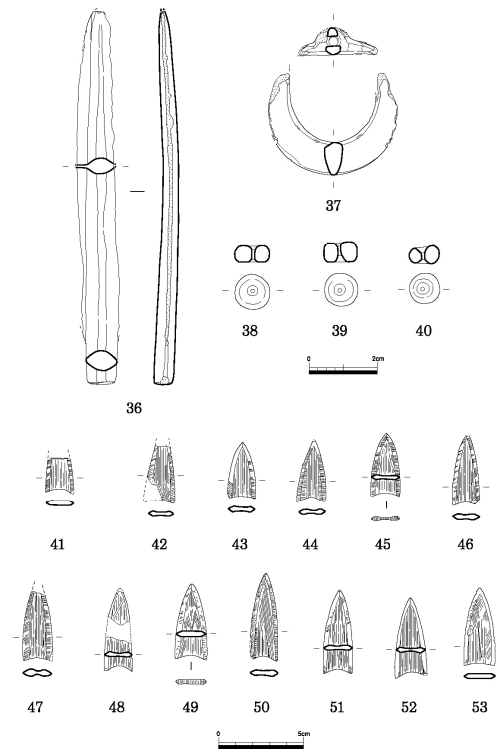


그림 17. 광주 역동 동검 공반 유물

16) 역동 출토의 청동장식을 검파두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출토상황이나 형태로 볼 때 동검의 무게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다.

9. 춘천 우두동 석관묘(홍주희 2011)

도로공사의 여파로 석관묘의 상반부는 결실된 채 내부만 조사된 석관묘로 길이 242cm, 너비 126cm, 깊이 41cm이다. 석관 중앙부의 바닥면 중앙에서 20cm위에서 동점 1점, 동측, 2점, 석축 9점, 곡옥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동점은 검신의 폭이 매우 좁고 세장하다. 날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등날은 단면 타원형이다. 등날의 마연과 검날의 마연각도가 서로 달라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경부 쪽은 아예 다르게 마연되었고, 별도로 끈을 묶기 위한 흔적이나 홈 등 손잡이 장착을 위한 흔적이 없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비파형동검의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길이 18.35cm, 폭 1.7cm이다.

유경식동측은 축신의 양측과 경부하단이 결실되었다. 경부는 단이지게 만들었다. 길이 3.35cm, 폭 0.98cm로 매우 소형이다. 우두동 33호 주거지 출토품과 비교하면 형태는 달라보이지만 축날의 각도, 경부의 가공 방법 등이 유사하다. 아마 석관묘 출토 동측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축날을 과도하게 마연하여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무경식동측은 부식이 매우 심하지만, 남아있는 동측의 형태로 볼 때 등날이 없고 평면 이등변삼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동측의 밑부분에 목질로 덮여있는 것으로 볼 때 삼각형만입측과 같이 화살에 끼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기 청동기시대 만입형 석축을 청동기로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동기가 석기를 모방하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반증하는 또 다른 자료가 된다¹⁷⁾

이상의 자료 이외에도 평창 하리 석관묘¹⁸⁾, 현암리, 91년 평창수습품¹⁹⁾, 양평 상자포리 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 등이 최근에 추가된 비파형동검 자료이지만, 유구가 불분명하거나 비파형동검 중에서도 다소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이어서 본 고에서 본격적인 검토는 제외하겠다.

17) 2015년 춘천 중도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D-3구역 7호 분묘에서도 유경식 석축을 완벽히 모방한 동측(길이 5.3cm x 1.3cm)이 발견되었다.

1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평창 하리 240-4번지 소규모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자료』.

19)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채집유물로, 현 춘천공학교 교사가 습득하여 신고했다고 한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III. 청동기의 유입시기와 계통

유구 및 공반유물이 분명한 9개의 유적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3단계로 편년이 가능하다. I기는 돌대문단계로 청동기시대 초기에 해당한다. 정선 아우라지 40호주거지로 대표된다. 절대연대는 대체로 고고학계의 편년 체계를 따르면 기원전 13세기전후가 된다.

II기는 청동기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중기의 과도기를 포함한다. 가락동유형, 삼각형만입석촉이 발견되고 유엽형의 동검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주거지뿐 아니라 무덤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다. 청주 학평리, 광주 역동, 춘천 우두동 석관묘, 우두동 주거지, 고대리 57호주거지 등이 해당된다. 그 절대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1~9세기로 상정할 수 있다.

III기는 석관묘뿐 아니라 고인돌에서도 쓰이며 흙이 파이는 남한의 전형적인 동검이 등장하는 토착화의 시기이다. 여전히 주거지에서도 출토가 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중도 지석묘, 중도 37, 40호 주거지 등이 해당된다.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며, 중도 지석묘와 같이 동검이 고인돌 거석기념물에서 상징화된 유물로 쓰이게 된다. 그 연대는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부로 기원전 9세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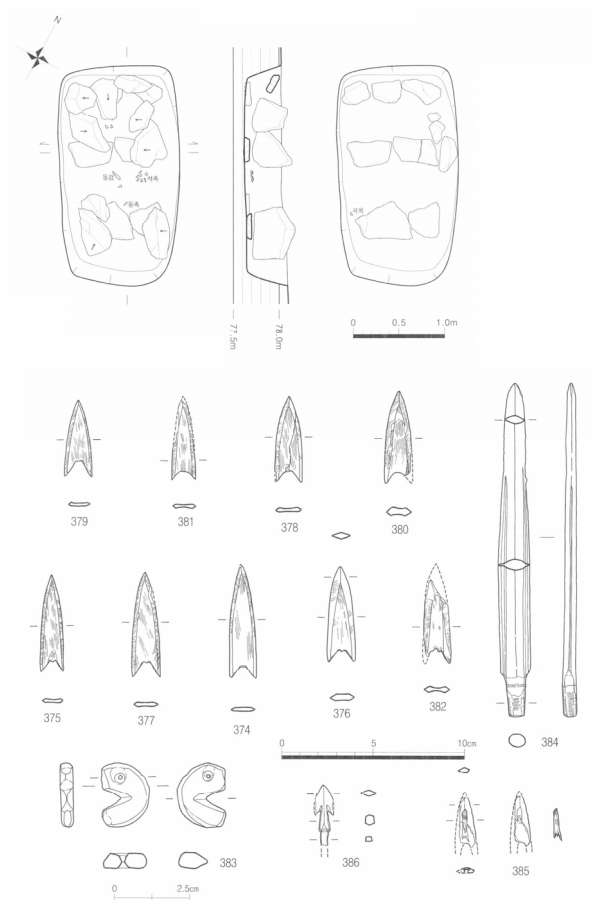


그림 18. 춘천 우두동 석관묘 동검과 공반유물

1. 초기 청동기의 기원과 계통

정선 아우라지에서 발견된 4점의 단조 청동장식은 한반도 청동기 유입연대를 강력적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기존에는 비파형동검 이전 시기 남한에서 청동기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박순발이 제시한 ‘선동검기’는 이러한 청동기의 부재를 전제로 제기된 개념이다. 또한 무문토기시대라는 개념

도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의 청동기 사용의 부재를 전제한 것이다.

동아시아 청동기시대 돌대문토기의 등장은 기원전 20~15세기에 시작되었고,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해서 한반도를 비롯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의 출토품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초기부터 이미 청동기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획기적인 자료가 된다.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 청동기의 주요한 유물은 최근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회 [한강과 마을의 흔적-한강유역 신규 발굴 유물 특별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본 전시에서 기존 약보고서에서 보고가 된 어망추, 반달형돌칼 이외에 정선 아우라지 17호 출토의 토기 2점도 추가로 공개되었다. 하나는 절상돌대문토기이며, 또 다른 토기는 두만강 유역의 전형적인 홍성식 토기이다. 즉, 구연부 끝에 돌대를 두르고 손으로 눌러서 그 문양을 마무리했으며, 토기의 하반부는 급하게 좁아지는 토기이다. 이러한 토기는 두만강 유역의 후기 신석기시대에서 전기 청동기시대에 널리 유행한다. 일찍이 북한의 회령 오동, 무산 범의구석 등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인 금곡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1980년대에 화룡 홍성의 전면발굴을 통해서 두만강 유역일대 청동기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양식임이 확인된 바본 고에서는 ‘홍성식 토기’로 부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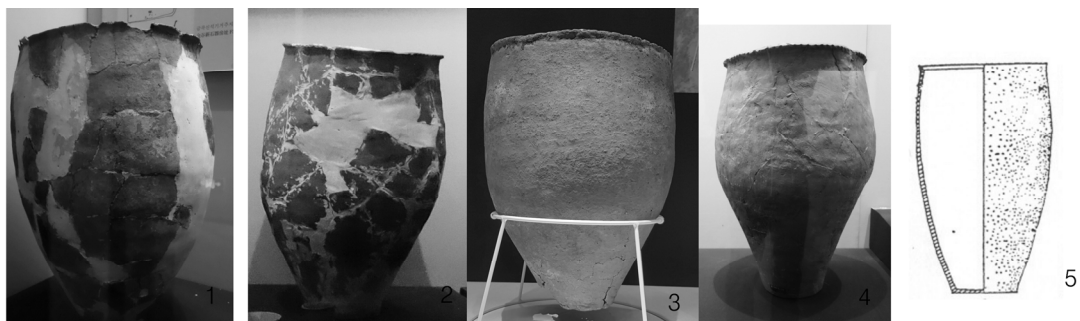


그림 18. 정선 아우라지 17호주거지 ‘홍성식 토기’(3)과 두만강유역 출토품 1-용정 금곡 서산 3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2-홍성 3기문화, 5-홍성 5기문화, 5- 훈춘 영화 남산 석곽묘 출토품

정선 아우라지 출토의 홍성식 토기는 홍성 4기와 5기 사이에 해당된다. 홍성 4~5기는 두만강유역 전기 청동기시대로 절대연대는 기원전 15~11세기로 편년된다²⁰⁾. 홍성유적은 홍성 86F1 절대연대치(3260 ± 150)를 감안하면 기원전 12~13세기 정도가 하한연대로 생각된다. 홍성 이후의 유정동 단계에서 두만강 유역의 홍성식 토기는

20) 강인욱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3집, 한국고고학회.

많이 퇴화한다. 예컨대, 퇴화된 홍성식토기가 출토된 훈춘 영화 남산(琿春 仰花 南山)의 경우 탄소연대는 2975 ± 75 가 제시된 바 있다. 즉 기원전 11~10세기경 유정동 유형의 출현과 함께 홍성식토기가 사라진다. 따라서 토기로 볼 때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는 기원전 11세기 이후가 될 수 없으며, 상한은 기원전전 15세기가 된다. 조금 더 편년을 좁혀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기원전 13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커다란 문화의 변혁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동기로 보면 카라숙계통의 청동기가 동아시아 각

지에 확산되는 시점이며, 마성자문화로 대표되는 요령 지역의 석관묘가 두만강 유역 일대로 확산된다. 필자는 2009년 소영자 유적을 재보고하면서 “소영자로 대표되는 두만강 유역 석관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기원전 12세기 전후로 한 시기의 석관묘의 확산과 연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본 바 있다²¹⁾. 그리고 소영자식의 골침(찌르개)가 강원도지역의 전기 청동기에서 발견된 것²²⁾을 감안하면, 기원전 13~12세기경의 전면적인 문화의 확산과 변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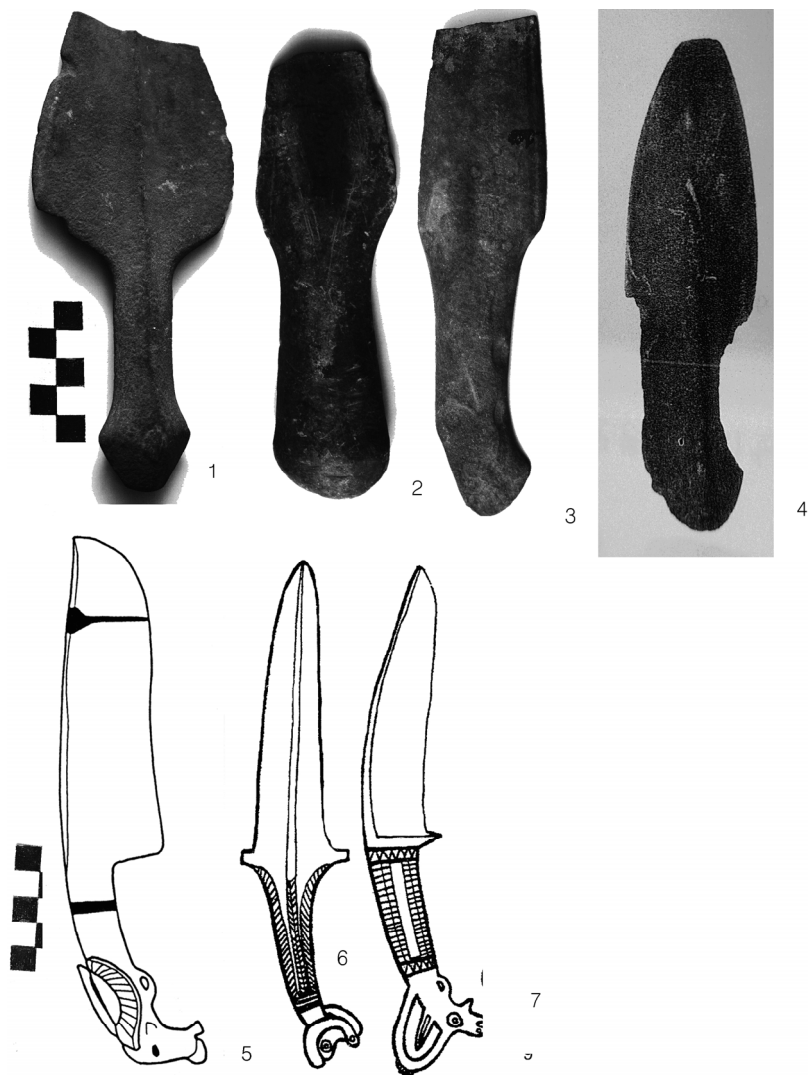


그림 19. 홍성 출토 곡병식 석검과 카라숙식 청동검 및 석검(1~3 : 연해주출토, 4-홍성 82호주거지 내부토 출토, 5-河北 小河南, 6,7 - 河北 靑龍 抄道溝

21) 강인욱 2009 박물관 소장 두만강 유역 선사시대 유물 연구 -연길 소영자 유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총서 16, 서울대학교박물관.

22) 홍주희 2011 「동북한형 찌르개에 대한 소고」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V』, 최몽룡 편저, 주류성.

강원도 지역에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편년의 증거로 홍성 주거지 8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곡병식 석검이 있다. 이 곡병식 석검은 연해주 지역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기원전 13~11세기에 중국 북방지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카라숙식 동검을 모방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우라지 출토 청동기의 기술적, 형식적 특징으로 그 계통을 살펴보자.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로는 13~9세기의 만주일대의 청동기는 소위 카라숙 계통의 청동기와 중원계통 청동기로 대별된다. 중원의 청동기에서 정선 아우라지 청동기의 전통과 이을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시베리아 초원지역에서 중국 북방 일대까지 널리 확산되었던 카라숙 청동기계통이 그 기원지로 지목된다. 카라숙계 청동기는 스키토-시베리아 청동기(기원전 9~3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초원을 대표하는 청동기이다. 카라숙 청동기(기원전 13~9세기)는 세이마-투르비노(기원전 20~15세기)의 발달된 청동기 기술의 장인집단이 유라시아 초원을 거점으로 유라시아 각 지역으로 확산된 데에서 유래한다. 러시아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에 세이마-투르비노 현상이 동아시아 청동기의 기원임을 지적했고²³⁾, 최근 중국 학계에서도 세이마-투르비노 현상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고 중국 북방지역 청동기의 기원을 소급하는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²⁴⁾.

연해주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카라숙 청동기 안에서도 이러한 청동 단조 장식의 계통을 살펴보자. 청동기를 넓게 판을 만들어서 구부려서 석제 장신구 속에 끼워서 사용하는 전통은 세이마-투르비노 계통의 청동 제련기술을 발전시킨 서부 시베리아 바라바 초원의 기원전 18~15세기에 유행한 크로토보문화에서 널리 보인다(그림 24). 크로토보문화의 소프카-2유적은 필자에 의해 누차 유라시아 제련기술을 담보한 장인들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소개된 바 있다²⁵⁾.

다음으로 동쪽으로는 몽골 서부와 자바이칼 일대의 기원전 13~11세기에 존재했던 판석묘문화의 초기 형태인 드보르쵸이문화에서도 발견된다²⁶⁾(그림 26-15). 드보르

23) Chernykh, E. N. (1992). Ancient metallurgy in the USSR: the early metal age. CUP Archive.

24) 세이마-투르비노 현상에 대해서 지난 2~3년간에 북경대(임매춘)과 길림대 고고학과의 교수(양건화)가 가장 대표적인 고고학 저널에 연이어 출판했다.

林梅村 2016 「塞伊玛-图尔宾诺文化在中国」 『考古与文物』 2期, pp.94~101.

杨建华, & 邵会秋 2014 「商文化对中国北方以及欧亚草原东部地区的影响」 『考古与文物』 3期, pp.45~57.

杨建华, & 邵会秋 2017 「欧亚草原东部金属之路的形成」 『文物』, 6期, pp.60~74.

25) 강인욱. (2016). 완주 상림리 유적으로 본 동아시아 동검문화의 교류와 전개-동주식검(東周式劍)의 매납과 청동기 장인의 이주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4, 4-25.

Черных Е.Н., Кузьминых С.В. Древняя Металлургия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М., -Наука, -1989.(초르느이흐 외, 1989, 북 유라시아의 고대 금속기술)

Парцингер, Г., 2000, Сейминско-турбиский феномен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сибирского звериного стиля" //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Н.1, Новосибирск. (파징거, 2000, 세이마-투르빈 현상과 '시베리아 동물장식의 형성')

조이문화에서는 석제 목걸이에 일부 청동기를 끼우는 형태로 사용되어서 정선 아우라지의 용례와 거의 유사하다. 이와같이 카라숙 청동기에서도 북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자바이칼 일대를 걸쳐서 유행했던 청동장식의 계통을 계승한다. 한편, 이 루트는 연해주 청동기에 대한 성분분석으로 자바이칼 지역에서 그 계통을 찾던 기존의 연구²⁷⁾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콘코바의 분석결과에 따르면²⁸⁾ 연해주 지역의 청동기는 주석합금 계열과 비소합금 계열로 나뉜다. 비소합금은 시베리아의 청동기시대 초기~카라숙문화까지의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연해주와 비교적 인접한 동시베리아 남부 청동기의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1-2%의 비소 합금 청동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석이나 비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비슷한 청동제련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주힌(В.А.Пазухин)의 연구에 따르면²⁹⁾ 비소 합금 청동은 산화된 구리 광석과 비소의 계관석, 옹황, 유비철광의 유화물 광석을 동시에 가열함으로써 얻어졌다고 한다. 이와같은 연구에 근거해서 콘코바는 카라숙계통의 청동기를 만들었던 자바이칼의 금속제작과 같은 계통으로 보았다.

필자는 구고에서³⁰⁾ 기원전 13세기를 전후한 시기 카라숙 청동기의 동아시아 유입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이칼 지역의 청동기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바이칼 지역에서는 동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글라즈코보문화(기원전 30세기~25세기)에 이미 순동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으며³¹⁾, 이후 카라숙계 청동기도 출토되기 때문에 청동기의 출현연대가 중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일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자바이칼 지역은 중원 지역과는 또다른 초원계 청동기의 제작 전통이 가장 동쪽에서 발견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원계 청동기문화권, 그리고 비파형동검문화권과 이질적인 청동기가 발견된다면 그 기원지로는 자연스럽게 자바이칼 지역이 지목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연해주 지역의 청동기에서 분명하게 초원계의 유물이 출토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화적 흐름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분분석과 청동기 자체의 제작과 용도에

26) 최몽룡, 이헌종, 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제 4장 청동기시대 참고

Асеев И.В. Юго-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в эпоху камня и металла_2003_Новосибирск.

27) 세르게예바, 1981, 동시베리아 남부의 고대 야금기술.

Сергеева Н.Ф. Древнейшая металлургия меди юг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Н, 1981.

28) Конькова Л.В. Бронзолите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рубеж II-I тыс. до н.э. - XIII век н.э. -Л, Наука, 1989. (코니코바, 1989, 소비에트 극동 남부의 청동제련술 - 기원전2~1천년기 무렵부터 기원후 13세기까지)

29) Гришин Ю.С. Памятники неолита, бронзового 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ов лесостеп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 М., 1981. - С. 203.(---, 1981 자바이칼 삼림스텝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모스크바)

30) 강인옥 2009 「기원전 13~ 9 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동진(東進)과 요동」 『호서고고학』, 21집, pp.18-67.

31) 최몽룡, 이헌종, 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제 4장 청동기시대 참고

서 보이는 유사성은 연해주, 나아가서 한반도 초기 청동기의 계통을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 청동기의 계통이 정리된다. 세이마-투르비노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확산된 청동기 제작 전통을 카라숙계통으로 지역화된다. 중국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청동기의 전통은 한반도 서북지방(평북 신암리)까지만 파급된다³²⁾. 반면에 자바이칼-연해주로 이어진 청동기의 전통은 거대한 무기, 마구 등이 없이 청동 장신구 위주로만 계승된다. 자바이칼-연해주 청동기는 단조로 만든 청동판을 휘어서 석기 장신구의 부속으로 사용했다. 연해주~한반도 일대에서는 곡옥을 모방한 곡옥형 청동기와 같은 자체적인 청동기도 등장했다.

세이마-투르비노 청동기에서 발달한 카라숙 청동기의 전통은 확산력이 빠른 청동기 장인집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파력은 매우 커서 연해주 일대는 물론, 심지어 일본 열도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카라숙계통의 청동기가 동아시아 일대로 확산되는 양상은 북위 42도를 한계로 북쪽에서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생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라숙계 청동기는 동아시아 일대에 기후가 한랭건조화되어 토착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에 등장한다. 하가점하층-상층의 교체기, 무문토기의 등장, 백금보문화의 등장등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 돌대문토기로 대표되는 소위 ‘조기 청동기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으로, 북방 초원의 확산과는 별개의 문화전개가 이루어진다. 정선 아우라지의 청동기는 이러한 통설에서 벗어나서 돌대문토기의 확산과 함께 청동기의 제작 전통이 자바이칼에서 연해주 일대를 거쳐서 강원도 일대로 파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II기 청동기시대 전기 : 동검의 사용 지역간 교류

돌대문토기 단계에서 카라숙 청동기의 영향으로 성립된 연해주 일대의 청동기가 강원도 지역에서 내려온 것에 반하여, 청동기시대 전기가 되면 동검, 동촉, 장신구, 검과두식 등 청동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계통들도 다변화 된다.

먼저, 동검을 보자. 현재 동검의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다. 필자의 기존 견해인 기원전 9세기 설에 맞추기에는 연대를 소급하는 예가 많다. 그간 발표된 많은 자료를 검토할 때 무조건 동검의 연대를 9세기 고정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필자 역시 동검의 연대가 소급될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요서지

32) 강인욱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동진(東進) 과 요동」 『호서고고학』, 21집, pp.18-67.

역의 전형적인 십이대영자식의 동검 연대는 기원전 9세기를 소급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비파형동검의 연대를 극적으로 소급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년명 자료가 공반된 하가점상층 문화 및 유라시아 스키토-시베리아 유형의 출현연대와 맞물린다. 또한, 광주 역동과 같은 기원전 12~10세기 단계의 AMS 연대를 그대로 신뢰할 경우는 비파형동검의 기원이 한반도가 될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의 동검은 광주 역동, 우두동 등은 비파형동검의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동검이다. 즉, 현재의 연대관을 인정할 경우 비파형동검은 요서지역의 전형적인 비파형동검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석검을 모방해서 만든 동검은 다른 계통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전고(2005; 2010)에서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수용양상을 검토하면서 석검 전통이 강한 이 지역에서 전기 비파형동검의 전통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남한에서 석검을 모방하는 동검이 등장했을 가능성과도 이어진다. 석검과 동검의 형성 과정은 그 자체로 많은 논증이 필요한 바, 별고에서 다루겠다.

한편, II기에 두만강유역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이 시기 두만강유역과 춘천지역의 관계는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³³⁾ 소영자 유형의 석침(찌르개살)의 강원도 유입이 된 흔적이 보인다³⁴⁾. 소영자 유적은 기원전 12세기를 전후해서 요동지역에서 두만강유역으로 유입된 석묘 강원도 출토의 소영자형 찌르개(석침)의 존재는 두만강 지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³⁵⁾.



그림 21. 정선 아우라지 출토 곡옥형 석기



그림 22. 진주 대평
옥방5지구 출토 청동기

33)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를 말한다. 두만강 유역의 편년에는 중기 유정도유형에 해당한다.

34) 홍주희 2011 「동북한형 찌르개에 대한 소고」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V』, 최몽룡 편저, 주류성.

35) 강인옥 V. 고찰 『박물관 소장 두만강 유역 선사시대 유물 연구 - 연길 소영자 유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 총서 16.

II시기 한반도로 유입되는 동북한 지역의 청동기 계통과 관련하여서 진주 대평 옥방의 곡옥형 청동기가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진주 남강댐 발굴에서 청동장식이 확인된 바 있다. 대평리 옥방 5지구 D 구역 생활면에서 출토된 곡옥형 장식이 그것이다³⁶⁾. 옥방 5지구 출토의 청동기는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주거지 내부출토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필자는 구고에서³⁷⁾ 적극적으로 초기 청동기의 증거로 채택하기를 주저했었다. 하지만 곡옥을 모방한 듯 한 단조 청동기 장식은 청동기시대 중기나 후기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후대 문화층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옥방 5지구 출토 곡옥형 장식도 초기 청동기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옥방 5지구 출토와 거의 똑같이 단조로 청동을 가공하여 동도를 모방했으며 그 끝에 구멍을 뚫은 거의 유사한 형태가 연해주 일대의 시니가이, 베트로두이³⁸⁾, 아누치노-14³⁹⁾ 지점 등 기원전 1천년기 초엽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그림 23-16~19, 35, 38~40). 특히 시니가이 유적에서는 18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어서 연해주의 초기 청동기 상황을 아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⁴⁰⁾. 그 중 곡옥형 청동기 3점, 동포 6점이고 나머지 9점은 청동을 단조해서 만든 장식품이다. 단조 청동 장신구 중에서 5점은 하가점상층문화를 비롯 몽골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주형 장식이고, 나머지 4점은 단조한 청동판을 구부려서 만든 장식이다. 즉, 시니가이에는 진주 옥방과 정선 아우라지에서 발견된 두가지 청동기가 모두 발견되었다. 초기 청동기가 주로 돌대문토기와 함께 두만강유역의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한편, 역동 지식묘의 이형 청동기의 경우도 초도에서 발견되었다. 초도의 경우 발굴 당시 층위는 없지만, 필자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분기를 했는데, 특히 초도 3기에 시니가이문화계통의 토기유형이 보인다⁴¹⁾. 광주 역동의 이형 청동기가 초도 3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서북한 지역에서 초기 청동기로 간주되는 신암리 청동도자, 금탄리 청동단추 등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다. 신암리 출토의 청동도자는 카라숙계 청동기 중에서도 특히 요동과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중국의

36) 이형구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선문대학교박물관, 2001.

37) 강인옥 2007, 『환동해지역선사시대사회집단의형성과문화교류』, 제35

회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회.한국상고사학회, p. 117.

38) Сидоренко 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исследования тетюхинской группы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палеометалла, Первобытная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см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2015

39) Ключев, Н. А., & Слепцов, И. Ю. (2001). Раскопки поселения Анучино-14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In Шест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ов (클류예프 외, 2001,[아누치노-14 유적의 발굴보고]).

40) 최몽룡, 이현종, 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제 4장 청동기시대 참고

41) 강인옥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2호, 그림 3 참조.

북방 지역에서 출토된다. 즉, 압록강 유역일대와 한반도 중부의 관련성은 청동기로 볼 때는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우두동 출토 동축을 보자. 우두동 출토 양익동축은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우두동 33호 주거지에 소영자식의 찌르개살이 공반되었다는 데에 착안하여 우두동 단계에서 두 청동기의 계통이 복합적으로 결합했다고 본 홍주희의 견해⁴²⁾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경부에 단이 지고 축날의 각도 및 제작 방법은 중원지역의 상대와 서주시기 출토품들과 유사성이 강하다. 대체로 이와 같은 양익식 동축은 기원전 15세기(상대)부터 춘추시기까지 거의 형식적인 변이가 없이 이어 진다⁴³⁾. 또한, 동북지역의 경우 요서지역은 포수영자 881호, 요동지역은 유가탄 유적 등은 물론, 한반도 북부에서는 대아리, 상매리 등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양익식 동축이 발견된 바 있다. 즉, 중원에서 한반도 일대까지 가장 널리 퍼진 청동기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동축의 형태를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른 단계 비파형동검(예컨대, 이도하자, 십이대영자 등)에서는 이 중원식 양익동축은 발견되지 않으며, 요동반도 지역의 대취자나 타두 적석묘에서 출토된 동축과는 다른 형태이다(그림 22). 따라서 요령지역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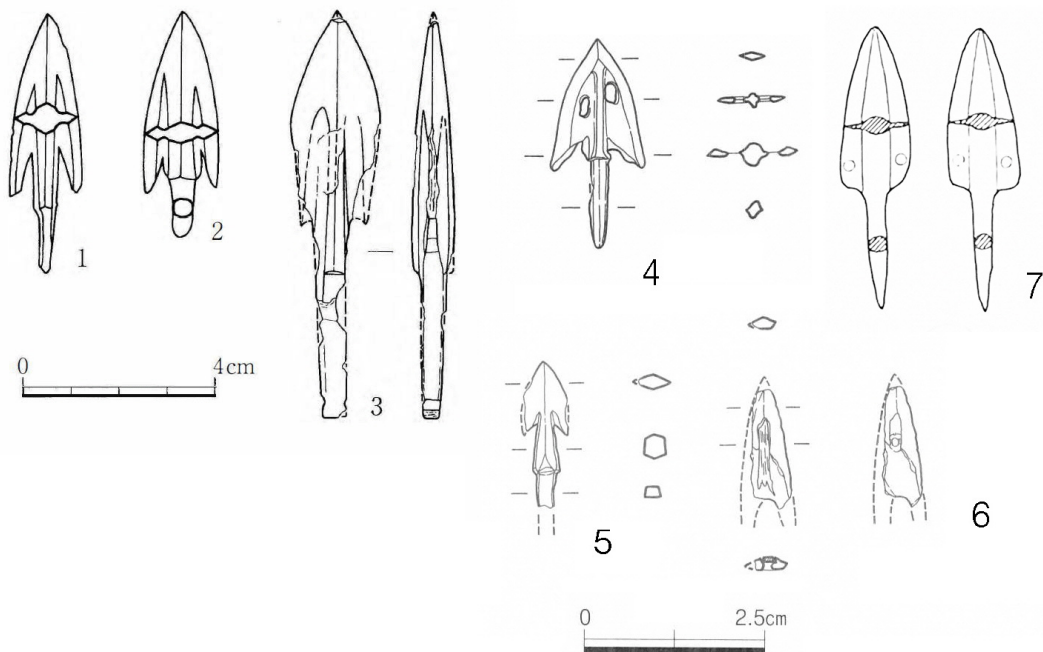


그림 23. 우두동과 한국 동축 출토 예 비교 1- 대아리 2-상매리 3-덕치리 4-6 우두동, 7- 대련 대취자

42) 홍주희 2011 「동북한형 찌르개에 대한 소고」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V』, 최몽룡 편저, 주류성.

43) 石岩. (2006). 中国北方先秦时期青铜镞研究 (Doctoral dissertation, 吉林大学).

이혜경 2014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시대 동축의 편년과지역상」 『호서고고학』 pp. 62~93.

반면에 우두동 석관묘출토 무경식 동축은 비록 마모가 심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로 삼각형만입식 석축을 모방한 것임이 분명하다(그림 22-6). 그리고 실견해본 결과 우두동 석관묘 무경식 동축에는 거푸집의 흔적은 전혀 없어서 단조청동기를 이어 붙여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중원식의 동축이 이 지역에 유입되어서 빠르게 현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III기 : 실용품에서 상징물로

III기가 되면서 비파형동검은 등날이 뚜렷하고 돌대가 잘 살아있는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중도 A1-29지석묘의 경우처럼 지석묘의 외부에 표식처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비슷한 예가 김천 송죽리에서 보이며, 전체 무덤군으로 볼 때 가장 동남쪽으로 동떨어져서 설치된 양상이다. 아마 III기부터 지석묘 사회에 비파형동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생각된다. 즉,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는 실용품적인 성격에서 지석묘에서 석검과 함께 사용되는 상징화된 위신재로 그 역할이 바뀐다. 한반도 석검문화에 비파형동검이 유입되는 과정은 구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⁴⁴⁾, 한반도 청동기시대 석검제작의 강한 전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석검문화에 동화되어서 사용되어왔다⁴⁵⁾.

III기에서 상징화된 위신재로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도 주거지와 같이 주거지 출토품이 많다. 이렇게 일관된 한반도 초기 청동기의 큰 특징으로는 주거지 출토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무덤보다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예는 주변지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⁴⁶⁾. 일반적인 청동기에 대한 이해는 처음 도입될 때에는 집단의 상층 계급에서 사용되다가 이후 청동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

44) 강인옥 2010 『비파형동검의 한반도 유입과정에 대하여 - 소흑석구 출토 동검의 재해석과 마제석검의 기원을 중심으로』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pp.85~112.

45) 석검이 비파형동검을 모방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이형원은 혈구식 석검의 기원을 비파형동검에서 찾는다(이형원 2017, 「경기남부 횡구지천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쟁점」 『호서고고학』 37집, 호서고고학회, pp. 4~47). 그런데, 비파형동검에서 혈구가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세형동검 단계일 뿐 비파형동검에서 혈구는 거의 없다. 연해주나 환인 오녀산성 출토 석검의 예에서 보듯이 실제 동검의 모방한 석검의 경우 혈구가 아니라 도드라지게 형성된 등날과 비파처럼 펼쳐지는 검날의 모방에 있다. 동검과 석검의 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46) 유일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유라시아 초원의 카라숙 단계 청동기(기원전 13~9세기)이다. 카라숙 청동기의 출토 상황을 보면 많은 경우 무덤이 아니라 지표에서 우연히 수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즉,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이들은 수혈주거지가 아니라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다.

며, 청동기가 발견된 주거지에서 분명하게 주거지 간의 계급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출토유물이 규모에서 도드라진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청동기의 초기 사용과정은 계급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주거지에서 석기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청동기 유입과정은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 즉 초기단계 무덤의 부재현상과 관련된다. 현재까지 돌대문토기 단계에 뚜렷한 무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거지 내부에서 완형의 장신구와 동검이 상당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폐기되어 발견된다. 정선아우라지의 경우 청동기를 포함한 목걸이 장식이 in situ상태로 일괄출토 되었다. 또한 중도나 학평리에서도 거의 완형이 주거지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지 않고 주거지와 같이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 자체를 의례 공간으로 사용하고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서 초기 청동기의 도입은 사회분화나 계급화와 동반되지 않은 채, 실용기로서 석기를 대체하는 정도였다. 석검의 제작 전통은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에서 초기 청동기시대부터 이루어졌고, 청동기의 도입은 아주 오래되었음은 일찍이 지적되었다(강인욱 1996).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면서 지식묘에서 동검이 부장되는 등 의례의 상징물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석검 사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청동기의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즉, 청동기시대 시작부터 이어진 석검 중심의 청동기시대 사회에서 동검의 사용은 널리 유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철기시대인 세형동검 단계가 되면서 동검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는데, 이는 철기가 석기를 대체하면서 석검 중심의 사회가 해체되었던 현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 중부지역의 신출한 청동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 청동기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새롭게 검토했다. 한반도 청동기는 정선아우라지 I기는 돌대문 단계로 청동기시대 조기에 해당한다. 정선 아우라지 40호주거지로 대표된다. 절대연대는 대체로 고고학계의 편년체계를 따르면 기원전 13세기전후가 된다. 이때에는 주로 단조형 장신구로 석제 장신구의 일부로 도입된다. 이러한 단조 청동기 장신구는 세이마-투르비노에서 시작해서 카라숙 청동기 단계에 널리 유행했다. 정선 아우라지의 청동기는 연해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II기는 청동기

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중기의 과도기를 포함한다. 가락동유형, 삼각형만입석 축이 발견되고 유엽형의 동검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주거지뿐 아니라 무덤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다. 청주 학평리, 광주 역동, 춘천 우두동 석관묘, 우두동 주거지, 고대리 57호주거지 등이 해당된다. 그 절대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1~9세기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청동기의 계통은 다변화되며 동검류가 등장한다. 현재까지 출토품인 역동과 우두동의 경우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의 특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석검 전통이 강한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석검모방 동검으로 판단된다. 동축 역시 중원 지역에서 유행하는 것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토착화의 양상을 보인다. III기는 석관묘뿐 아니라 고인돌에서도 쓰이며 흙이 파이는 남한의 전형적인 동검이 사용하기 시작되는 토착화의 등장하는 토착화의 시기이다. 동검은 이 시기부터 고인돌에서 사용되며 거석기념물의 상징화된 표식이 되고 위신재의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역에 동검이 확산되게 된다.

이렇게 한반도 청동기의 사용은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한반도 초기 청동기 및 비파형동검문화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동검문화의 발달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맥을 같이 한다. 세이마-투르비노에서 시작되어 카라숙 청동기로 이어지는 기원전 13세기 전후한 청동기 제작기술의 파급이라는 동아시아적 맥락이 한반도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전체 편년에서 무문토기시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청동기의 후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청동기의 이른 도입에도 불구하고 청동기는 석기 전통을 대체하지 않고 석기 전통에 편입하는 식으로 발달했다. 이러한 석기 전통의 지속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를 관통하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청동기의 도입 이후 세형동검이 일반화되는 1천년여의 시간 동안 청동기는 변방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초기의 청동기가 무덤 대신에 주거지에서 일반 석기들과 함께 발견되는 현상, 그리고 비파형동검이 석검을 모방하는 현상(김해 진동리 석관묘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청동기 사용의 특징이다. 세형동검 단계에 들어서 급격히 동검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철기가 도입되어서 석기의 상징성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감사]

본 발표의 준비를 위해서 보고서 준비 중이거나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하 열거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단, 약보고서와 실견을 통한 논지 전개에 따른 부족함 및 논문의 결점은 전적으로 발표자에 있습니다.

김상태(국립춘천박물관), 심재연(한림대),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이형원(한신대), 최종모(강원문화재연구원),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소), 정훈진(한국문화재단) (경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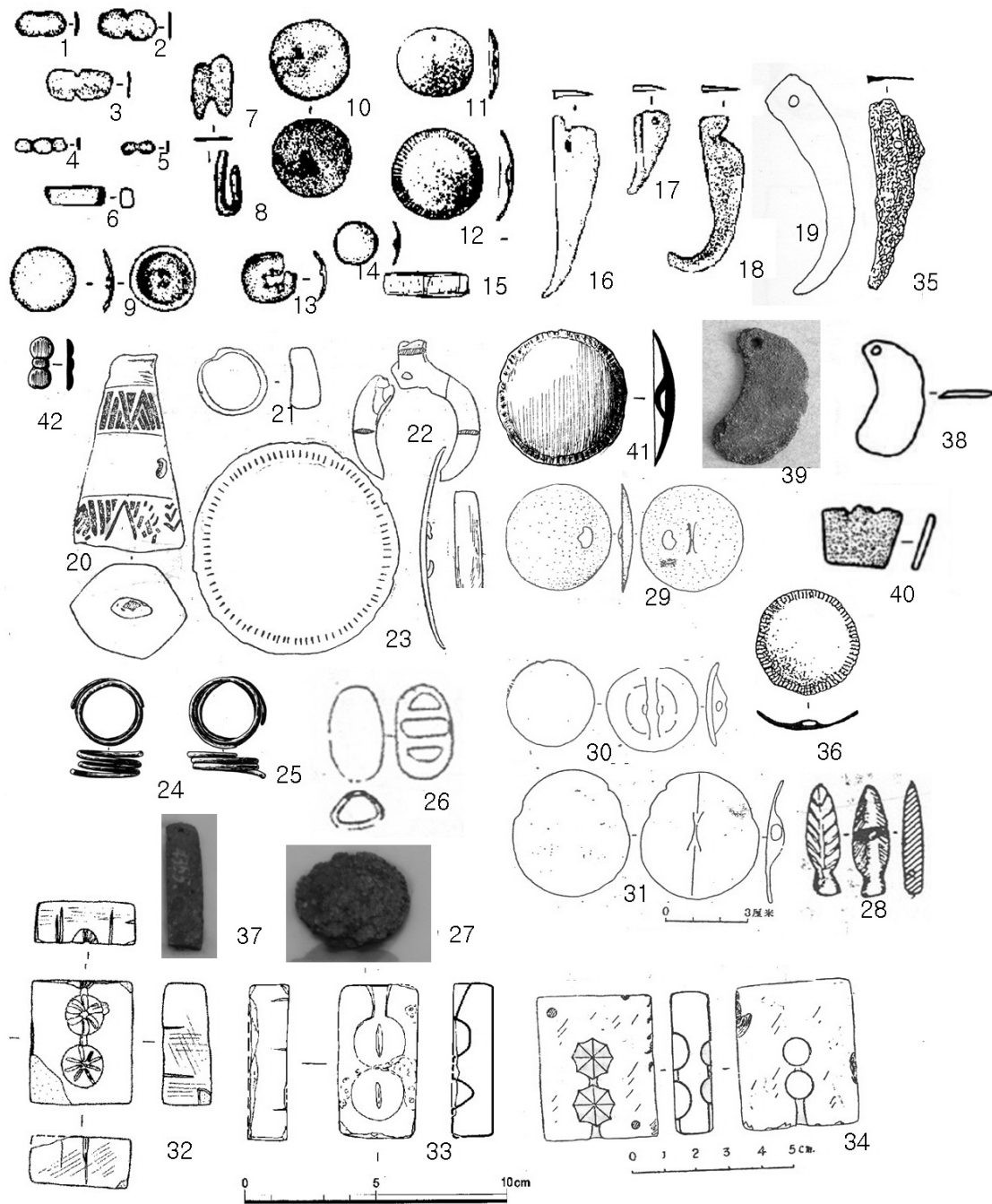


그림 23. 연해주-연변지역 장신구 계통의 청동기와 관련유물

(1~18: 시니가이 ; 19: 진주 옥방(선문대발굴) ; 20~23: 나진 초도 ; 24-25: 和龍興城 토광묘; 26 : 汪清 百草溝 27, 37: 延吉 金谷 석곽묘 ; 28: 琿春 迎花 南山 ; 29: 琿春 河西 30-31: 汪清 金城 ; 32-33 : 하바로프스크박물관 소장 ; 34: 함북 삼봉, 35,36 - 아누치노-14, 38,39 - 연해주 베테르두이, 40 - 연해주 수보로보, 41,42 - 연해주 드보란카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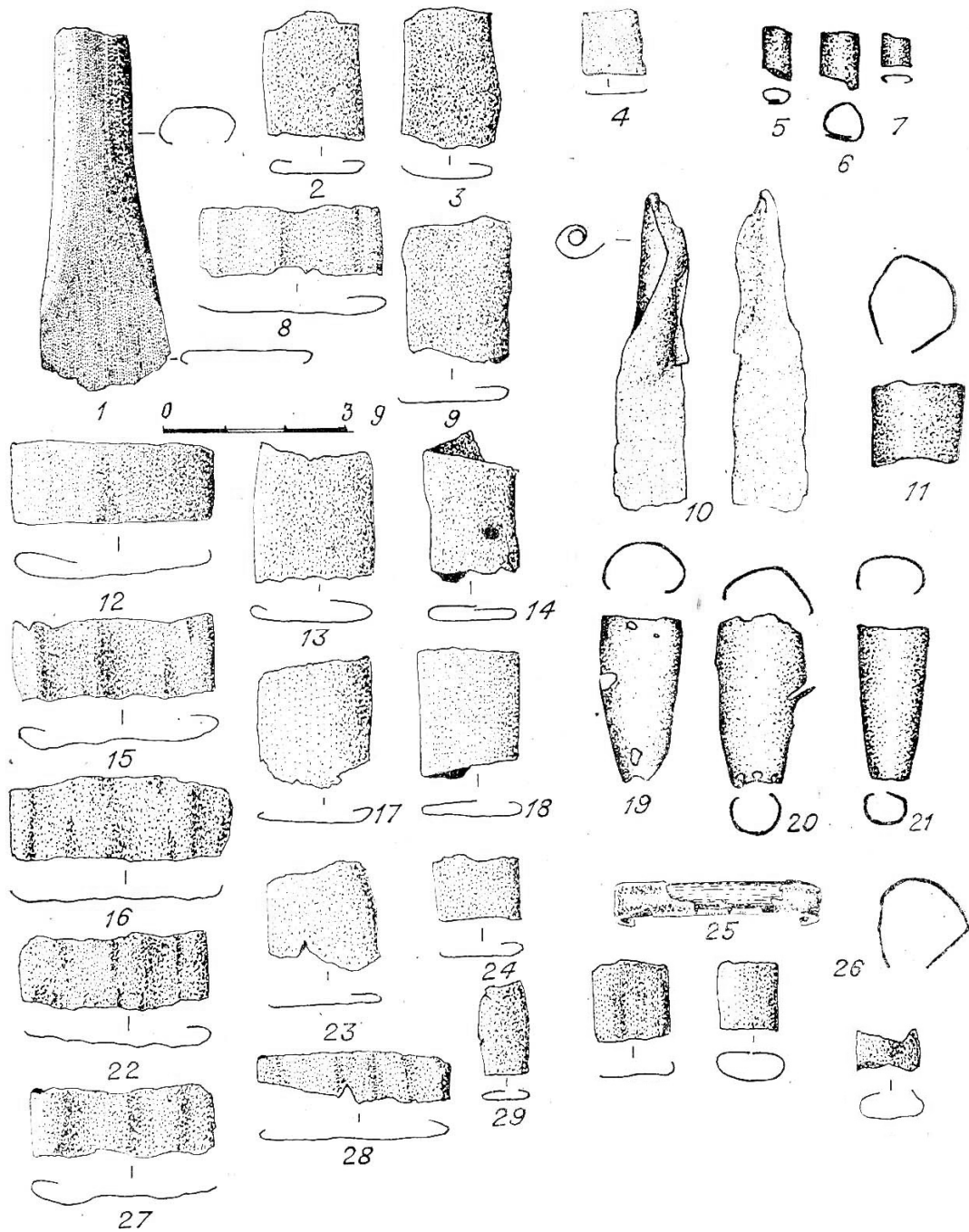


그림 24. 서부 시베리아 크로토보문화(기원전 20~15세기) 소프카-2유적의 단조 청동기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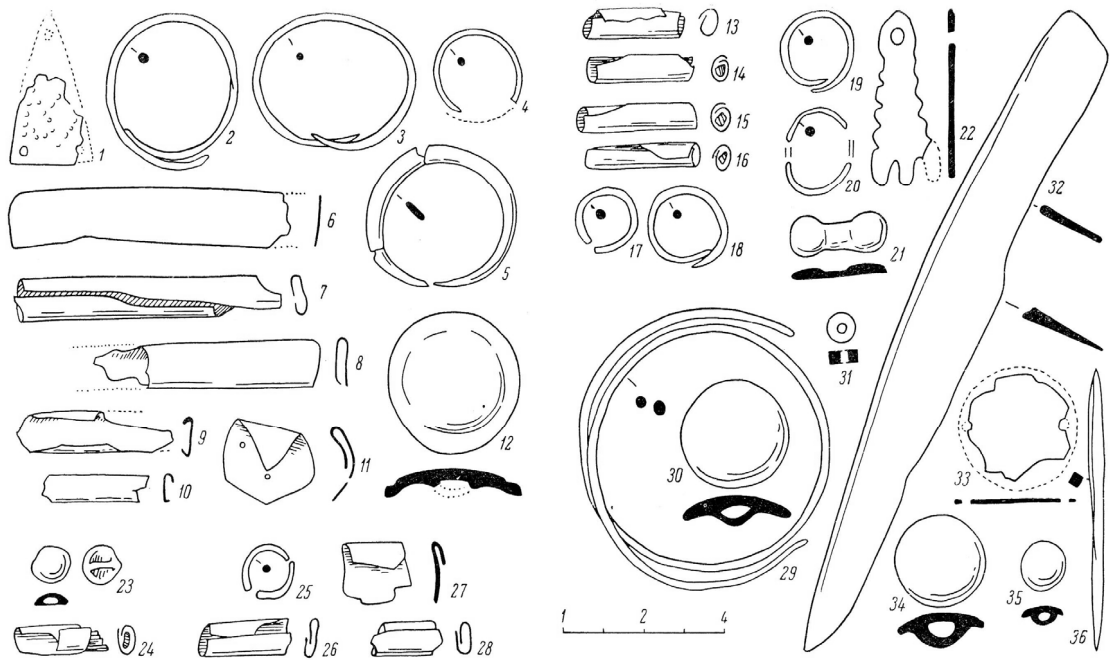


그림 25. 미누신스크 카라숙 청동기 유적 울루스 오라크 출토 청동제 장신구 및 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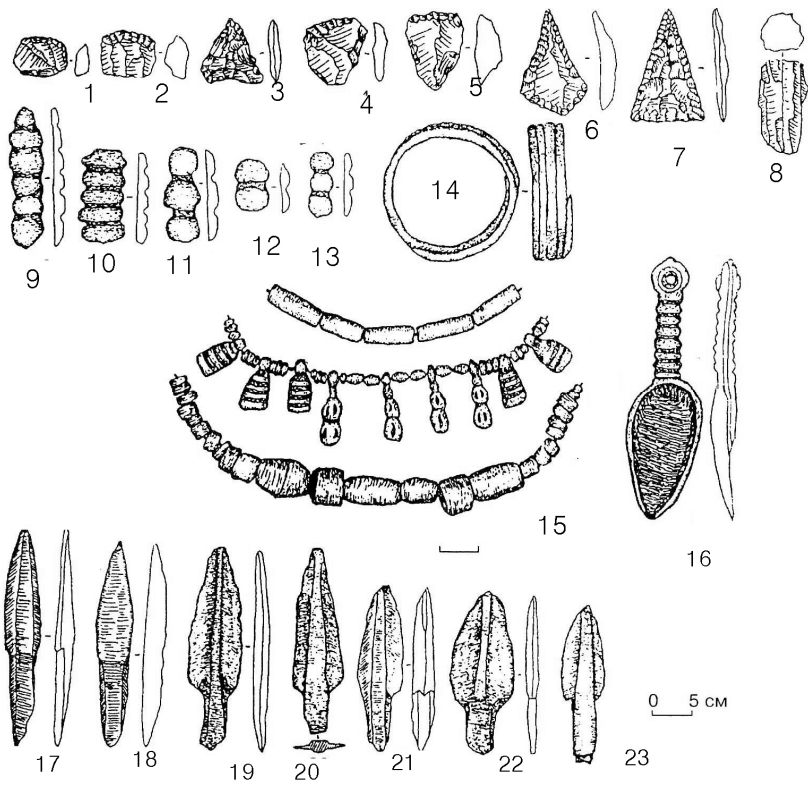


그림 26. 자바이칼 드보르조이문화 석기, 청동기, 골각기

「東北アジアにおける韓国青銅器時代文化」

宮井 善朗
福岡市文化財部

目 次

1. 緒言
2. 日本列島青銅器文化の概要(武器を中心として)
3. 日本列島青銅器文化の特色（韓半島との比較から）
 - (1) 國産開始期の問題
 - (2) 選擇的受容
 - (3) 研磨に見る日韓の特色
 - (4) 日韓儀器化の特色
4. 新出資料からみた課題など
5. 小結

1. 緒 言

まず、ここにお集まりの皆さんに対し、誌上参加となった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

筆者に与えられた発表テーマは「韓国青銅遺物と日本列島」という大きなテーマである。このテーマを網羅的に説明するだけの研究蓄積も持っておらず、手に余る課題であるため、韓半島と日本列島において共通性の高い器種である青銅武器を中心に、筆者がこれまでまとめてきたこと、および現在考えていることの一端を披歴し、諸賢のご批判、助言をお願いしたい。

2. 日本列島青銅器文化の概要（武器を中心として）

日本列島の青銅器文化は、韓半島からの流入によって開始される。その時期は、青銅器が副葬されるもっとも古い甕棺である金海式の時期から、弥生時代前期末とされてきた。しかし甕棺の型式学的研究の進展により、青銅器を副葬する甕棺は金海式の新段階で、ほぼ日常土器の中期初頭に並行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また、この時期に流入した青銅器は韓国の青銅器メニューのすべてが来たわけではなく、選択的に受容している。すなわち、流入期には銅剣、銅戈、銅矛の武器類がほとんどで、これにわずかの銅鉞などの工具、多鈕細文鏡が加わる。武器は銅剣が最も多く、銅矛、銅戈は比較的少ない。また、銅矛、銅戈については、同時期の韓半島で主流をなすタイプのものは少ない。また半島で特徴的な有文の祭祀具も受容されていない。

また、列島産銅剣の出現も、流入時期とほぼ同時の極めて早い時期に行われた可能性が出てきた。これについては後章で再説する。

これを流入期とすると、次に続くのは初期国産期とすることができる。弥生時代中期前半～中期後半にあたる。この時期には半島からの流入に停滞が生じている。国産化の進捗には不足分の充当という意味合い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初期国産は流入の中心であった玄界灘沿岸地方ではなく、その周辺部分（佐賀平野など）で始まるとされてきたが、近年玄界灘沿岸部でも初期国産に関する資料が確認され、今後の進展が期待される。程なく北部九州全体で散発的に国産が始まり、この時期には韓半島の規制から脱した、列島の特色が強く出た青銅器もつくられ始める。またこの時期の終わりころには青銅器の埋納が開始される。

盛期国産期（弥生時代中期末～後期）は、大形化、祭器化した銅矛、銅戈が盛んに生産される時期である。銅剣は北部九州では中枢部の首長墓級に副葬される国産銅剣を除いて生産されなくなる。つまり銅剣は九州では祭器としては一般化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が、中・四国地方では祭器化した銅剣の生産が始まり、北四国の平形銅剣、山陰の中細C式銅剣など特徴的な銅剣形祭器が分布する(図1)。

銅矛、銅戈はこの時期を代表する青銅器である。極めて大形化し、鋒部が先膨らみになる。刃部は面取りされ、利器としては全く機能しない。また奴国の中心部（福岡県春日市周辺）での生産に一元化される。この時期はまた2小期に分けられる。前半期（中期末～後期前半）は銅矛、銅戈ともに生産される。中広銅矛は刃部はつけられないものの、丁寧な研磨を施され、綾杉状の研ぎ分けを施すものもある。これに対し後半期（後期中ごろ以降）は銅戈はつくられなくなり、広形銅矛は必要最低限の研磨のみで粗製化する。青銅器生産の衰退期である。

3. 日本列島産青銅器文化の特色（韓半島との比較から）

（1）国産開始期の問題

先述のように従来半島製青銅器の流入時期は金海式甕棺期（弥生時代前期末）とされてきた。しかし、甕棺の型式学的研究の進捗に伴い、壺形棺から甕形棺への移行期である金海式は少なくとも古新2段階に分かれ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そうした中で青銅器は壺的要素を払拭した新段階の金海式に伴うようで、その時期も中期初頭に下るものとされ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の中、青銅器流入の初現期と型式的に異ならない甕棺から、半島製としては違和感のある青銅器が確認されている。福岡市の岸田遺跡出土例等がそれである(図2)。半島製の流入後極めて早い時期に国産が開始されてい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2）選択的受容

日本列島には韓半島の青銅器のメニューすべてが流入したわけではない。そこには列島において選択が行われている。そこには器種的选择と形態的选择がある。日本に流入した半島系青銅器には銅剣、銅矛、銅戈、銅鉞、多鈕細文鏡、小銅鐸などがあげられ、銅鑿、銅斧などの工具の多く、複雑な文様を持つ有文青銅器などは流入していない(器種的选择)。受容した青銅器の中では、剣、矛、戈の武器類が圧倒的に主流であり、その他の工具、銅鐸は少なく、また若干流入が遅れるようである。武器の中では剣が主流を占め、矛がこれに次ぎ、戈は少ない。剣についてはⅠ式が主流でⅡ式は少ない。この状況は半島の細形銅剣盛行期の古段階に類似する。矛は、半島にふつうにみられる、耳がなく目釘穴を持つものは列島にはきわめて少ない(図3)。また戈についてもながらく国産か半島製か議論になっている半島に類例がない、脆弱なものが入っている(形態的选择)(図4)。以上のように列島では流入の初期段階から青銅器を選択的に受容している。

（3）研磨に見る日韓の特色

ここでは銅剣を中心に、研磨方法自体についてみていくとともに、日韓での違いを明らかにしてみたい。

銅剣は鑄造ののち、武器として使用するために研磨が行われるわけだが、鑄造元方使用者に出荷された際の状態を当初段階とすると、それは釘岩里例(図5)のようなも

のと考えられる。この例は刃部が研ぎだされていない。これを武器として使用するため最小限の研磨を施したものが吉武高木3号木棺墓や117号甕棺墓(図6)のようなものになる。さらに使用、保管の過程で欠損や刃こぼれが生じた際には、頻繁なとぎ直しを行い、常に使用可能な状態が保た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Ⅰ式銅剣の場合こうした研磨を繰り返すと、削り方以上の上半部のみが狭小化することになる。理由は不明であるが、半島産銅剣の場合これが忌避されるという規範が存在したと考えられ、下半部とのバランスを取るため下半部に研ぎが及ぶ。その結果、鎬の甘いⅡA式を経て定型的なⅡB式が成立する(図7)。なお、前稿では定型的なⅡB式銅剣を铸造した鑄型を、伝尚州や金海会峴里遺跡例のような削り方がない未研磨銅剣の存在や、将泉里の削り方がない鑄型の例から、鑄型には削り方がなく、研磨段階で削り方を研ぎ出すと考えた(図8)。しかし、2013年に行った研磨実験の結果、最初に削り方の位置と長さを決める必要があるなど、不可能ではないにせよ極めて困難であると考えに至った。この件は今後も検討を続けたい。

半島では下半部の肥大化が避けられたと考えられるが、列島では早い段階から異なる規制のもとに研磨が行われ(図9)、その結果下半部が強調される中細形銅剣へと変化する(図10)。このような日韓の銅剣の形態に関する規制は流入段階からすでに差異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4) 日韓儀器化の特色

日本列島では、先述したように弥生時代中期後半から、青銅武器の副葬がほぼ終焉を迎え、中国鏡が主体となる。武器は長大化、非実用化が進み、中細、中広の銅矛、銅戈が作成され、埋納祭器となり、やがて広形銅矛に収斂されていく。銅剣は、北部九州では王墓やそれに準ずる墓の一部に中細銅剣、異形銅剣が副葬されるが(須玖岡本、三雲南小路など)、むしろ中・四国地方で異形化、長大化が進み、山陰の中細C銅剣、北四国の平形銅剣など地域的な特色を持つ銅剣形祭器が製作され、埋納されていく。このように列島では非実用化、長大化、副葬→埋納への変化に特色がある。

これに対し半島では非実用化の傾向は確認できるが、列島とは方向性を異にする。非実用化は遼寧式銅剣段階から起こ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が、青銅器文化終末期にかけて概ね矮小化、脆弱化の方向へ向かう。ただし南部では列島の中広、広形銅矛の影響を受けたとも考えられるやや大型の異形銅矛も出土する。

これらの非実用化した青銅武器類も基本的には墓に副葬され、扱いに差異がみられないが、半島でも埋納される青銅器の例が増加している。これも遼寧式銅剣段階から見られ、北部から南部済州島にまで分布する。ただし埋納された青銅器も、副葬され

た青銅器との差異は見いだせず、列島のような形態変化は起こっていない。このように青銅武器の非実用化の過程においても半島と列島では差異があるが、半島の埋納は今後増加の可能性もあり、注目していきたい。

4. 新出資料から見た課題など

近年、列島青銅器文化を語る上で重要な資料が輩出している。例を挙げると、福岡市岸田遺跡、顕孝寺遺跡、宗像市田熊石畑遺跡、春日市須玖タカウタ遺跡などがある。それぞれ提起する問題は大きく、調査研究を俟たねばならないが、現段階での感想に近い所見を述べてみたい。

列島での青銅器生産が早い時期に始まると考えられるのが、福岡市早良区岸田遺跡の青銅器群である。これらは玄海灘沿岸域で生産されたと考えられるが、従来周辺の佐賀平野等に比べて一段階生産が遅れるとされてきた点に再検討が必要となっている。また、岸田遺跡の時期までさかのぼるかどうかはまだ検討を要するが、奴国中枢部である春日周辺で中期前半と考えられる資料が確認されている。春日市タカウタ遺跡であるが、ここの鑄型の特色は土製であることである。列島における土製鑄型は、従来武器に関しては確認できておらず、付属品である把頭飾などで可能性が指摘されてきた。ただ、近畿地方を中心に分布する銅鐸生産では、石型から土製鑄型へ変化す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タカウタ例では銅戈、多鈕細文鏡鑄型が発見されているが、多鈕鏡についてはいまだ国産例は確認されておらず、また、土製鑄型で製作されたと確認できる銅戈も不明であり、本格化する以前の試行的な生産と考える余地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列島における土製鑄型の系譜については、今後の調査の進展と新資料の増加に期待したい。

青銅器文化の東方への伝播についても資料が増加してきた。福岡市東区顕孝寺遺跡では中期前半の甕棺墓から銅剣、銅矛が出土している。こうした遺跡を介すると田熊石畑遺跡例も理解しやす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田熊石畑は土器を伴わないが、岸田や顕孝寺遺跡に類似した列島産と思われる銅剣が出土しており、中期前半頃に位置付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

5. 小 結

以上大雑把ではあるが、現在考えているところを述べてきた。各資料を詳細に渉獵するに至っておらず、「思いて学ばざれば即ち殆し(思而不学即殆)」(論後, 為政)状態に陥っている危険性は十分認識している。本来であれば有益な意見交換を行いたかったが、それは近い将来の課題としておきたい。

日本出土銅剣の変遷

図1)日本列島での銅剣の変遷図
上段は細形，中段は中細A、・B、
下段は左から中広，中細C，
平形Ⅰ，Ⅱ，西部瀬戸内系異形，
東部瀬戸内系異形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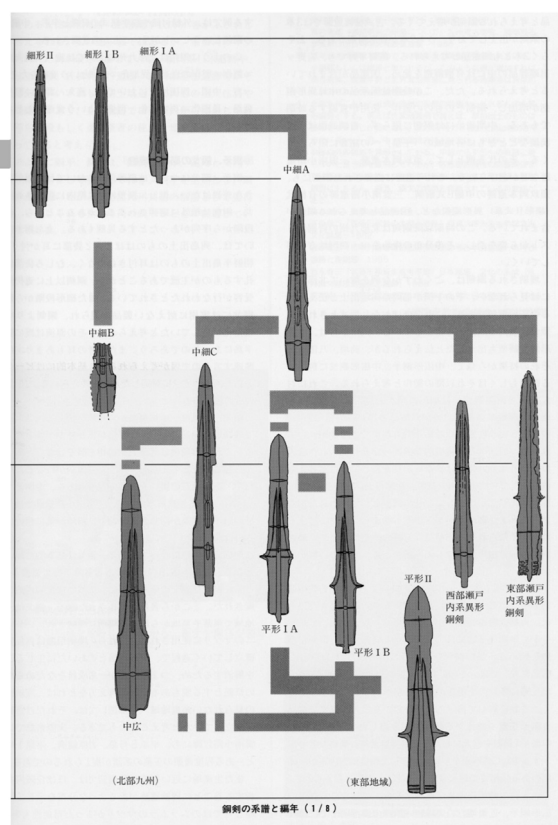


図2)岸田遺跡出土青銅器 銅剣の一部は国産か？

日本列島出土細形銅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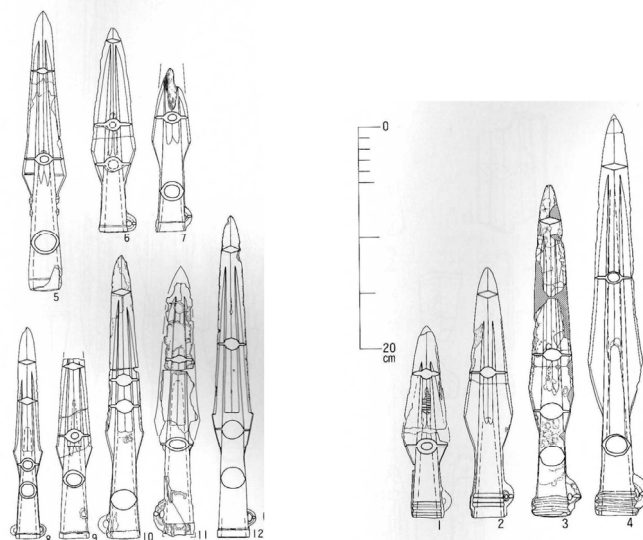


図3) 列島出土の細形銅矛は耳を持つタイプである。

日本列島出土細形銅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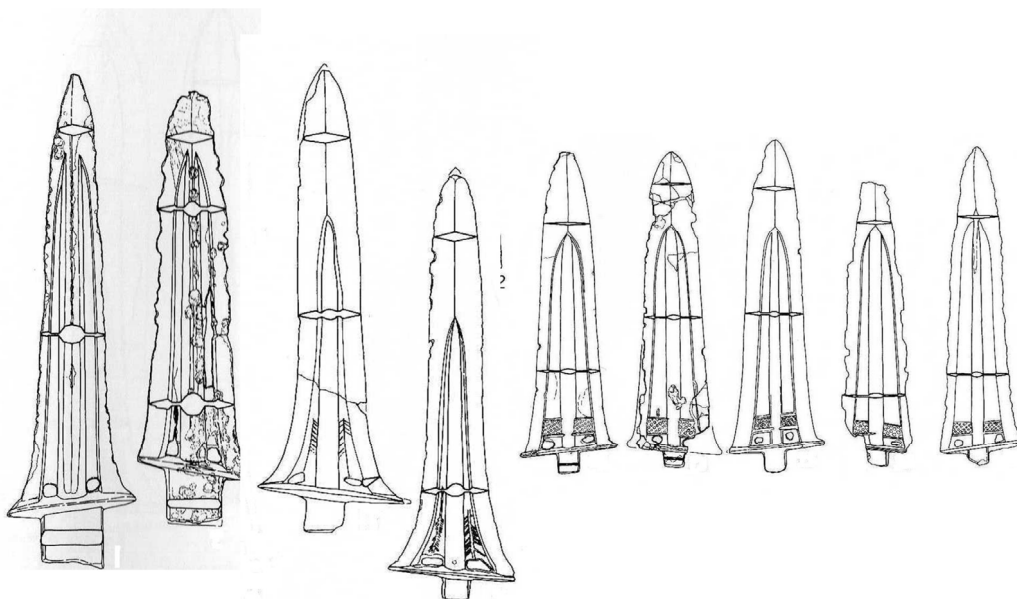


図4) 右半部のようなタイプは列島産，半島産の両説がある。

当初段階の銅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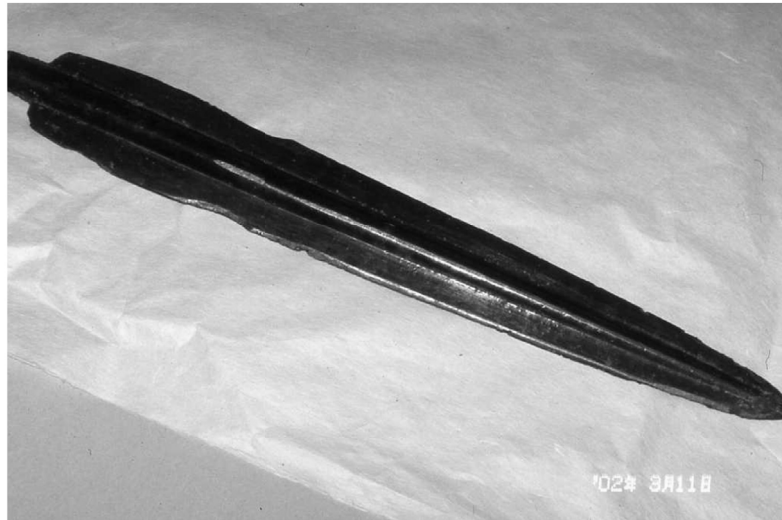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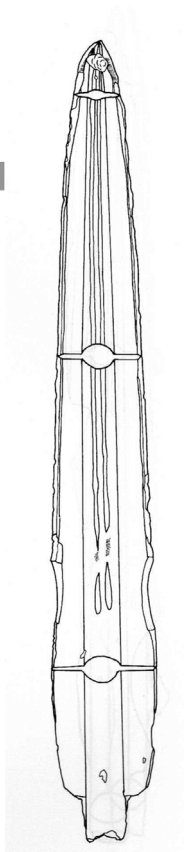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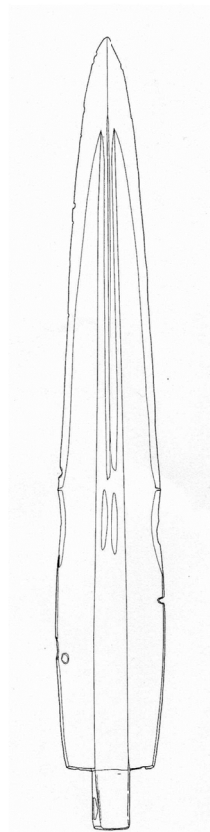
図5) 江原道釘岩里遺跡 製作地から使用者の元へ届けられた当初の姿はこのようなもの

(当初段階)



初期研磨段階

吉武高木遺跡117号甕棺墓



初期研磨段階の銅剣

図6) 当初段階の銅剣に使用可能な最小限の研磨を施したもの

Ⅱ式銅劍の成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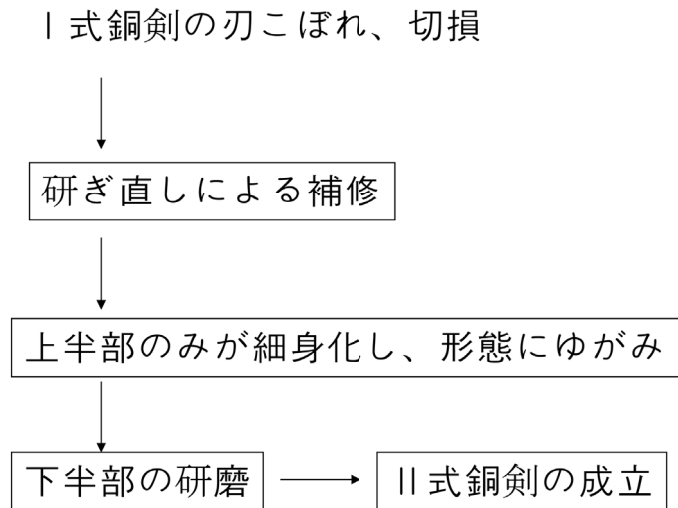


図 7)

朝鮮半島銅劍鑄型の変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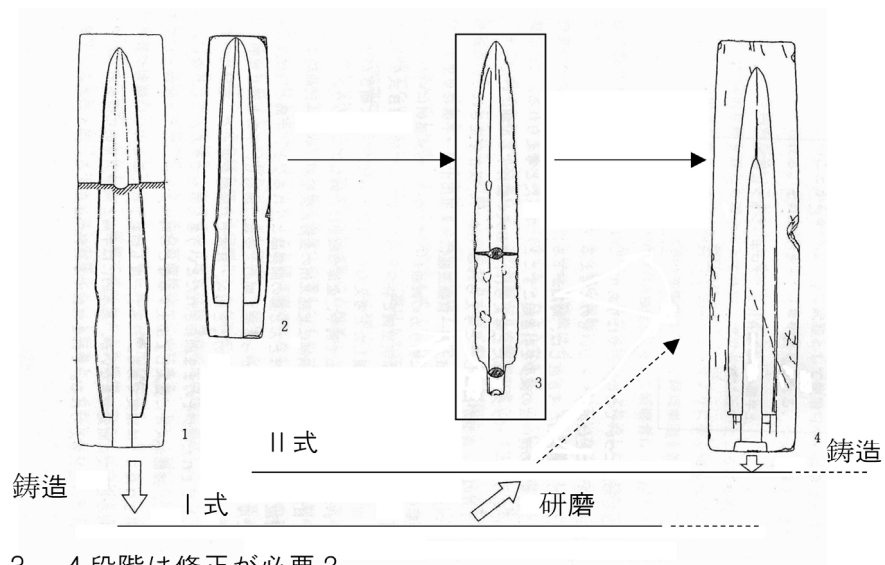


図 8)

日本における研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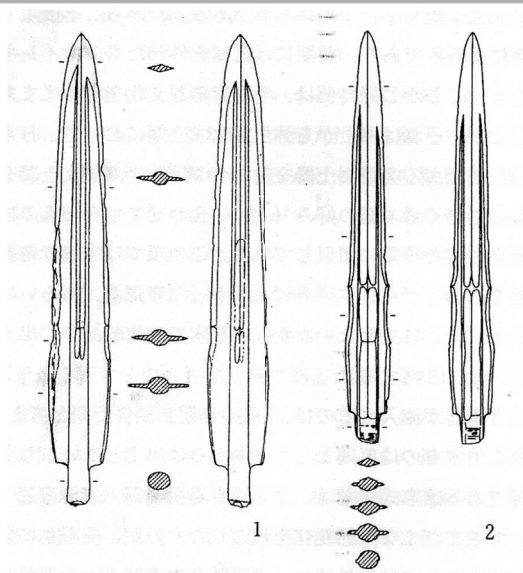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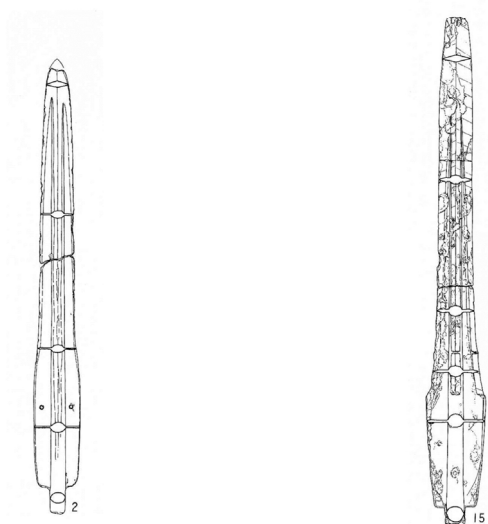


図9) 1は左面の節帯が研ぎ直しの際に消失し、段状になる。
IIは右面の下節帯がなく、刃部節帯もない

日本における研磨（異形化）



広島県福田木の宗山遺跡

福岡県下月隈C遺跡

図10) 下半部の肥大化の規制が外れる。下月隈例は銅矛の属性と混交している。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청동기시대문화」

宮井 善朗

目 次

1. 제언
2. 일본열도 청동기문화의 개요(무기를 중심으로)
3. 일본열도 청동기문화의 특색(한반도와의 비교에서)
 - (1) 국산개시기의 문제
 - (2) 선택적 수용
 - (3) 마연으로 본 한일의 특색
 - (4) 한일의기화의 특색
4. 신출 자료에서 본 과제 등
5. 소결

1. 제언

먼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로만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필자에게 주어진 발표 주제는 '한국 청동 유물과 일본 열도'라는 큰 주제이다. 이 주제를 망라하여 설명할 만한 연구축적도 가지지 못하였고, 버거운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공통성이 높은 기종인 청동 무기를 중심으로 필자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일단을 피력하고 제현의 비판과 조언을 부탁하고 싶다.

2. 일본열도 청동기문화의 개요(무기를 중심으로)

일본열도의 청동기문화는 한반도에서부터 유입되어 개시된다. 그 시기는 청동기가 부장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옹관 형식인 긴카이(金海)식 시기부터로 야요이 시대 전기말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옹관 형식학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청동기를 부장하는 옹관은 긴카이식의 신 단계로, 거의 일상 토기의 중기 초와 병행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유입된 청동기는 한국 청동기 종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기종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流入期에는 동검, 동과, 동모의 무기류가 대부분으로, 여기에 적은 수의 동사 등의 공구, 다뉴세문경이 더해진다. 무기는 동검이 가장 많고, 동모, 동과는 비교적 적다. 또한 동모, 동과에 대해서는 동시기 한반도에서 주류를 이루는 형식의 것은 적다. 또한 한반도에서 특징적인 有文의 제사용구도 수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列島産銅劍의 출현도 유입시기와 거의 동시, 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이것을 유입기라고 하면 다음으로 연속되는 시기는 初期國産期라고 할 수 있다. 야요이 시대 중기전반~중반후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유입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화의 진보에는 (정체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초기 국산화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유입의 중심이었던 현해탄 연안 지방이 아니라 그 주변 부분(사가 평야 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 현해탄 연안 부에서도 초기 국산화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어 향후의 연구의 진전이 기대된다. 곧바로 북부 규슈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국산화가 시작되어, 이 시기에는 한반도의 규제에서 탈피하여 일본열도의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청동기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의 끝 무렵에는 청동기의 매납이 시작된다.

盛期國産期(야요이시대 중기말~후기)는 대형화, 제기화된 동모, 동과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시기이다. 동검은 북부 규슈에서는 중추부의 수장묘 급에 부장된 국산 동검을 제외하고 생산되지 않는다. 즉 동검은 규슈에서는 제기로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중 · 시코쿠 지방에서는 제기화된 동검의 생산이 시작되어, 북 시코쿠(四國)의 평형동검, 산인(山陰)의 중세C식 동검 등 특징적인 銅劍形祭器가 분포한다(도 1).

동모, 동과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청동기이다. 매우 대형화되고 鋒部가 선단부터 부풀어 넓어진다. 인부는 면을 이루고 있어, 利器로서는 전혀 기능이 없다. 또한 나(奴)국의 중심 (후쿠오카현 가스가(春日)시 주변)에서 생산이 일원화된다. 이 시기는 또한 두 소기(小期)로 나뉜다. 전반기(중기말 ~ 후기 전반)은 동모, 동과 모

두 생산된다. 중광동모는 인부는 거대하지만 공을 들어 마연을 하여, 綾杉狀의 구분 마연을 한 것도 있다. 반면 후반기(후기 중경 이후)는 동과는 만들지 않게 되며, 광형동모는 필요 최소한의 마연만을 하여 질이 떨어지게 된다. 청동기 생산 쇠퇴기이다.

3. 일본열도 청동기문화의 특색(한반도와 비교에서)

(1) 국산개시기의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종래 한반도계 청동기의 유입 시기는 긴카이식 옹관기(야요이 시대 전기 말)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옹관의 형식학적 연구의 진보와 동반하여, 壺形棺에서 甕形棺의 이행기인 긴카이식은 적어도 古·新의 2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동기는 壺와 같은 요소를 잃어버린 신단계의 긴카이식에 동반하고, 그 시기도 중기 초두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동기 유입의 초현기와 형식적 차이가 없는 옹관에서 한반도에 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위화감이 있는 청동기가 확인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기시다(岸田)유적 출토의 사례 등이 그 예이다(도 2). 한반도산의 유입 후, 극히 이른 시기에 국산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선택적 수용

일본열도에는 한반도에서 모든 종류의 청동기가 유입 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본열도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器種的選擇과 形態的選擇이 있다. 일본에 유입된 한반도계 청동기에는 동검, 동모, 동과, 동사, 다뉴세문경, 소동탁 등이 있고, 동착, 동부와 같은 공구의 대부분, 복잡한 문양을 가진 유문청동기 등은 유입되지 않았다(기종적선택). 수용된 청동기 중에는 검, 창, 과의 무기류가 압도적으로 주류이며, 그 외의 공구, 동탁은 양이 많지 않고, 또한 (한반도와 비교하여) 유입되는 시기가 약간 지연된다. 무기 중에서는 검이 주류를 차지하고 모가 다음이며, 과는 많지 않다. 검에 대해서는 I 식이 주류이고, II 식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반도의 세형동검 성행기의 고단계와 유사하다. 모는 한반도에서 흔히 보인다. 귀가 없이 目釘穴(신부에 병부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을 가진 것은 일본열도에서는 극히 적다(도 3). 또한 과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일본열도 제품인지, 한반도

제품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유례가 없는 취약한 것이 들어 있다(형태적선택)(도 4). 이상과 같이 일본열도에서는 유입의 초기 단계부터 청동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 마연으로 본 한일의 특색

여기에서는 동검을 중심으로 연마 방법 자체에 대해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한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싶다.

동검은 주조 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마연이 행해지는 것이지만, 鑄造元方使用者-주조한 당사자가 (청동기를 주조하여) 출하한 때의 상태를 당초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암리 출토품(도 5)과 같은 형태로 생각된다. 이 예는 인부가 마연되지 않았다. 이를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마연을 실시한 것이 요시타케타카키(吉武高木) 3호 목관묘와 117호 옹관묘 출토품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사용 및 보관 과정에서 결손이나 칼날이 무더진 때에는 빈번하게 다시 마연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I 식 동검의 경우 이러한 마연을 반복함으로써 결입부 이상의 상반부만 협소화 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산 동검의 경우 이것을 기피하는 규범이 존재했다고 생각되며, 하반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반부를 마연한다. 그 결과, 호가 무딘 II A식을 거쳐 정형적인 II B식이 성립한다(도 7). 또한, 이전 원고에서는 정형적인 II B식 동검을 주조한 주형을 전상주와 김해 회현리 유적의 예처럼 결입부가 없는 미마연동검의 존재와 장천리 출토품의 결입부가 없는 주형의 예에서, 주형에는 결입부가 없고, 마연 단계에서 결입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도 8). 그러나 2013년 실시한 마연 실험의 결과, 최초 결입부의 위치와 길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건은 앞으로도 검토를 계속하고 싶다.

한반도에서는 하반부의 비대화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열도에서는 일찍부터 다른 규제 하에 마연이 이루어지고(도 9), 그 결과 하반부가 강조되는 가운데 細形銅劍로 변화한다(도 10). 이러한 한일 동검의 형태에 대한 규제는 유입 단계부터 이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4) 한일의기화의 특색

일본열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부터 청동 무기 부

장이 거의 종언을 맞이하고 중국 거울이 주체가 된다. 무기는 장대화, 비실용화가 진행되어, 중세, 중광의 동모, 동과가 만들어지고 매납제기가 되어, 곧 광형동모로 수렴되어 간다. 동검은 북부 규슈에서는 왕묘와 그에 준하는 무덤의 일부에 중세동검, 이형동검이 부장되지만(스구 오카모토(須玖岡本), 미쿠모 미나미쇼지(三雲南小路) 등) 오히려 주 · 시코쿠 지방에서 이형화, 장대화가 진행되어, 산인의 중세동검, 북 시코쿠의 평형동검 등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동검형제기가 제작되어 매납되어 간다. 이렇게 일본열도에서는 비실용화, 장대화, 부장→매납으로 변화의 특색이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비실용화의 경향은 확인되지만, 일본열도와는 방향을 달리한다. 비 실용화는 요령식동검 단계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동기 문화 말기에 걸쳐 대체로 왜소화, 취약화의 방향으로 향한다. 다만 한반도 남부에서는 일본열도의 중광, 광형동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약간 대형의 이형동모도 출토된다.

이러한 비실용화된 청동무기류도 기본적으로 무덤에 부장되어 취급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고 한반도에서도 매납되는 청동기의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요령식동검 단계부터 보이며, 북부에서 남부의 제주도까지 분포한다. 다만 매납된 청동기와 부장된 청동기 간의 차이는 없으며, 일본열도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청동무기의 비실용화 과정에서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반도에서 매납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하고 싶다.

4. 신출 자료에서 본 과제 등

최근 일본열도의 청동기 문화를 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시 기시다(岸田), 겐코지(顯孝寺), 무나카타(宗像)시 다쿠마이시하다케(田熊石畑), 가스가(春日)시 스구(須玖) 타카우다 유적 등이 있다. 각각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고, 조사 연구에 기대를 걸지 않으면 안되지만, 현 단계에서의 감상에 가까운 소견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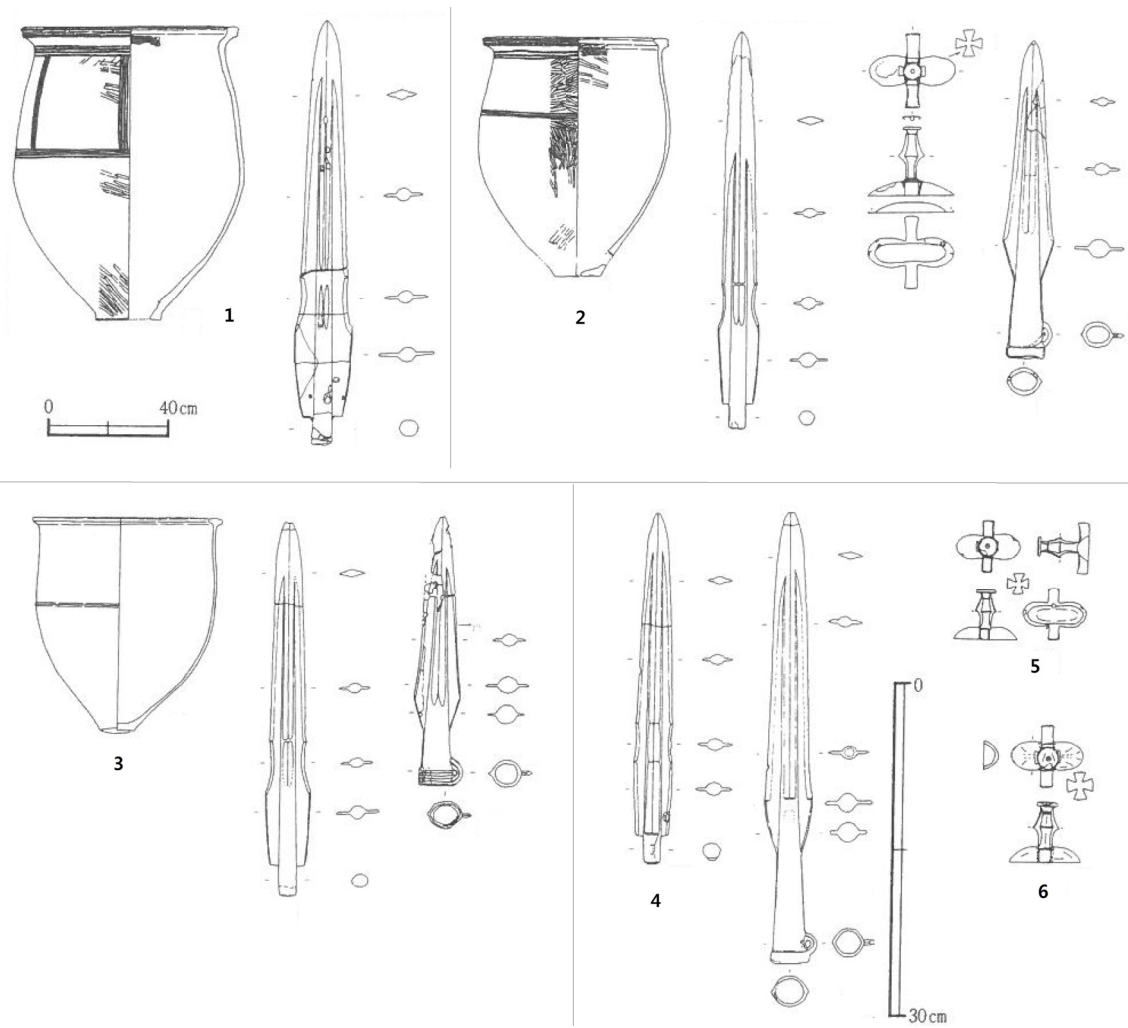
일본열도의 청동기 생산이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후쿠오카시 사와라(早良)구 기시다 유적의 청동기 군이다. 이들은 현해탄 연안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래 주변의 사가 평야 등에 비해 한 단계 생산이 늦을 것이라는 점에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시다 유적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검토를 요하지만, 나국 중추부인 가스가(春日) 주변

에서 중기 전반으로 생각되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가스가시 다카우타 유적에서지만, 여기 주형의 특색은 토제인 것이다. 일본열도의 토제주형은 종래 무기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부속품인 把頭飾 등에서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단, 긴키(近畿) 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동탁 생산에서는, 석형에서 토제 주형으로 변화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다카우타 예에서는 동과, 다뉴세문경 주형이 발견되고 있지만, 다뉴경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 예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토제 주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동과도 불명이고, 본격화 이전의 시행적인 생산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열도의 토제 주형의 계보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의 진전과 새로운 자료의 증가에 기대하고 싶다.

청동기 문화의 동방 전파에 대해서도 자료가 증가해왔다. 후쿠오카시 히가시(東)구 겐코지 유적에서 중기 전반의 옹관 무덤에서 동검, 동모가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을 통하면 다쿠마이시하다케 유적 예도 이해하기 쉽게 되진 않을까? 다쿠마이시하다케는 토기를 동반하지 않지만, 기시다와 겐코지 유적과 유사한 일본열도산으로 생각되는 동검이 출토되고 있어 중기 전반 무렵으로 자리 매김되지 않을까?

5. 소결

이상 대충이지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술하였다. 각 자료를 상세히 섭렵에 이르지 않고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思而不學即殆)」(論後, 為政)는 상태에 빠져있는 위험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본래라면 유익한 의견교환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 삼고 싶다.



1. 岸田K0471 2. 岸田K0437 3. 岸田K4916 4. 岸田K0482 5. 吉野ヶ里 6. 柚比本村
도 2. 기시다 유적 출토품과 비교자료

한국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역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目 次

1. 머리말
2. 무문토기문화 분포권의 濃淡
3. 조·전기 무문토기문화와 중국동북지역
4. 맺음말

1. 머리말

이번 한국청동기학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방」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의뢰를 받고 든 생각은 이러하다. 이제까지 필자는 중국동북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 토기문화를 나름 재검토하고 한반도 무문토기와의 관련성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이번 발표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어떤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킬 것인가라는 숙제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필자에게 던지던 질문 “어디까지가 무문토기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생각했다.

이 질문은 언뜻 중국동북지역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한반도 안의 토기만을 무문토기라고 생각했다면 제기되지도 않을 질문이다. 질문하신 분들은 청동기시대 가운데 연구시기와 연구대상이 약간씩 달랐고, 필자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진 데에는 선생님들 모두 무문토기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분야에서 나름대로 가늠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질문을

던진 목적과 의도가 달랐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무문토기와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들의 직간접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무문토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여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본 발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무문토기의 고고학적 자료의 계통 및 기원문제, 병행관계,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의 지역관계의 동인이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朴淳發 2003; 裴眞晟 2007·2009·2012; 安在皓 2010; 김재운 2010; 吳江原 2013; 곽동구 2015; 하용인 2017 등)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무문토기 특히 조·전기 무문토기를 대상으로 무문토기문화권 설정 및 변화, 그에 따른 중국동북지역과의 지역관계 변동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무문토기문화 분포권의 濃淡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선사시대에 국한하여 볼 때, 자연지리 환경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생업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나아가 먹거리의 가공 및 조리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토기이다. 지역 문화의 지역이라는 한정어를 감안하면, 당연히 지역에 뿌리내린 주민들이 제작하고 사용한 토기의 유사성은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토기가 생업권만을 반영한다면 그리 복잡하지 않을지 모르나, 인간이 가진 노마드적 본성,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혼인관계, 교류, 거주지 확대, 비일상적일 수 있는 제의, 이동 및 이주, 교역 등으로 인해 기종구성 및 토기의 제 속성은 늘 변화 속에 있다. 특히나 집단의 삶이 제한된 한 구역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토기문화는 주변지역과 연동하며 변화한다. 더구나 선사시대의 물질자료는 기능분화가 덜하고, 물질적 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제한적이라는 점마저 감안하자면, 토기 및 토기문화에 상당한 정보와 관계성이 반영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토기의 기종구성, 형태, 문양, 그밖의 무문토기와 공반하는 여타 고고자료를 더하면, 어느 기준에 따를 것인가에 따라 무문토기문화의 분포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정된 분포권이 선사시대 동안 늘 동일한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준이 많아질수록 분포권은 좁아지고, 기준이 적어질수록 분포권은 넓어질 터인데, 전자의 경우를 따르자면, 한반도 무문토기문화권은

한반도 남부 또는 북부 일부까지 유사성이 많은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좁은 시각을 제공하고,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무문토기문화를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고, 무문토기문화권을 고정된 틀 안에 포함시켜 무문토기문화권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기준에 따라 무문토기문화 분포권이 상이하고, 공통분모로 하는 기준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곧 한반도 및 중국동북지역을 시야에 넣었을 때, 무문토기문화 분포권은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농담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간에 따라 무문토기문화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발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1) 무문토기 개념 변화와 무문토기문화

잘 알려져 있듯이 무문토기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서부터 비롯된다. 후지타는 석기시대 토기를 후수무문토기, 박수줄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및 채문토기, 신라소식토기로 분류하였고, 후수무문토기는 “한국의 북쪽 두만강에서 남쪽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발견되며 만주 각지에도 분포하며…(중략)…일반적으로 조선 고유의 토기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륙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藤田亮策 1948: 79~80)에.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무문토기의 분포권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무문토기 개념에 시대가 결합되어 ‘무문토기시대’, ‘무문토기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니시타니 타다시(西谷正 1967)의 연구부터이다. 김원용(1968)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무문토기를 통일체로 다루긴 하였지만, 신석기시대 줄문토기에서 퇴화되어 무문토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역시 무문토기를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김원용(1968: 16)은 무문토기 범주에 홍도(단도마연토기)와 흑도를 제외시켰는데, 특수형태를 제외한 자비용 등 일상생활용 토기를 무문토기로 파악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천선행 2014a: 19). 이후에는 흑색마연토기와 단도마연토기가 무문토기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後藤直 1973; 이청규 1988). 이상으로 보면, 무문토기 개념은 「무문양을 일컫는 무문토기→청동기시대 일상생활용 조질토기→청동기시대 토기」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상의 연구들에서 무문토기의 공간적 분포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문토기 출토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경계를 한반도 내로 국한키시지 않고 유연하게 중국동북지역까지 포괄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기준 및 시간에 따른 무문토기문화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가 중국동북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처럼 무문토기라는 개념은 지금도 중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누구나 무엇을 무문토기라고 하는지 그 알맹이는 대략으로 이해가 일치한다. 다만 그것의 정확한 분포와 경계를 그릴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무문토기의 유연한 개념과 사용이 당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무문토기문화권을 설정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시도한 논문으로 배진성(2015)의 논문이 주목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라는 전제를 깔고, 토기와 석기, 묘제, 생업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적 무문토기문화의 특징은 지금의 국경인 압록강-두만강유역이 아니라 청천강유역-함경남도를 잇는 선을 경계로 그 이남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표1) 이를 무문토기문화로 설정한다는 것이다(배진성 2015:19).

표 1. 배진성(2015)의 무문토기문화권 설정 근거

기준\지역		청천강유역	압록강중상류	두만강유역	분포권
공렬심발		공렬심발	+파수부심발	공렬심발	• 북한계선 : 청천강유역-압록강중상류-함경북도 남부
마제석검		유병식》유경식 (대동강유역 이남 유병식)	× (단, 요동지역 쌍타자 등 유경식존재)	× (연해주 특수)	• 북한은 유경식, 남한은 유병식 중심. • 청천강이남에서 석검 분포밀도 높음 * 유구석부 북한계선: 압록강하류-청천강이남-함경남도 북청군 중리
묘제	지석묘	청천강이남 多	×	함경남도 이남	• 청천강유역-함경남도 이남 분포밀도 높음.
	토광묘·주구묘	?	?	?	• 북한계선 : 압록강-청천강유역 사이
	구획묘	○	×	×	• 북한계선 : 청천강유역
부장 (석검·석촉·옥류)		대동강상류이남 석검·석촉·옥류부장	석검·석촉부장	석검·석촉부장	• 북한계선 : 대동강상류
도작		벼 출토유적 : 북위 40°아래 분포			• 청천강유역이 도작가능 경계지역

청천강유역 이남으로 한반도적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데에 동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비파형동검, 세형동검문화 및 이후 한반도의 고고학적 특징이 청천강유역 이남으로 압축되고 공유되는 점을 보면, 청천강유역이 한반도적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경계지일 것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몇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첫 번째, 무문토기문화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토기의 경우 공렬만 대상으로 한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문토기에는 공렬로 대표되는 역삼동식토기,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돌대문토기, 송국리식토기, 점토대토기 등등 여러 형태가 포함된다. 여러 토기요소 가운데 공렬을 대상으로 한 순간, 무문토기문화권은 한반도 남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 외의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을 고려할 때 무문토기문화권의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공렬토기와 마제석검, 묘제, 부장양상으로 본 고고학적 북한계선은 압록강-두만강유역, 청천강유역, 대동강상류 등으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밀도를 기준으로 청천강유역이 경계로 설정되었다.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공렬토기 심발은 공렬요소의 유무로, 마제석검과 지석묘는 유무가 아닌 분포 밀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네 번째, 무덤 내부장양상을 살펴볼 때, 석검·석촉·옥류 부장양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석검이 있는 지역만 해당할 것이므로 청천강 이남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석검·석촉이라는 종류보다 무기류라는 범주의 차이로 부장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청천강유역이 무문토기문화권의 경계가 되었던 적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전개과정에서 토기문화의 경계가 늘 청천강유역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한다. 위 논의가 토기뿐만 아니라 여타 물질자료와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중국동북지역과의 관련성보다는 무문토기문화를 한반도 내적 요소로 국한하여 고정화시키고, 분포권을 달리하는 요소에 대한 어떤 해석도 차단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와 논의의 과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동기시대 동안 무문토기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그 문화권이 늘 같지 않고 무문토기문화권은 유연하게 변동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사라는 틀 안에서 한반도적 특징으로 뚫뚫 뭉친 지역 문화 설정도 중요하지만, 무문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광역적 지역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전체 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4개 무문토기문화권의 설정

결론적으로 말해 발표자는 한반도 무문토기문화권은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권, 1차 무문토기문화권, 2차 무문토기문화권, 3차 무문토기문화권의 4개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권은 그야말로 조·전기 무

문토기로 대별되는 토기문화의 주요 분포지역에 해당한다. 조·전기에는 돌대문토기문화, 가락동식토기문화, 역삼동-혼암리식토기문화권으로, 중기에는 송국리문화권으로 대별되는 지역으로 시기에 따라 분포권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대부발, 대부호, 채문토기 등의 적색마연토기의 성행, 지석묘 등 각종 무덤, 유병식을 중심으로 한 마제석검 등 한반도적 특징이 밀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1차 무문토기문화권은 청천강유역-함경남도로 이어지는 배진성의 무문토기문화권에 해당한다. 밀집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한반도 남부 특징인 공렬, 마제석검, 묘제 등이 확인되고 비파형동검, 세형동검(동서리유형, 조진선 2017), 점토대토기 등이 일정량 확인된다. 요동반도 각지의 문양요소들이 파급되며 다양한 형태로 재지화되지만, 심발형·천발형·호형이라는 무문토기의 기본구성을 유지하는 공통성이 있다. 청천강유역 이중구연토기문화가 가락동식토기문화 형성과 깊이 관련되는 점, 마제석검의 공유, 팽이형토기의 파급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 집단에 있어 동일문화를 공유하거나 적어도 긴밀하게 교류하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초기 무문토기단계에는 압록강중상류 집단의 이주로 인해 한반도 남부 돌대문토기문화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압록강유역까지가 1차 무문토기문화권에 해당한다. 즉 1차 무문토기문화권은 점차 축소되어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문화적 특징이 수렴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2차 및 3차 무문토기문화권은 광역적 의미의 무문토기문화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국동북지역 토기문화 양상을 살펴보면(천선행 2014a:22-24), 지리적 특성과 중원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요서와 요동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요서지역은 중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위영자문화와 같이 삼족기가 성행한다. 더구나 하가점하층문화의 경우 흑도·채도·회갈도가 확인되며, 삼족기(鬲·鼎)를 비롯해 존·분·옹·두·배 등으로 구성된다. 위영자문화도 력·천발·대구관·옹·이중구연 분 등으로 구성된다(천선행 2010).

요동지역은 크게 요서와의 경계지역에 해당하며 요서와 요동의 문화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고대산문화 및 신락상층문화, 요동반도 재지의 문화로 구성되는 마성자문화, 쌍타자문화로 대별될 수 있다. 고대산문화 및 신락상층문화에서는 요서지역의 영향으로 삼족기가 출토되지만, 무덤에서는 삼족기가 공반되지 않고 호형토기와 고족발, 천발형토기가 부장된다. 삼족기라고 해도 생활유적 출토품은 홍갈도의 분식력과 통식력으로 요서지역 출토품과 상당히 다르다. 신락상층문화의 생활유적에서도 정 등의 삼족기를 중심으로 시루·완·발 등이 출토되나 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즉 고대산문화와 신락상층문화는 요서지역의 영향이 미치는 동쪽 한계에 위치하면서 요서와 요동지역의 점이적 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요동산지의 태자하를 중심으로 한 마성자문화는 생활유적에서 삼족기가 출토될 것이라는 견해(조빈복 2011)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포함층 출토 유물을 고려하면 무덤과 생활유적 출토품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는 관·호·완형 토기가 중심이라고 생각된다.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3기문화(大貫靜夫 2007 ; 천선행 2014b)는 관과 호가 가장 많고, 대각이 달린 궤(簋 혹은 권족발)가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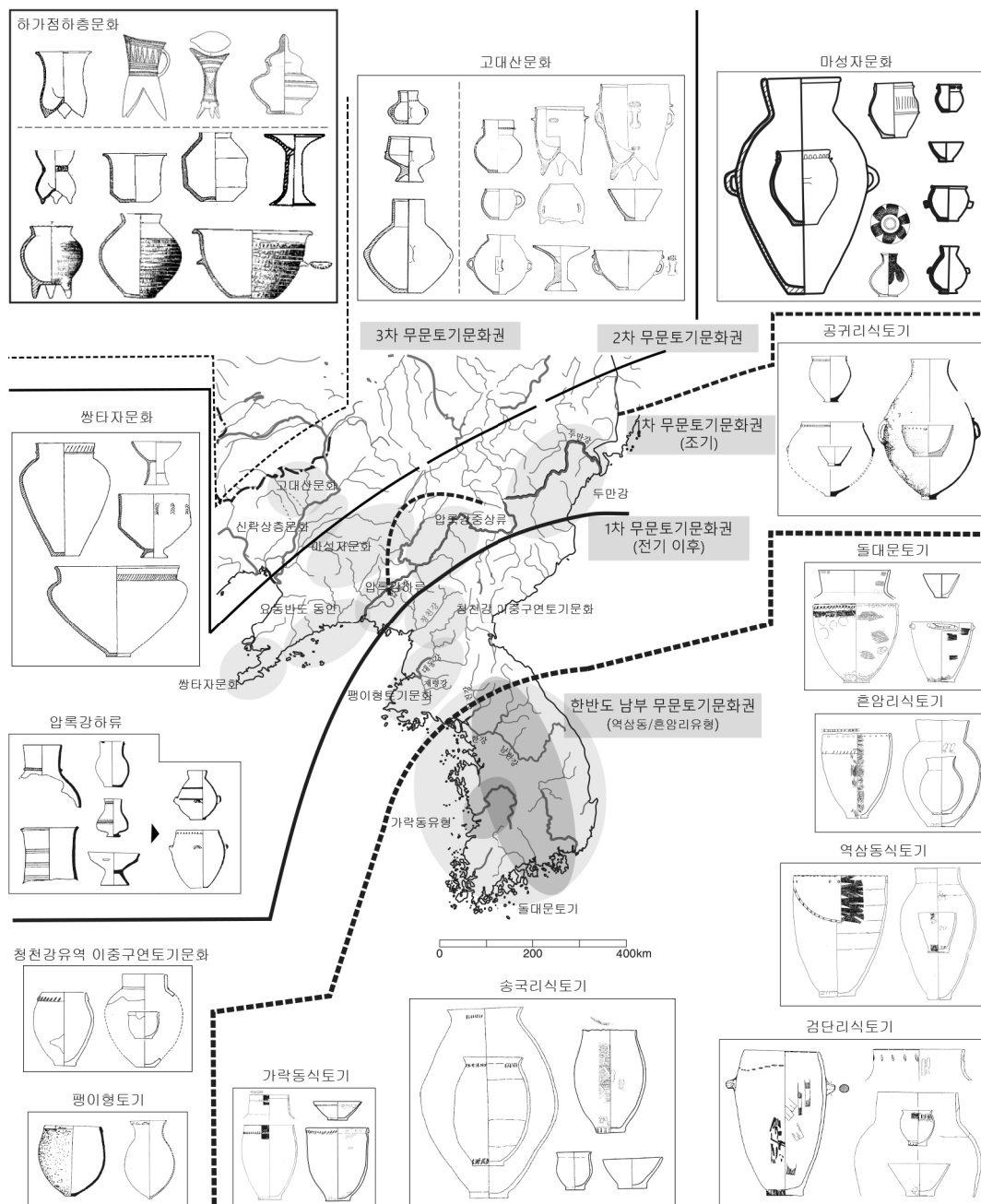


그림 1. 한반도 및 중국동북지역 무문토기문화원(천선행 2014a 수정)

이상으로 보아 중원의 영향이 강한 요서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먼 요동지역으로 갈수록 삼족기 등 중원적 색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천선행 2014c). 이러한 동향으로 볼 때, 요동반도는 삼족기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심발, 천발, 호형토기로 구성되는 점에서 한반도 무문토기와 동질적이다. 그중 마성자문화와는 돌대문, 쌍타자3기문화와는 고족발과 고배 등에서 한반도 무문토기와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요동반도 남단에서 요동산지에 걸친 지역은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와 직간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2차 무문토기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차 무문토기문화권은 지식묘의 분포범위와도 대략 일치한다.

고대산문화의 경우, 삼족기가 구성되는 점으로 볼 때 한반도 무문토기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덤 출토품으로 고족발, 적색을 띠는 호형토기는 한반도와 유사하고, 고대산문화와 마성자문화간의 친연성, 그에 따라 일부 요소가 한반도로 유입된다. 또한 이후 삼족기가 사라지고, 현문호, 첩순관으로 불리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대산문화와 인접하는 대릉하유역은 위영자문화단계에 삼족기가 출토되고, 저장갱에서 청동예기가 출토되는 등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엿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삼족기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고, 비파형동검과 다뉴경이라는 공통요소를 감안할 때, 시기에 따라서 고대산문화가 분포하는 요하평원지역 및 대릉하유역까지가 3차 무문토기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다.

3. 조 · 전기 무문토기문화와 중국동북지역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를 전후하여 각 시기별 병행관계와 한반도 남부와 북부,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를 검토(천선행 2014c)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와 변화상을 좀 더 분명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시대로의 진입과 지역문화의 형성

중국은 중원의 이리두문화부터, 중국동북지역은 청동기가 출현하는 쌍타자1기부터 청동기시대로 파악한다. 쌍타자1기문화에 산둥용산문화 요소가 확인되고, 이리두문화에 대응하는 악석문화 요소는 쌍타자2기부터 확인되며, 이 때부터 토착적 지역색이 나타나므로 쌍타자2기부터를 청동기시대로 보고자한다(천선행 2014c).

중국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로 진입하기 직전인 쌍타자1기 단계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신암리1기, 요동반도 동안에는 석불산유형이 전개된다. 쌍타자1기는 고경관, 호, 단이배를 특징으로 하는데 고경관에는 횡침선문대가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 압록강을 두고 마주하는 압록강하류와 단동지역(석불산)에서는 돌대문으로 구획하고 내부를 너문 또는 침선문으로 채운 호형토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횡침선 원형첩부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쌍타자1기와의 관련성도 엿보인다.

이 시기의 지역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산동반도 용산문화의 파급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산동용산문화 요소 가운데,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절연관·삼환족기·단이배가 확인되고, 단동지역에서는 절연관·삼환족기, 압록강하류에는 절연관만 확인된다. 즉 서에서 동으로의 문화 파급이 두드러지고, 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산동용산문화의 기층구성이 붕괴되고(古澤義久2007) 유사성이 떨어진다(천선행 2014c). 특히 압록강하류의 신암리1기 양상으로 보아 인접지역과의 지역관계를 통해 서에서 파급된 산동용산문화나 쌍타자1기문화가 부분적으로 유입되는 주변지적 성격을 갖는다.

표 2. 청동기시대 한반도-중국동북지역 병행관계(천선행 2014c 수정)

요서	요북지역	요동산지	요동반도 남단	요동반도 동안	압록강하류		압록강 중상류	청천강 유역	한반도 남부	
하가점하층	평정산2기	마성자하층 4기	소주산상층	석불산고	신암리 I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쌍타자1기							
	고대산	마성자	쌍타자2기	단타자	석불산	신암리 3-1				신암리 II
			쌍타자3기	고려채		신암리 II				
신락상층			신성자	상마석상층	(쌍방M6?)		신암리 III	심귀리 II	세죽리 II 2 II 3	전기
					상마석B II	미송리				
	정가와자	상마석A상층			묵방리?		토성리			
위영자	하가점상층	십이대영자 I	2차 무문토기문화권						1차 무문토기문화권	남부 무문토기문화권

다음 단계부터 중국동북지역은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데, 지역 토기문화가 형성되고, 토기의 무문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2기, 요하평원의 고대산문화, 요동산지의 마성자문화, 요동반도 동안의 단타자유적, 압록강하류역에 신암리3-1, 신암리2기의 일부가 이 시기에 해당하고, 한반도 남부는 아직 신석기시대이다. 이전 시기와 달리 산동반도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지만,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2기에서는 여전히 악석문화의 특징이 확인된다. 쌍타자2기의 철룡문·삼족기·뚜껑은 요동반도 동안의 벽류하유역으로도 파급되고, 압록강하류의 신암리 3-1지점에서 채색토기가 출토되는 등 전 단계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서에서 동으로의 문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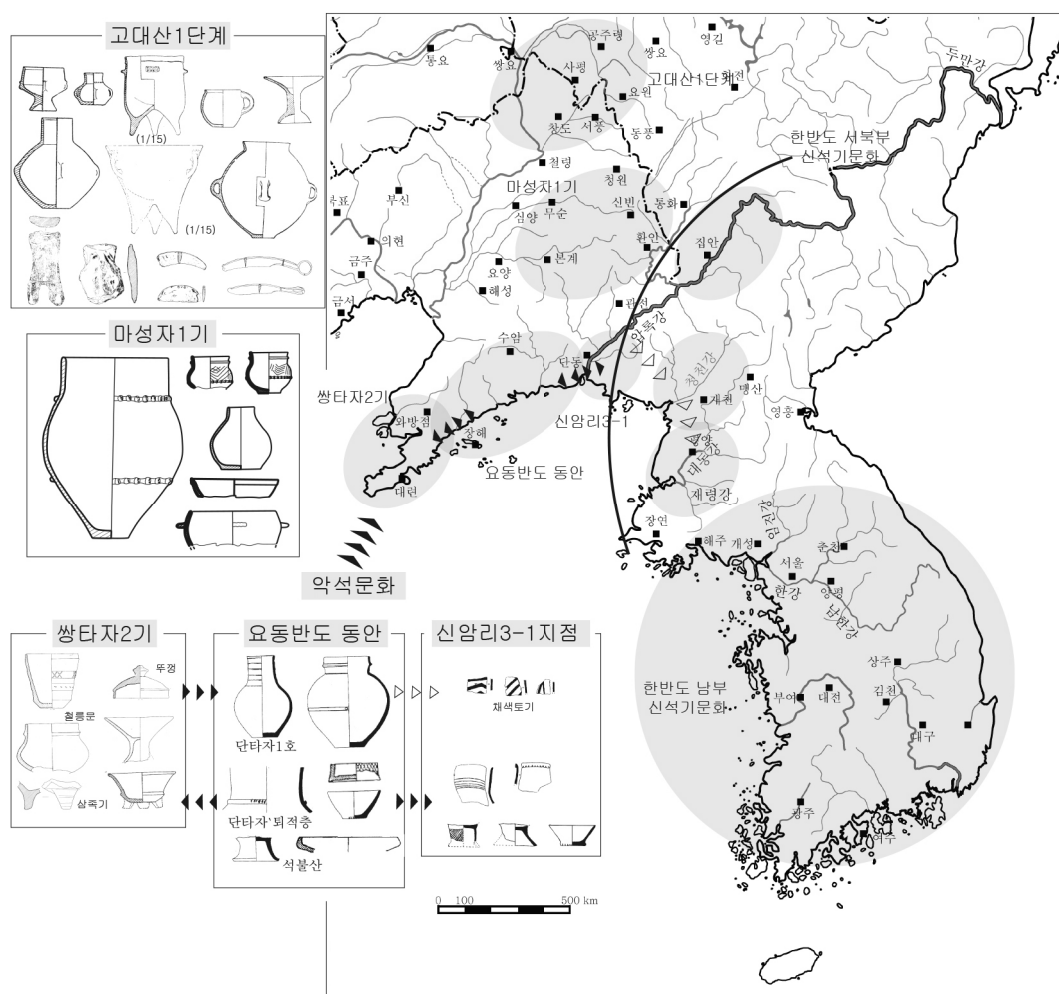


그림 2.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시대 개시와 지역관계(지정 외 유물 : 1/20)

한편으로 벽류하유역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쌍타자2기의 특징도 확인되지만, 경부 현문, 경동부 경계의 돌대문, 이중구연, 두형토기 등 단동지역 문화요소가 파급되면서 이중구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토기문화가 형성된다. 압록강하류

는 쌍타자2기는 물론 벽류하유역, 단동지역 요소가 모두 확인되고 있어 중국동북지역 토기문화의 외연부에 위치하면서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중국동북지역은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면서 토착 신석기시대를 바탕으로 지역 토기문화가 형성된다. 신석기시대 말기 산둥반도로부터의 강한 문화적 파급은 청동기시대에도 강도는 약해지지만 여전히 지속된다. 서에서 동으로의 일방적 문화 흐름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단동지역 이중구연토기 등은 서쪽으로 파급되어 요동반도 동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대체로 동-서방향의 문화흐름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적으로 도달하였다기보다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징검다리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돌대문토기문화의 형성과 종적교류관계의 형성

한반도에서도 청동기시대가 열리면서, 남부에는 돌대문토기문화, 북부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곳곳에 지역 무문토기문화가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북부에는 심귀리1, 신암리Ⅱ기가, 요동지역에서는 단동지역의 석불산유적, 벽류하유역의 고려채유적, 남단의 쌍타자3기, 요동산지의 마성자문화, 요하평원의 고대산문화가 형성되거나 지속된다.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정착하는 이 시점에 어디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발표 주제와 부합하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자 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청천강 이남의 양상이 분명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돌대문토기문화는 북한강을 시작으로 한반도 남부의 수계 내륙부를 따라 전개되고 분포한 한반도 내륙부를 관통하듯 집중분포하면서 주변으로 파급된 돌대문토기문화는 위석식노지, 2열 초석 또는 주공, 기종구성, 각종 돌대문토기, 석기조성, 어망추, 방추차의 물질자료는 물론 유적의 입지, 생업형태에서도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돌대문토기가 한반도 남부에서 자체 형성된 것이 아닌 한, 그 기원문제는 한반도 북부 나아가 중국동북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관계와 직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돌대문토기의 기원은 두만강유역 기원설이 제기된 바 있으나, 마성자문화-압록강중상류를 잇는 문화루트를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돌대문이 부착되는 기종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인

정되지만, 주거구조와 형태, 석기조성, 방추차 등 공통성이 두드러지는 압록강중상류 즉 심귀리1 단계의 문화가 한반도 첫 번째 무문토기문화 형성에 깊게 관여되어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심귀리1문화는 주변의 청천강유역으로도 파급되어, 세죽리Ⅱ1, 구룡강1기에 돌대문 및 이중구연 요소가 공반하고, 구룡강1에서는 심귀리1에 보이는 종상파수도 확인된다.

한편 압록강하류의 신암리Ⅱ기는 한반도 남부 및 북부와 병행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 반드시 등장하는 문화이다. 신암리유적의 경우 퇴적층 두께가 얇아 단계설정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존중하는 한, 한반도 서북부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반기까지의 편년수립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렇게 설정된 병행관계로 인해 압록강하류와 한반도 남부의 직접적 관계가 설정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도 그러한지 의문스럽다. 신암리2기는 쌍타자3기문화와 마성자문화의 융합(安在皓 2010),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지역토착민이 마성자문화를 중심으로 인접하는 요동반도 제 토기문화를 복합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형성된다(천선행 2014c). 돌대문의 존재, 소형 호가 많은 점, 구경부 경계점열문은 마성자문화의 특징이고, 대타자유적에서 보이는 짧은 대각이 부착된 완형토기, 경부 현문대 등은 쌍타자3기의 특징이다. 마성자문화의 영향이 미쳤다는 점에서 신암리2기나 심귀리1기나 마찬가지이지만, 신암리Ⅱ기의 경우 돌대문을 제외하고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화와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암리Ⅱ기와 돌대문토기의 병행관계를 구축한 것은 토기변화가 주변지역과 연동한다는 점에서의 공통점이지, 돌대문토기와의 직접적 관련성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상으로 보면, 돌대문토기문화는 압록강중상류의 심귀리1기 단계의 농경민의 이주로 형성되므로, 압록강중상류지역까지가 1차 무문토기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지역관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전의 동서방향의 문화흐름에 새로이 남북방향의 문화흐름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압록강중상류 주민의 한반도 남부 이주로 돌대문토기가 형성된 사실만 봐도 그러하다. 시점을 중국동북지역으로까지 넓혀보자.

압록강중상류지역의 무문토기문화가 이미 마성자문화와 관련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姜仁旭2011; 安在皓 2010; 천선행·장순자 2012; 천선행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대문이 부착된 호형토기, 종상파수, 호형토기의 다용, 이중구연 공반에서 마성자문화와 유사하다. 마성자문화의 파급은 비단 한반도 북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선 아우라지유적 2차 발굴에서 마성자문화와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17호주거는 장방형에 석상위석식 노지가 설치되었고, 내부에서 각목돌대문토기를 비롯해 삼각만입 석촉, 장방형 석도, 석제

어망추, 토제 어망추, 옥장식품(관옥), 청동장신구가 확인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청동장신구는 단조의 청동제품인데 정확한 내용은 분석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출토양상이 마성자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 중원지역은 청동 용기 제작이 발달하고, 중국동북지역 가운데 요서지역과 그 영향이 미치는 고대산문화, 신락상층문화에서는 모두 청동도자, 청동부 등의 무기류가 주로 제작된다. 반면 청동기제작의 최변방에 위치하는 마성자문화의 경우 청동용기와 청동무기는 없고 대부분 청동장식품으로, 장가보A동 M11에서 동제환 2점, M24에서 원형동식 2점, M26에서 장방형동식 1점, M50에서 동제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정선 아우라지 2차 발굴 17호주거와 동일하다. 연대측정결과를 확인해야 더욱 분명하겠지만, 출토유물 양상으로 보아 초기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선 아우라지에서 출토된 초기단계의 청동기 자료는 한반도 남부 돌대문토기문화는 요동반도-압록강중상류를 아우르는 중국동북지역 주민의 이주로 형성(박순발 2003; 안재호 2000)되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아울러 빈도와 정도는 약하지만 마성자문화와 한반도간의 직접적 관계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이전의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의 관계가 인접지역간에 이루어지는 횡적교류관계였던 것에 비해,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종적교류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돌대문토기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마성자문화, 앞서 설명한 압록강하류의 신암리Ⅱ기가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점, 한반도 이중구연토기문화 형성에 일조하는 요동반도 동안의 이중구연문화권 등은 한반도 남부와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2차적으로 한반도 무문토기형성 및 전개와 관련되므로 요동반도 남단-요동산지를 잇는 지역까지를 2차 무문토기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대산문화는 무덤 출토품과 생활유적 출토품이 상이한데, 무덤에서는 고족발을 중심으로 말사구연의 호가 주로 출토되고, 생활유적에서는 삼족기가 출토되지만, 요서지역과는 다른 분식력, 통식력 등이 출토된다. 고대산문화와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압록강중상류 심귀리 유적에서 호형토기에 종상파수와 반이가 결합된 파수가 부착되는데, 이는 고대산문화의 특징이므로 마성자문화 외연부에서 인접문화인 고대산문화와 접변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中村大介 2008). 더구나 고대산문화의 토기들이 적갈색을 띠는 점, 생활유적에서야 삼족기가 출토되지만, 무덤에서는 더 이상 중원계 삼족기가 조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고대산문화는 광의의 의미의 무문토기에 포함될 수 있고, 무문토기문화의 광역적 범위에 해당하는 3차 무문토기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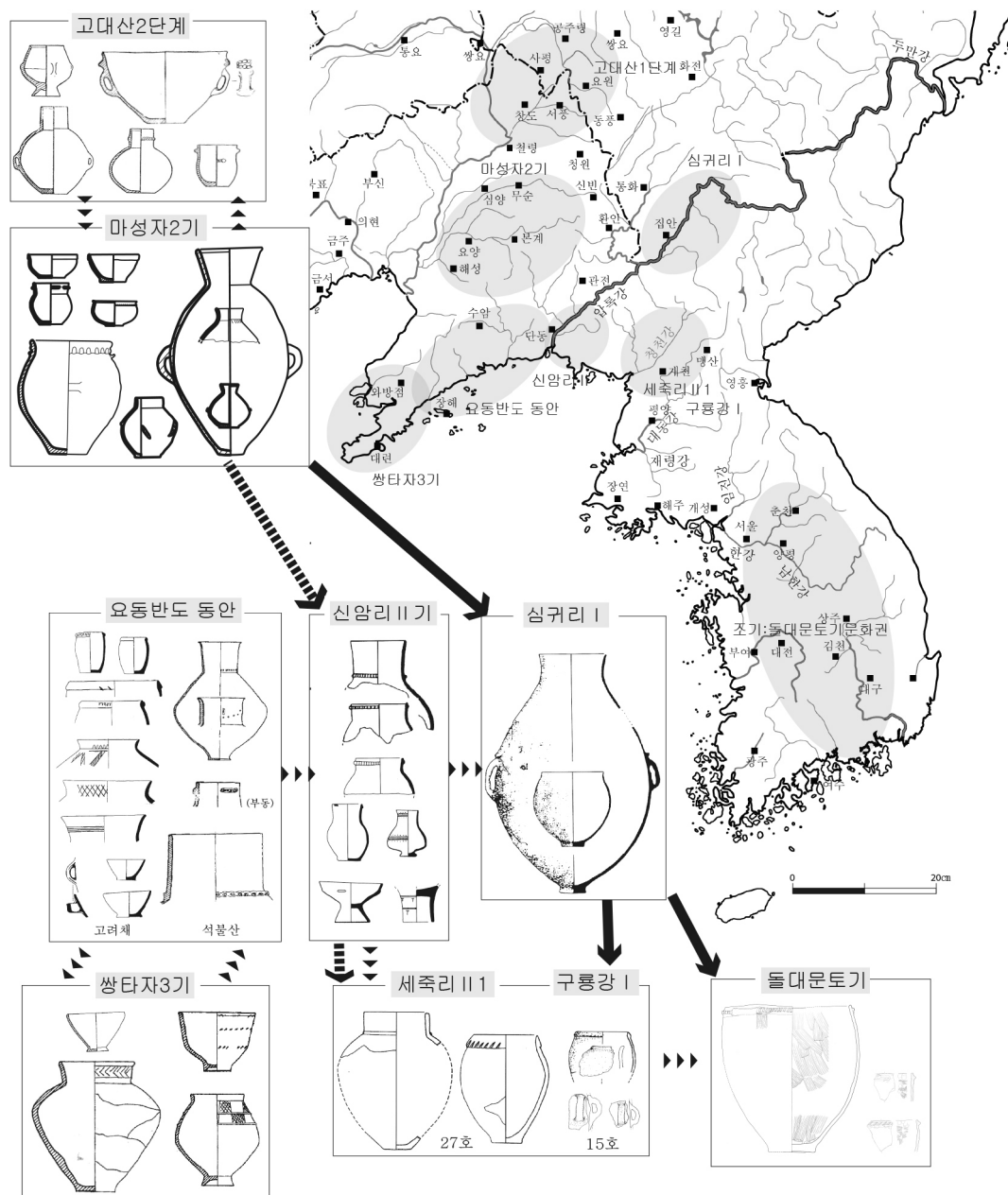


그림 3. 초기 무문토기문화 형성과 지역관계(지정 외 유물 : 1/20)

이상으로 초기단계 무문토기문화는 한반도 각지에서 지역 무문토기문화가 형성된다. 한반도 및 중국동북지역을 포함한 당시의 토착 지역문화의 발현 및 인접지역간의 활발한 지역관계가 원동력이 되거나 연쇄반응을 일으킨 결과이다. 문화파급도 대부분 이전 단계의 인접지역간에 이루어지는 지역관계가 중심이고, 지역관계는 지리적 거리에 비례한 문화권간에 일정한 친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종적교류관계 심지어 요동산지 주민들이 내륙 수계를 따라 한반도 중남부지역까지 장거리 이주하였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3) 전기 무문토기문화와 활발한 인적·정보 교류권의 형성

돌대문토기에 이어 전기의 한반도 남부에는 가락동식, 역삼동식, 혼암리식토기문화 형성되고 전개된다. 팽이형토기를 무문토기의 계통적 기원지로 제기한 이백규(1974)의 논의 이후,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설정되면서 금강유역 이중구연토기문화는 이중구연토기의 문양형태 및 주거구조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그 기원지로 대동강유역이 아닌 청천강유역으로 수정되었다(박순발 2003). 더구나 최근에는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의 임진강유역, 북한강유역, 금강유역, 즉 연천 삼거리를 비롯하여 문단 당동리, 김포 양촌, 가평 대성리 등에서 팽이형토기요소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주목받고 있다(이기성 2010; 문수균 2015 등). 나아가 석검, 석부 등에서 유사성이 확인되며(배진성 2015), 대동강유역과 임진강, 한강유역이 서로 인접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두 문화간의 문화접변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일부로 제한적 이겠지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기무문토기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서북부지역, 구체적으로는 대동강유역 및 청천강유역 토기문화가 일조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역삼동식토기에 해당하는 공렬토기는 두만강유역 기원(이백규 1974), 압록강유역기원설(大貫靜夫 1996), 자체발생 가능성(김장석 2001·2008)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 역삼동식토기를 다룬 논문의 경향으로 볼 때, 두만강유역이나 압록강유역에서 유입되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석기시대 공렬요소의 계통, 공렬토기가 청동기시대로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파급되는 과정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공렬토기의 밀집 분포도 그리고 단편적이지만 신석기시대 후말기에 확인되는 공렬요소를 고려하면 한반도 안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다. 이상으로 역삼동식토기의 기원지로 현재 더 이상 압록강유역, 두만강유역을 고려하기 어려워지면서 가락동유형 및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대표되는 전기무문토기문화의 1차 무문토기문화권은 청천강유역까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데, 형태적으로 유사한 이중구연관이 다수 분포하는 벽류하유역이 주목받고 있다(배진성 2012, 천선행 2014c). 구체적으로 단타자, 고려채유적 등 요동반도 동안지역의 이중구연토기문화는 토착 신석기시대인 소주산상층, 석불산유형의 이중구연토기를 계승한다. 이들 문화가 청천강유역으로 유입되면서 신암리2기 후반에 나타나 정착하게 되고(천선행 2014c:22), 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기단계의 압록강상류가 어떠한지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한반도 남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지는 듯하다. 압록강하류는 청

천강유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이질적 요소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압록강중상류 및 하류일대는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의 문화적 접경지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 형성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부여할 자료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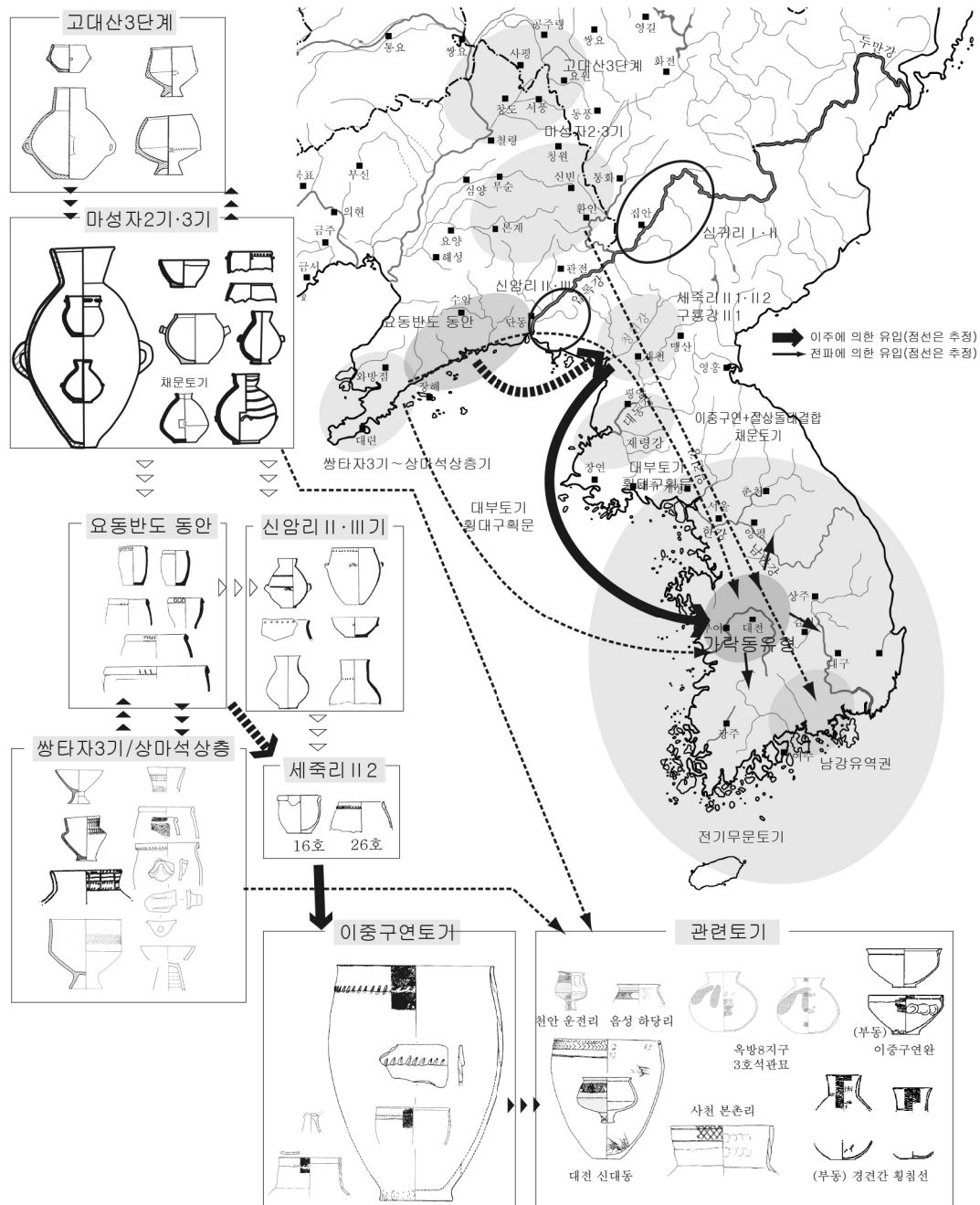


그림 4. 전기 무문토기문화 형성과 지역관계(지정 외 유물 : 1/20, 천선행 2014c 수정)

한편, 중국동북지역은 초기단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화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요동산지의 마성자문화, 요하구역의 고대산문화,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3기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상마석상층문화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집단의 이주양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특정기물이나 문양요소에서 동북지역과의 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횡대구획문, 대부토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횡대구획의 요소 가운데 돌선보다 침선구획에 의한 문양요소가 한반도 남부 청원 대울리, 사천 본촌리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이들 요소는 중국동북지역으로부터 중서부지역을 기점으로 주변지역에서 모방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천선행 2014c). 다음으로 대부토기 역시 요동반도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안재호 2003; 김지현 2010)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대부토기는 쌍타자3기의 권족례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쌍타자3기 권족례가 크고, 회갈도 내지 갈도인 것이 대부분임에 비해, 한반도 출토품은 이보다 작고 적색을 띠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의 양상을 고려하여 대부토기의 기원지로 홍갈도 내지 홍도로 제작되는 고대산문화에서 확인되고, 마성자문화 외연부의 대리수구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고대산문화와 마성자문화의 관련성 속에서 한반도로 유입된다고 보기도 한다(천선행 2014c). 고대산문화와 마성자문화의 상호작용은 앞서 설명한 심귀리1호 출토품에서 보이는 고대산문화의 파수 형태, 대전 용산동 4지구 5호주거, 연기 보통리, 진주 초장동 유적에서 이중구연상에 절상돌대문이 부가된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들은 마성자문화에 포함되는 환인 대리수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상의 지시 자료들은 모두 마성자문화로 귀결되고 있는데, 전기의 채문토기 기원으로 마성자문화 말기의 동승유적(강인욱 2003)이 제기된 이래, 마성자C동 M2(천선행 장순자 2012)에서 채문토기가 확인된 바 있고, 최근에도 소흥석렵자 동굴과 동산동굴, 남둔촌의 남둔동굴유적 출토품이 새로이 추가(송영진·하용인 2014)되고 있다. 그밖에도 사천 본촌리유적에서 출토되는 경부와 견부 사이에 일주하는 횡친선문 평저장경호, 남강유역에 일대에서 출토되는 내경구연단의 이중구연완(대평리식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마연토기), 토광묘가 마성자문화와 관련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송영진·하용인 2014).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토광묘를 근거로 한반도 남부와 마성자문화를 연결시키는 데에는 주저스럽다. 왜냐하면 마성자문화의 동굴 안 무덤을 자체 마련하는 형태가 토광묘와 연결된다는 점이 근거인데, 사실 무덤을 구획하기 위해 돌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마성자문화 가운데 동물묘가 아닌 경우나 특히 마성자문화 후반기에는 석관묘가 유행하므로 동굴묘와 토광묘를 계통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무덤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선 매둔동굴¹⁾에서 재층(최대 두께 18cm)이

확인되고, 재층에서 청동기시대 4명분의 인골이 확인된 바 있다. 정확한 출토 유물을 파악할 수 없으나, 청동기시대 석축 등이 출토되었으며, 인골에는 불에 탄 흔적(화장)이 확인된다고 한다. 재층의 연대측정결과는 BC 12~8세기(중심연대 BC10세기)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정식보고가 이루어지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출토정황으로 보면 이러한 동굴묘의 풍습이 마성자문화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전기무문토기 형성에 관여되는 요동반도 동안, 전기무문토기 단계에서도 꾸준히 인적교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마성자문화 요소들을 감안하면 요동반도 남단에서 마성자문화까지가 한반도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2차 무문토기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바깥에 위치하는 고대산문화는 여전히 한반도와의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어려우나, 인접하는 마성자문화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하평원까지를 3차 무문토기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전기 무문토기 단계의 한반도는 벽류하유역의 이중구연이 파급되어 한반도 북부에 이중구연토기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다시 2차 파급되어 가락동식토기문화가 형성된다. 남부에는 돌대문토기가 잔존하면서 자체적인 역삼동식토기와 변형된 혼암리식토기가 등장하는 등 한반도 토착화를 거쳐 지역 무문토기문화가 성행한다. 지역문화 형성은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간의 연동관계가 더욱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동북지역의 이중구연토기, 현문호는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약간씩 변질된다. 아울러 중국동북지역의 토기요소 가운데 문양형태나 특징적인 토기에 집중되어 현문호, 대부토기, 횡대구획문, 이중구연과 절상돌대문의 조합, 채문토기 등이 선택적으로 변형되고 수용된다.

전기단계에는 횡적교류관계는 물론 종적교류관계가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지역관계의 형태는 이주만이 아니라, 인적교류를 통한 정보교류, 전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관계는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이 서로의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연동하는 정보교류권 범위 안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1) 문화재청 보도자료 참조(2017년 5월 23일).

4. 맺음말

본 발표를 통해 개별적이고 다른 것이라고 여겨지던 한반도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역 토기문화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문화가 연동하며 변화해 왔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문토기문화권을 4개로 설정하였는데, 한반도적 특징이 단연 돋보이는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권,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문화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접촉 및 교류가 일어나는 청천강유역 또는 압록강중상류 지역까지의 1차 무문토기문화권, 때로는 직접적 때로는 간접적으로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 및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동반도 남단에서 요동산지에 이르는 2차 무문토기문화권, 무문토기라는 기본요소를 공유하면서 직접적이지 않으나 2차 무문토기문화권을 통해서 또는 토기 또는 다른 요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하유역에서 대릉하유역까지를 3차 무문토기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문화권설정을 통해 물질자료 특히 중국동북지역 토기문화의 파급과 유입이 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를 기준으로 무문토기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권에 농담이 있고, 그러한 문화권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친소관계를 통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한반도 무문토기문화가 형성되고 전개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무문토기로 보는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의 관계는 [한반도 전체 vs 중국동북지역]이라는 큰 틀의 관계보다 [한반도 각 지역 vs 중국동북지역의 각 토기문화]간에 매우 개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문화들이 유입되는 과정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징검다리 형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때로 중국동북지역에서 한반도 남부로 직접 파급되기도 하고 점차 후자의 빈도가 잦아진다. 아울러 전기 무문토기단계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공통된 정보교류권의 형성은 이후 비파형동검문화의 파급과 형성에 필요한 교류망을 형성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姜仁旭, 2003, 「遼寧地方 太子河上流지역 신발견 彩文土器에 대하여」, 『고고학』 제2권 제2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정선 여량면 여량리 191번지(정선 아우라지 유적)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2차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 金元龍, 1968, 「韓國無文土器地域分類試論」, 『考古學』 1.
- 金장석, 2001, 「혼암리 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 김지현,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부토기에 대한 검토-대부토기의 기원을 중심으로-」, 『고고학』 9-2호.
- 문수균, 2015,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화과정-각형토기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고고학의 패러다임과 논리: 서북한 선사시대 연구』, 중부고고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 朴淳發, 2003, 「渚沙里類型 形成考」, 『湖西考古學』 9.
- 裴眞晟,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11.
-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嶺南考古學』 72.
- 송영진·하용인, 2014, 「청동기시대 전기 마성자문화요소의 한반도 유입 일 양상-경남 남강~해안지역으로의 직접유입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2집.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安在皓, 2002,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農耕文化의 形成』.
- 安在皓,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時期區分」, 『考古學誌』 第16輯.
- 安在皓, 2015, 「中國 双砣子3期土器의 基礎的編年-型式學的屬性分析法으로써」, 『韓國上古史學報』 第90號
- 이기성, 2010, 「영종도의 청동기문화」, 『영종도의 고고학』.
- 이기성, 2011, 「초기북한고고학의 신석기 청동기시대구분」, 『호서고고학보』 25.
- 李白圭, 1974, 「京畿道 無文土器 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3.
- 李清圭, 1988, 「南韓地域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1.
- 이청규, 송호정, 조진선, 천선행, 이종수, 2010,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42,
- 조진선 2017,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종족」, 『한국상고사학보』 96.

- 趙賓福, 2011, 『중국 동북 선사문화 연구』, 삼강문화재연구원 번역총서6.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한국고고학회.
-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 早期 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 1.
- 천선행, 2010, 「고대산문화의 시공간 검토」, 『영남고고학』 52, 영남고고학회.
-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영남고고학』 63, 영남고고학회.
- 천선행, 2014a, 「제1장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道具論』, 서경문화사.
- 천선행, 2014b, 「요동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토기문화의 전개」, 『嶺南考古學 70號
- 천선행, 2014c,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湖南考古學報』 48.
- 천선행, 2015,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재고」, 『湖南考古學報 第51輯
- 하용인, 2010, 「大嘴子遺蹟의 단계별 변화에 대한 검토-주거지와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논집』 2.
- 古澤義久, 2007, 「遼東地域と韓半島西北部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第21号.
- 大貫靜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槿域].
- 大貫靜夫,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 西谷正, 1982, 「朝鮮考古學の時代區分について」, 『小林行雄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82.
- 後藤直, 1973, 「南朝鮮の無文土器-その變遷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9-3.
-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峯紅山后』, 東方考古學總刊甲種第六冊.

無文土器と弥生土器

川上洋一
橿原考古學研究所

目 次

1. はじめに
2. 青銅器時代後半における北部九州の土器様式の変化への影響
3. 水石里式土器の九州地域での出土と弥生土器との折衷
4. 勒島式土器が搬入される時期の弥生土器とその後
5. おわりに

1. はじめに

韓半島の青銅器時代後期～初期鉄器時代、そして併行した日本列島の弥生時代には、どちらの地域においても酸化焰焼成による土器が製作、使用されていた。そして、韓半島の青銅器時代後期の無文土器は弥生土器の成立に影響を与えたことは、数多くの研究によって論じてられてきた。また初期鉄器時代の土器（水石里式土器）も先行する時期の土器と同じく日本列島、特に北部九州や中九州、本州西端部を中心に出土し、弥生土器との折衷土器（擬朝鮮系無文土器）が見られた。ただし続く勒島式土器になると、弥生土器で甕や鉢にあたる同じ粘土帯土器であっても、弥生土器との関係が、日本列島側（その西半部）で変化する。様々な意見があると思うが、その前の段階の無文土器と同じく、酸化焰焼成された水石里式土器や勒島式土器（粘土帯土器とセットとなるその他の器種）までを無文土器として取り扱いたい。

本発表は、「無文土器と弥生土器」という非常に大きな発表題目をいただいたが、弥生土器の成立に関わる、韓半島の青銅器時代後期の土器から日本列島の縄文時代晩

期の土器への影響・弥生土器の成立について、筆者はこれまで論文等を発表していないし、実見した資料もきわめて少ない。そこで、この時期については、おもに日本側での研究成果に基づいてその様相を述べ、弥生時代が開始する時期における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関係を、その後の検討の前提として確認する。その上で、その後に新たに韓半島の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が接触した時期の様相を論じるなかで、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関係について述べることにしたい(図1)。

なお、2010年に韓国考古学会が編集して、刊行された『改訂新版 韓国考古学講義』によれば、水石里式土器にあたる土器群は、初期鉄器時代の土器として、青銅器時代の無文土器とは、別に考える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あると理解している。そして粘土帯土器の系譜については、もともと遼寧地方からの移民の製作した土器であるという説(朴淳發2004)から、青銅器時代後期の無文土器との系譜が繋がらない器種もあるが、本発表では無文土器として取り扱いたい。

2. 青銅器時代後半における北部九州の土器様式の変化への影響

福岡市の板付遺跡の発掘調査の成果をもとに、山崎純男は北部九州の縄文時代晩期後半の夜臼式と弥生時代前期の板付Ⅰ式の共伴関係を検討し、夜臼Ⅰ式、夜臼Ⅱa式の段階、さらに夜臼Ⅱb式と板付Ⅰ式の共伴を明らかにした(山崎1980)。そして、韓半島の青銅器時代後期前半の先松菊里式土器(安2006)が、日本列島の夜臼Ⅰ式土器に影響を与えたことは、広く論じられる通りである。後藤直は、福岡県糸島市の曲り田遺跡や佐賀県唐津市の菜畑遺跡出土の壺と無文土器の丹塗磨研壺との関係を示しているが(後藤1980、1991)、その後、中村大介(2003)や端野晋平(2003、2014)、三阪一徳(2014)の研究でも詳しく論じられている。甕については家根祥多が、無文土器の甕が縄文土器の深鉢に影響を与えて成立した弥生土器の甕の祖型となったものを指摘したが(家根1984、1987)(図3)、それは形態にとどまらず、粘土紐の接合の傾きが無文土器と同じもの(外傾)に変化していることも述べた。藤尾慎一郎は、無文土器の影響を受けて成立した祖型甕から、後の板付Ⅰ式の甕(板付Ⅰ式)の変遷過程を詳しく論じている(藤尾1987)。三阪も韓半島南部の甕と北部九州の深鉢/甕の器形や製作技術の比較検討を行った(三阪2014)。

このように北部九州の板付Ⅰ式の壺や甕の成立に、青銅器時代後期前半の無文土器が関与していること、その様相が明らかにされてきている。また、弥生時代前期に青

銅器時代後期後半の松菊里型土器の出土事例が片岡宏二によって集成、分析された（片岡1999）、この時期にも韓半島中南部の無文土器が列島へ波及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ただし多くの論者が指摘するように、その弥生土器の様式への影響はほとんど無い。

上記のような、この段階での韓半島南部の無文土器から弥生土器への影響については、器種の出現とともに、製作技法などについて、深澤芳樹と庄田慎也によって、整理されている（深澤・庄田2009）。それは、(1)壺の出現、(2)丹塗り磨研技法、(3)外傾型粘土帯積上法、(4)ハケメ技法、(5)タタキ技法（深澤・李弘鐘2004）である。そして「それらの属性の取り込みは、壺が出現する夜臼Ⅰ式に始まった公算が大きい。つまり北部九州にあった土器作りが半島の技法を取り込むことによって徐々に変質して、板付Ⅰ式以降の土器が成立した」とした。

そして、韓半島南部の無文土器の影響を受けて、板付Ⅰ式が成立した段階（図2）では、韓半島南部の無文土器と、列島、特に北部九州の弥生土器の器種構成（山崎1980、庄田2017を参考にした。）は、類似しているといえる。つまり、壺、甕、鉢であり、これに列島側では高坏が少数だが存在する。まさに弥生土器の基本器種が揃う時期である。ただ、半島側では、いわゆる松菊里型土器のような壺と甕の区別が難しいような土器が弥生土器には無い。また、壺の中には文様を有するものがあることは、列島側の特徴である。

北部九州におけるこの土器様式の変化が、韓半島からの渡来人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可能性は高いが、その数は在地の人々と比べて非常に少なかったであろうと考えられているが。次に述べる水石里式土器の製作者のように、北部九州の遺跡で実際に集団として渡来した人々の痕跡は、いまだ見出されていない。

3. 水石里式土器の九州地域での出土と弥生土器との折衷

（1）九州で出土する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との折衷土器の様相

初期鉄器時代の土器と位置付けられた円形粘土帯土器を含む土器様式である水石里式土器が、弥生時代前期末～中期初頭を中心に、弥生土器と折衷したものも含め、対馬、壱岐、北部九州、中九州の熊本平野周辺、本州島西端部の山口県、島根県で出土する（図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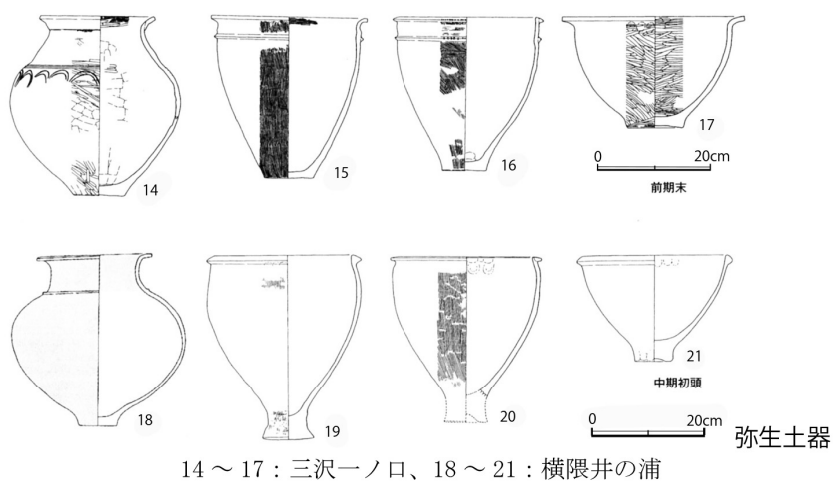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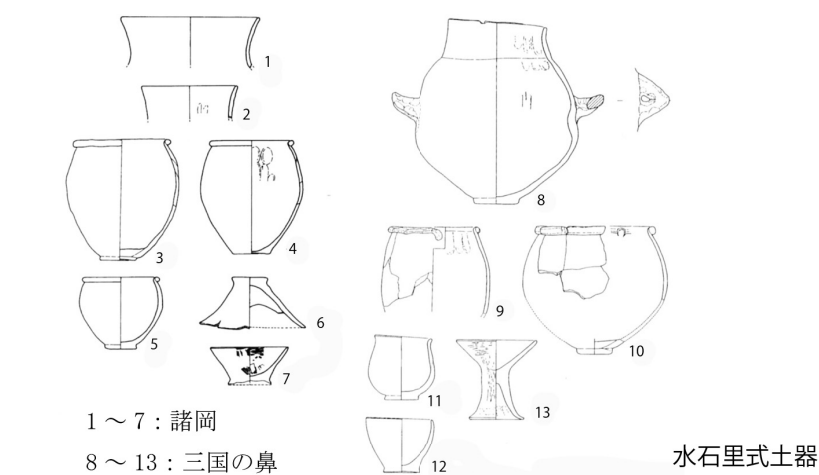


図5 北部九州出土の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
(1/12) (報告書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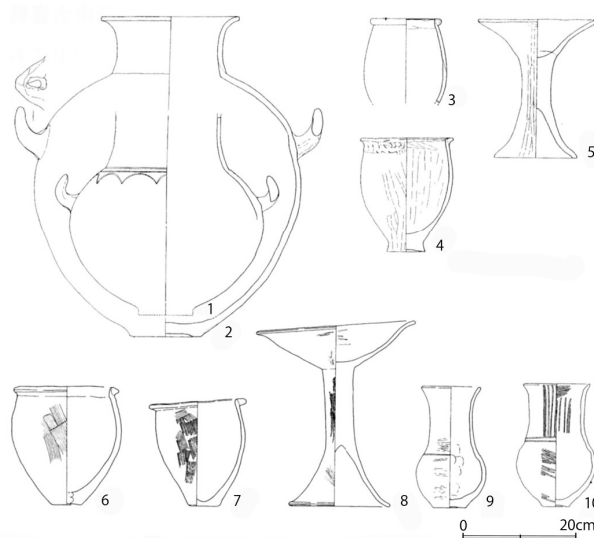


図6 北部九州出土の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の折衷土器
(擬朝鮮系無文土器) (1/12) (報告書より)

日本列島におけるこの土器については、後藤直が初めて本格的な研究（後藤1979）

を行った。後藤は朝鮮系無文土器という用語で事例を検討した。その後も後藤による研究（後藤1987、2011）とともに、片岡宏二によっても精力的に集成、分析が行われてきた（片岡1988、1990、1991、1993、1997）。また、最近では李昌熙による韓半島の様相を踏まえた検討（李2009）や松尾奈緒子による玄界灘沿岸地域の資料の検討（松尾2010）があり、そして川上も出土遺跡や遺構に焦点を当てた検討（川上2012）をしている。

列島で出土する水石里式土器について重要なのは、①半島と同じ器種が揃って出土する場合があること、そして②弥生土器との折衷土器（擬朝鮮系無文土器）が多数存在すること、である。水石里式土器といえるものが出土した遺跡としては、出土数が多いところでは、壱岐市の原の辻遺跡、福岡市の諸岡遺跡、小郡市の三国丘陵の遺跡群（三国の鼻遺跡、横隈北田遺跡、横隈鍋倉遺跡）などがある。折衷土器は壱岐市の原の辻遺跡、佐賀平野の鍋島本村遺跡、増田遺跡群、小城市の土生遺跡、熊本市の八ノ坪遺跡、下関市の吉永遺跡などである（片岡2006・2007、林田2007、小南2007）。これらの遺跡は居住域からの出土が大半であるが、墓域から出土した事例もあり、上記のうちで増田遺跡群や八ノ坪遺跡、さらに福岡市の松木田遺跡、佐賀市の津留遺跡、小城市の自在遺跡などがある。

器種構成について確認すると、水石里式土器は、把手付壺、長頸壺、甕と鉢（円形粘土帯土器）、高坏がある。弥生土器は壺、甕、鉢、高坏である。ただし、弥生土器には大型の埋葬用の専用土器もある。水石里式土器の長頸壺、弥生土器では埋葬用の大型土器を除けば、器種の共通性があると考えて良い。

この折衷土器、いわゆる擬朝鮮系無文土器は、水石里式土器の各器種において認められる。土生遺跡出土の把手付壺には頸胴部界に弥生土器に見られる文様が施される。神埼市の切畑遺跡出の長頸壺は黒色磨研を残しつつも、頸胴部界に沈線を二条めぐらせるもので、これは韓半島ではみられない要素と思う。また胴部径との比較で、韓半島のものより頸部がやや太くなっていると思われる。また、九州で出土する壺に付く把手は組合式牛角形のもので、環状把手はない。これは、弥生土器には全くないものであり、粘土帯とともに無文土器の有無を確実に認識できる要素である。粘土帯土器である甕と鉢は、弥生土器の口縁部の仕上げのように横方向のナデ調整を口縁部内外全体、粘土帯の前面にも施すようになり、粘土帯の下側の胴部との間の隙間が失われてゆく。また粘土帯土器の胴部は弥生土器の甕や鉢よりも丸みが強く、底部は突出して外面に指頭圧痕が残っている。こういった形態的特徴も弥生土器に類似してくる。さらに胴部外面の器面調整痕であるハケメも見られるようになる。高坏は水石

里式の坏部が直線的に開くのに対して、口縁部付近に屈曲を有するようになるものがある。高坏については、後で別途述べ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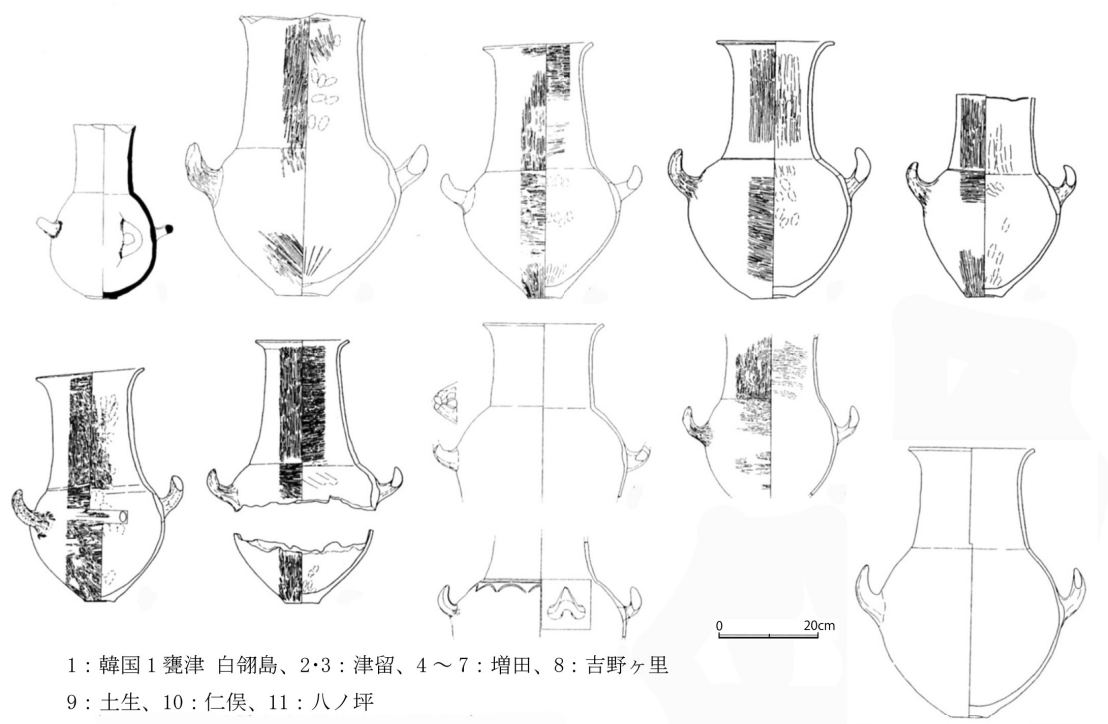
上記の折衷土器各器種の特徴は、これまで先行研究で明らかにされて指摘されてきたところである。それらの器種とは別に、組合式牛角形把手を、さらに長い頸部を有し、高さ数10cmの把手付長頸壺がある(図7)。私が事例を把握できていない可能性もあるが、韓半島では事例の少ない形態のものではないかと思う。比較的類似した形態のものは、甕津 白翎島出土で、黒色磨研され、環状把手を有する長頸壺だが、器高が35.5cmと九州のものよりもかなり低い。九州で独自に把手付壺と長頸壺の要素を併せ持つような器種として発達した器種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いる(川上2014)。

各器種は、それぞれに用途があって製作、使用されていたのだが、九州や、山口地区において、外来系土器であった水石里式土器と在地土器である弥生土器が折衷した土器が製作されたのは、製作者が本来製作している土器の器種に対応する器種を周囲の土器群の中で認識できたためである。そのため水石里式土器の各器種に弥生土器の形態的、製作技術的要素を持ったいわゆる擬朝鮮系無文土器が製作されたのである。

韓半島の無文土器が縄文時代晩期後半の夜臼Ⅰ式の段階で、北部九州の土器に影響を及ぼして、壺、甕が出現したことは、多くの研究で明らかにされてきたことは、先に述べた。その後、弥生土器は韓半島の無文土器の影響を受けることなく、前期末、中期初頭まで変遷してきたが、まだ壺、甕、鉢、高坏という器種構成であり、また各器種の分化をまだそれほど遂げずに、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共通性が、この時期には残っていたわけである。

(2) 高坏の増加について(図8)

水石里式土器や弥生土器との折衷土器が九州や山口地区から出土する時期の様相として、高坏について少し述べておきたい。先述のように後藤や片岡がすでに詳しく述べているが(後藤1979、片岡1993)、水石里式土器の高坏は、坏部が直線的に開くもので、弥生土器の場合は、坏部に粘土帯を付加して厚みをもたせて水平に屈折している。また、脚裾の開きも水石里式土器は比較的直線的であるのに比べて、弥生土器はやや曲線的に開く。の脚部の内が中実であるものは、水石里式土器やその折衷土器が出土する時期の弥生土器にはないが、韓半島南部の泗川 芳芝里遺跡や陝川 盈倉里遺跡などのように、脚部内に中空のものも多いことから見て、中空でないものも水石里式土器にあることは、注意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1: 韓国1 甕津 白翎島、2・3: 津留、4~7: 増田、8: 吉野ヶ里
9: 土生、10: 仁俣、11: 八ノ坪

図7 把手付長頸壺（水石里式土器の把手付壺と長頸壺が折衷、大型化）
(1/12)（報告書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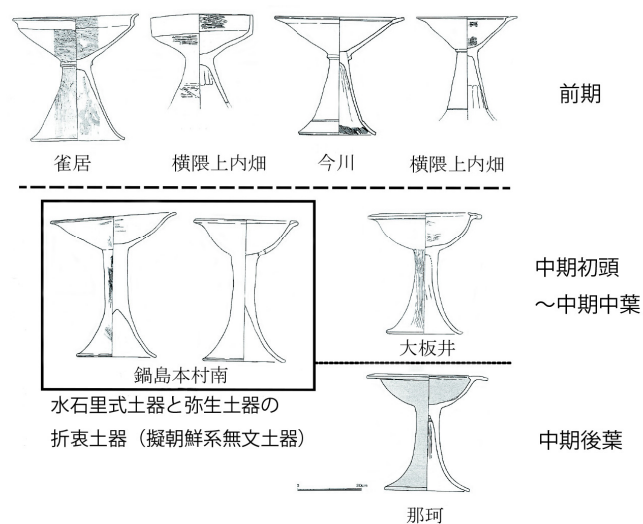


図8 北部九州 弥生時代前期、中期の高坏（報告書より）

高坏は韓半島中。南部において、水石里式土器の段階になり顕在化している器種と思われる（庄田2017では光州 新昌洞遺跡の出土土器の器種構成が示されている。）。列島側では縄文時代晩期の夜臼式から浅鉢に脚が付く形で存在している。弥生前期には夜臼式以来の屈折する坏部形態のものと、板付Ⅰ式から後の城ノ越式や須玖Ⅰ式、Ⅱ

式の鋤先口縁を有するものへと型式変遷を遂げる形態の二系統高坏が存在する。前者は弥生時代前期のうちに無くなる。器種構成の割合を自身で算出できていないが、山崎の示した板付遺跡における器種構成比率（山崎1980）を見ると、前期の段階ではその割合は高くない。そして、ちょうど粘土帯土器が出土する前期末、中期初頭よりも後の須玖Ⅰ式の時期に、次第に数が増える。特に水石里式土器との関係で述べれば、佐賀平野の鍋島本村南遺跡や増田遺跡群で、折衷土器の高坏が多く出土している。

以前に弥生時代中期以降に北部九州で高坏が増加、盛行することについて、韓半島でも高坏が多く存在する水石里式土器による影響がある可能性を指摘したことがある（川上2014）。韓半島でも、水石里式土器よりも以前の段階から、高坏が土器様式を構成する器種として述べられる場合があるものの、私の印象では極めて少ないように思う。ただし、北部九州では、縄文時代晩期の段階から、数量的には多くはないが、高坏は北部九州で存在している。

ところで、弥生時代前期の木製の高杯も列島西半部の各地でわずかであるが出土していて（例えば、山陰地域では中川寧の分析がある（中川2013）。）、土器の高坏との共存も想定される。つまり、高く盛る器種として、土器の高坏で我々が認識する以外に、弥生前期に木製の高杯も一定数存在した可能性があり、弥生土器における高坏としての器種の安定化については、木製の高杯との関係を検討も別に必要と考え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うすると、2014年に私が考えたように、単に水石里式土器の影響と単純に考えたことは、再考を要すると思われる。とはいえ、高坏の数量が増えるのは確かであり、水石里式土器以降に、韓半島南部が先行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が、近い時期に韓半島南部と日本列島西半部で高坏が盛行することは、何らかの背景を想定すべきであろうと考える。水石里式土器より前の韓半島南部の高坏の様相について、ご教示を諸兄にお願いしたい。

4. 靑島式土器が搬入される時期の弥生土器とその後

三角形粘土帯土器を指標とする靑島式土器（図9）は、弥生時代中期中葉の須玖Ⅰ式の時期以降後期中葉までに対馬、壱岐、北部九州、山陰まで広がって出土する。その様相は、おもに後藤（後藤1979、1987）、片岡（片岡1990、1991、1997）、そして李昌熙（李昌熙2009）等によって集成、分析されている。出土する器種は、粘土帯土器が圧倒的に多いのが特徴である。対馬市の三根遺跡では、多量の粘土帯が薄い多量の粘土帯土器とともに壺も出土している。また、壱岐市の原の辻遺跡でも把手付壺が出

土している。しかし、そのような事例は、列島では稀である。把手付壺や高坏が発掘調査で出土すれば、把手や坏部の形態が弥生土器には見られないものであるため、比較的容易に認識できるであろうが、これまで知られているのは、上記の事例を除けば、ほぼ三角形粘土帯土器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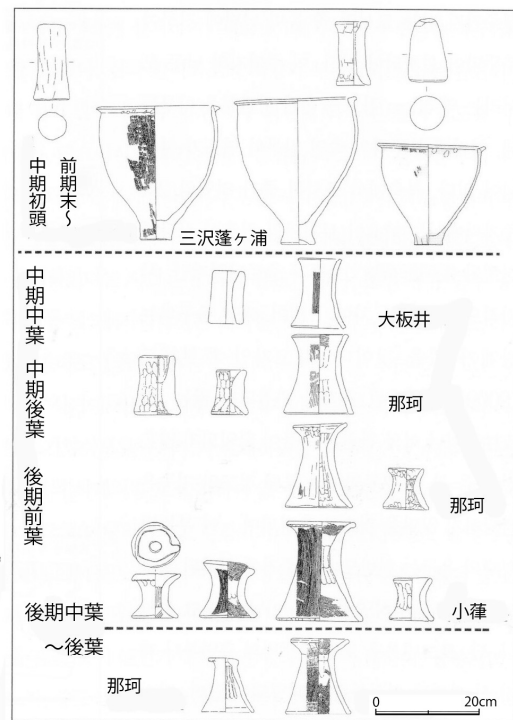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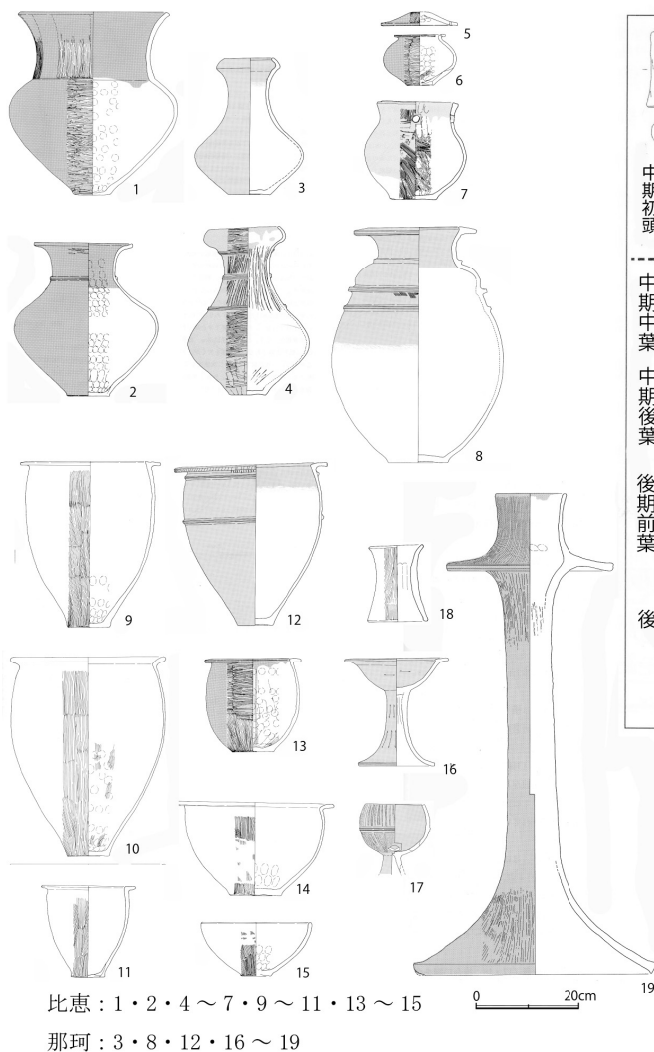
水石里式土器のように弥生土器との折衷は、列島側では宇部市の沖ノ山遺跡で出土した中国貨幣を内蔵した小型の甕以外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その一方で泗川 勒島遺跡では弥生土器や勒島式土器との折衷土器が多数出土していて、折衷土器が製作されるメカニズムが中園聡によって分析されている（中園1993）。まだ、この時期においても、水石里式土器の時期と同様に、相互に共通する用途を有した器種を認識できる段階であったと考えて良い。

だが、無文土器と弥生土器で用途が異なり、共通して存在しない器種も出現している。まず、勒島式土器の器種のうち甕は、日本列島では対馬市の太田原やモト遺跡やセノサエ遺跡でのみ出土事例が確認されている（李昌熙2009）。甕の使用は、その煮沸形態とも連動しており、日本列島では弥生土器の一器種として採用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煮沸形態の点から注目されるのは、弥生土器にのみ見られる支脚（または一部器台とされるもの）であり、前期末・中期初頭頃以降に事例がある。この問題については2014年に指摘したことがある（川上2014）（図11）。

勒島式土器が出土し始める時期の北部九州の弥生土器は、中期中葉の須玖Ⅰ式であるが、前の時期から比べると、器種分化が進む。特に壺は器種が増える。また高坏の種類も鋤先口縁を有する坏部だけでなく、素口縁の椀形の坏部のものも見られる。中期中葉の須玖Ⅰ式から次第に出現し始めるが、中期後葉の須玖Ⅱ式になると丹塗磨研された祭祀によく用いられたと思われる器種が安定して存在するようになる（図10）。

弥生時代中期後葉に併行する時期の韓半島南部では、還元焰焼成された土器も新たに生産されるようになり、酸化焰焼成された土器と共存するようになる。海峡を挟んだ両岸で、土器様式の差異が顕著になる。

前段階の水石里式土器と比べて、その出土器種に偏りがあることから、水石里式土器との出土の背景の違いは明らかで、李昌熙は交易に関係するものとみている（李昌熙2013）。もちろん、この三角形粘土帯そのものが交易品であったとは考えにくく、その内容物を運搬するための容器であったり、交易に携わった人達が使用したものであろう。



5. おわりに

以上、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関係について、時期を追って器種の展開を中心に述べてきた。弥生時代開始期の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器種構成の類似性は、完全には同じではなく緩やかなものであったが、水石里式土器が列島で出土する時点でも、折衷土器が製作できるほど、対応する器種が認識できる状況であった。その後、勒島式土器の段階になり、対馬や壱岐の資料は別の背景を想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列島側では甕や鉢にあたる三角形粘土帯土器のみの出土であり、折衷土器も半島側の勒島遺跡では集中的に多量に出土しているが、列島側ではほとんど製作されていないようである。

これらの違いは、おそらく製作者が海峡を越えて移動した先の土地で一定期間生活しているかどうかによるものであろう。勒島式土器の段階までは、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への移行期において、つまり先松菊里式と夜臼式Ⅰ式の段階で韓半島側の影響によって、列島側で新たな器種が成立して以来、共通基盤を有した韓半島の無文土器と弥生土器は、それ以降に相互に「似て非なる土器」（田中1986）として変化してゆく。そして、少しずつ双方で変化しつつも、酸化焰焼成された土器群からなり、まだ緩やかな共通した基盤を有する器種構成が存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しかし、この時期以降、両地域では土器の器種や焼成方法で、さらに異なる様相が顕在化していった。

参考文献（報告書は掲載せず）

（韓國語）

- 川上洋一 2014 「야요이 토기의 변화와 한반도에 토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야요이시대 전기말~후기의 일본열도 서반부, 특히 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6 韓國上古史學會
- 沈 秀娟, 2011 「嶺南地域 出土 豆形土器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79 韓國考古學會
- 安在皓 1992 「松里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第11號嶺南考古學學會 p.1-34
- 한국고고학회 2010 『개정 신판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日本語）

- 秋山浩三 2000 「近畿における無文土器系土器の評価」 『突帯文と遠賀川』 土器持寄
会論文集刊行会 p.1131-1163
- 安 在皓（訳：端野晋平 訳）2007 「韓国青銅器時代の時期区分」 『九州考古学』 第
82号 九州考古学会 p.47-63
- 片岡宏二 1988 「日本出土の朝鮮系無文土器集成」 『三国の鼻遺跡Ⅲ』 小都市文化財
調査報告書第43集、
小都市教育委員会
- 片岡宏二 1990 「日本出土の朝鮮系無文土器」 『古代史論集4 古代朝鮮と日本』 名
著出版 p.75-116
- 片岡宏二 1991 「日本出土の無文土器系土器」 『日韓交渉の考古学 弥生時代篇』 六
興出版 p.181-188
- 片岡宏二 1993 「朝鮮系無文土器の弥生土器化とその社会」 『MUSEUM』 503、ミュー
ジ ム出版 p.4-15
- 片岡宏二 1997 「渡来人集落」 『考古学による日本史-対外交渉』 雄山閣 p.103-110
- 片岡宏二 1999 「日本出土の松菊里型土器」 『弥生時代渡来人と土器・青銅器』 雄山
閣出版 p.64-81
- 片岡宏二 2006 『弥生時代渡来人から倭人社会へ』 雄山閣出版 p.75-109
- 片岡宏二 2007 「総論 弥生時代における渡来集団の問題」 『考古学ジャーナル』
No.568 p.3-8
- 川上洋一 2014 「九州出土の水石里式土器とその製作者集団に関する検討」 『研究紀
要』 第17集 財団法人由良大和古代文化研究協会 p.23-56
- 後藤直 1979 「朝鮮系無文土器」 『三上次男博士頌寿記念 東洋史・考古学論集』 朋

- 友書店 p.269-306
- 後藤 直 1980「朝鮮南部の丹塗磨研土器」『鏡山猛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叢』鏡山猛先生古稀記念論文集 刊行会 p.269-192-306
- 後藤 直 1987「朝鮮系無文土器再論－後期無文土器系について－」『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中』同朋社出版 p.325-328
- 後藤 直 1991「日本への影響」『日韓交渉の考古学 弥生時代篇』六興出版 p.31-35
- 後藤 直 2011「朝鮮半島無文土器と弥生土器の出会い」『異系統土器の出会い』同成社 p.27-47
- 小南裕一 2007「中国地方における無文土器関連資料と渡来系集団」『考古学ジャーナル』No.568 p.23-28
- 小南裕一 2009「縄文後・晩期土器と板付Ⅰ式土器」『弥生時代の考古学2 弥生文化誕生』同成社 p.91-104
- 庄田慎矢 2017「農耕の定着化と土器の器種構成の変化」『季刊考古学』第138号 雄山閣出版 p.47-50
- 田中良之 1986「縄文土器と弥生土器 西日本」『弥生文化の研究 3 弥生土器Ⅰ』雄山閣出版 p.115-125
- 中川 寧 2013「土製と木製の容器」『弥生土器研究の可能性を探る』弥生土器研究フォーラム2013 p.113-124
- 中園 聡 1993「折衷土器の製作者：韓国勒島遺跡における弥生土器と無文土器の折衷を事例として」『史淵』第130輯 九州大学文学部 p.1-29
- 中村大輔 2003「弥生文化早期における壺形土器の受容と展開」『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Ⅲ-1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刊行会 p.415-432
- 朴 淳發（訳：山本孝文） 2004「遼寧粘土帯文化の朝鮮半島定着過程」『福岡大学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会 p.107-127
- 端野晋平 2003「韓半島南部丹塗磨研壺の再検討－編年・研磨方向を中心として－」『九州考古学』第78号 九州考古学会 p.1-21
- 端野晋平 2009「無文土器文化からの影響－松菊里文化と弥生文化の形成－」『古代文化』第61巻第2号 古代学協会 p.247-257
- 端野晋平 2014「渡来文化の形成とその背景」『初期稲作文化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p.79-124
- 林田和人 2007「無文土器からみた中・南九州の渡来集団」『考古学ジャーナル』No.568 p.19-22

- 深澤芳樹・李 弘鐘 2004「松菊里式土器におけるタタキ技法の検討」『財団法人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日本民家集落博物館・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2年度共同研究成果報告書』財団法人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p.211-234
- 深澤芳樹・庄田慎矢 2009「先松菊里式・松菊里式と夜臼式・板付式土器」『弥生時代の考古学2 弥生文化誕生』同成社 p.172-183
- 藤尾慎一郎 1987「板付Ⅰ式甕形土器の成立とその背景」『史淵』第124輯 九州大学文学部 p.1-27
- 松尾奈緒子 2010「玄界灘沿岸地域における朝鮮半島系土器の様相1ー弥生時代前期末~中期初頭の様相ー」『第59回埋蔵文化財研究集会 日本出土の朝鮮半島系土器の再検討 発表要旨』埋蔵文化財研究会 p.27-44
- 三阪一徳 2014「土器からみた弥生時代開始過程」『初期稲作文化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p.125-174
- 家根祥多 1984「縄文土器から弥生土器へ」『縄文から弥生へ』帝塚山考古学研究所 p.49-78
- 家根祥多 1987「弥生土器のはじまりー遠賀川式土器の系譜とその成立ー」『季刊考古学』第19号 雄山閣出版 p.18-23
- 山崎純男 1980「弥生文化成立期における土器の編年的研究ー板付遺跡を中心としてみた福岡・早良平野の場合ー」『鏡山猛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叢』鏡山猛先生古稀記念論文集 刊行会 p.117-192
- 李昌熙 2009「在来人と渡来人」『弥生時代の考古学2 弥生文化誕生』同成社 p.204-224
- 李昌熙 2013「土器からみた交流ー加耶成立以前を中心にー」『訪日学術研究者論文集（2006年4月~2012年8月）』第19巻 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p.211-246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

川上洋一

目 次

1. 들어가며
2. 청동기시대 후반 북부큐슈 토기 양식 변화에의 영향
3. 수석리식토기의 큐슈지역 출토와 야요이토기와의 절충
4. 늑도식토기가 반입된 시기의 야요이토기와 그 후
5. 맺음말

1. 들어가며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 그리고 병행하는 일본열도의 야요이시대(弥生時代)에는 어느 지역이든 산화염소성의 토기가 제작,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무문토기가 야요이토기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되어 왔다. 또한 초기철기시대의 토기(수석리식토기)도 앞선 시기의 토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열도, 특히 북부큐슈(北部九州)와 중큐슈(中九州), 혼슈서단부(本州西端部)를 중심으로 출토되며, 야요이토기와의 절충토기(擬朝鮮系無文土器)가 보인다. 다만 다음의 늑도식토기가 되면, 야요이토기에서 옹이나 발에 해당하는 동일한 점토대토기여도, 야요이토기와의 관계가 일본열도 측(그 서반부)에서 변화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전 단계의 무문토기와 마찬가지로, 산화염소성의 수석리식토기와 늑도식토기(점토대토기와 세트를 이루는 그 외의 기종)까지를 무문토기로서 다루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라는 매우 큰 발표 제목을 의뢰받았는데, 야요이토기의 성립에 관련된, 한반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가 일본열도의 죠몽시대(縄文時代) 만기의 토기에 준 영향·야요이토기의 성립에 관해 필자는 지금까지 논문 등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실견한 자료도 매우 적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측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그 양상을 서술하고, 야요이시대가 개시되는 시기의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관계를 다음 검토의 전제로서 확인하도록 한다. 그 위에 이후 새롭게 한반도의 수석리식토기와 야요이토기가 접촉한 시기의 양상을 논하면서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도 1).

또한 2010년 한국고고학회가 편집, 간행한 『개정신판 한국고고학강의』에 의하면 수석리식토기에 해당되는 토기군은 초기철기시대의 토기로, 청동기시대의 토기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점토대토기의 계보에 관해서는 원래 요녕지방으로부터의 이주민이 제작한 토기라는 설(朴淳發 2004)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 무문토기와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기종도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무문토기로서 다루고자 한다.

2. 청동기시대 후반 북부큐슈 토기 양식 변화에의 영향

후쿠오카시(福岡市) 이타즈케유적(板付遺跡)의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山崎純男은 북부큐슈의 죠몽시대 만기 후반의 유우스식(夜臼式)과 야요이시대 전기의 이타즈케(板付) I 式の 공반관계를 검토하여 夜臼 I 式, 夜臼 II a 式 단계, 그리고 夜臼 II b 式과 板付 I 式の 공반을 밝혀내었다(山崎 1980). 그리고 한반도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의 선송국리식토기(安 2006)가 일본열도의 夜臼 I 式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폭넓게 논의되었다. 後藤直은 후쿠오카현(福岡県) 이토시마시(糸島市)의 마가리타유적(くり田遺跡)과 사가현(佐賀県) 가라츠시(唐津市) 나바다케유적(菜畑遺跡)에서 출토된 호와 무문토기 단도마연호와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後藤 1980, 1991), 그 후 中村大介(2003), 端野晋平(2003, 2014), 三阪一徳(2014)의 연구에서도 상세히 논의되었다. 옹에 대해서는 家根祥多가 무문토기의 옹이, 죠몽토기의 심발에 영향을 주어 성립된 야요이토기 옹의 조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家根 1984, 1987)(도 3),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점토띠의 접합 방향이 무문토기와 동일하게(외경) 변화하였다는 점 역시 이야기하였다. 藤尾慎一郎는 무문토기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조형옹(祖型甕)에서 후의 板付 I 式の 옹(板付 I 式)의 변천과정을 상세하게 논하였다(藤尾 1987). 三阪 역시 한반도 남부의 옹과 북부큐슈의 심발/옹

의 기형과 제작기법을 비교 검토하였다(三阪 2014).

이렇게 북부큐슈 板付 I 式の 호와 옹의 성립에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의 무문토기가 관여하였다는 점은, 그 양상이 밝혀져 왔다. 또한 야요이시대 전기에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의 송국리형토기 출토사례가 片岡宏二에 의해 집성, 분석되었다(片岡 1999). 이 시기에도 한반도 중남부의 무문토기가 열도에 파급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야요이토기 양식에의 영향은 거의 없다.

위에서 설명한 이 단계의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가 야요이토기에 준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의 출현과 함께 제작기법 등이 深澤芳樹와 庄田慎也에 의해 정리되었다(深澤·庄田 2009). 그 내용은 (1) 호의 출현, (2) 단도마연기법, (3) 외경형점토대적상법(外傾型粘土帶積上法), (4) 하케메(ハケメ)기법, (5) 타날(タタキ)기법(深澤·李弘鐘 2004)이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의 도입은 호가 출현하는 夜臼 I 式에 시작되었을 공산이 크다. 즉 북부큐슈의 토기제작이 한반도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서서히 변질되어 板付 I 式 이후의 토기가 성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무문토기의 영향을 받아 板付 I 式이 성립된 단계(도 2)에는 한반도 남부의 무문토기와 일본열도, 특히 북부큐슈의 야요이토기 기종구성(山崎 1980, 庄田 2017을 참고하였음)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호, 옹, 발로서, 이것에 일본 열도측에는 고배가 적은 수이지만 존재한다. 바로 야요이토기의 기본 기종이 갖추어지는 시기이다. 다만 한반도측의, 소위 송국리형토기와 같은 호와 옹의 구별이 어려운 토기가 야요이토기에는 없다. 또한 호 중에 문양을 가진 것이 있다는 점은 일본열도측의 특징이다.

북부큐슈에서 이러한 토기양식의 변화가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수는 재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다음에 설명할 수석리식토기의 제작자처럼 북부큐슈의 유적에 실제로 집단으로 도래한 사람들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3. 수석리식토기의 큐슈지역 출토와 야요이토기와의 절충

(1) 큐슈에서 출토되는 수석리식토기와 야요이토기와의 절충토기의 양상

초기철기시대의 토기로 비정되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포함한 토기양식인 수석리식토기가, 야요이시대 전기 말~중기 초두를 중심으로, 야요이토기와 절충된 것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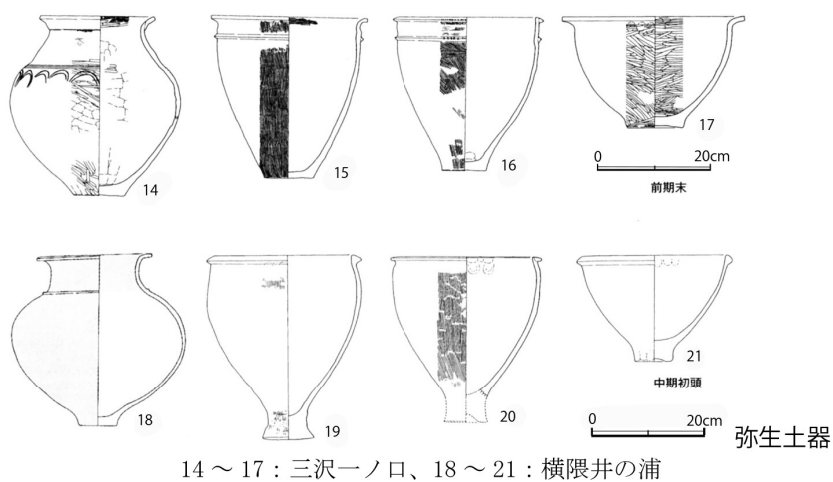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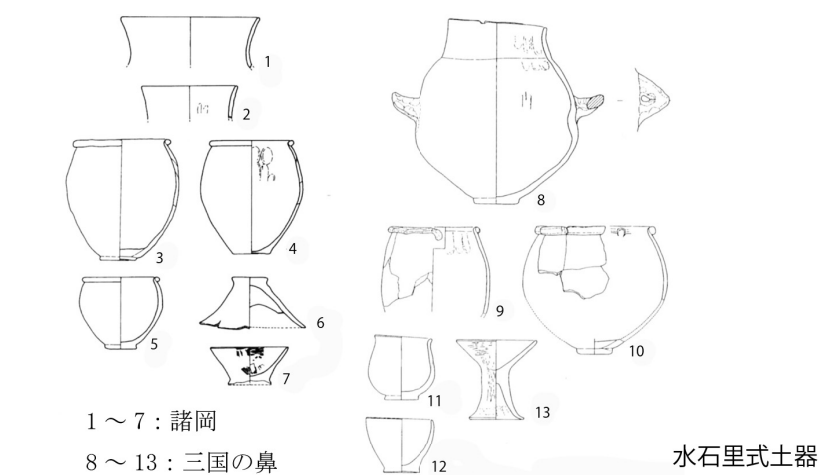


図5 北部九州出土の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
(1/12) (報告書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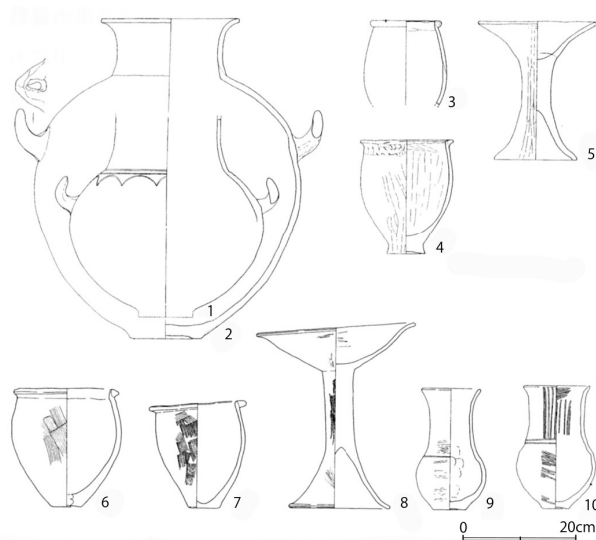


図6 北部九州出土の水石里式土器と弥生土器の折衷土器
(擬朝鮮系無文土器) (1/12) (報告書より)

하여 츠시마(對馬), 이키(壱岐), 北部九州, 中九州의 쿠마모토평야(熊本平野) 주변, 本州島西端部の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마네현(島根県)에서 출토된다(도 5~7).

일본열도의 이 토기에 관해서는 後藤直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後藤 1979)를 시도하였다. 後藤은 한반도계무문토기(朝鮮系無文土器)라는 용어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후에도 後藤에 의한 연구(後藤 1987, 2011)와 함께 片岡宏二에 의해서도 정력적으로 집성, 분석이 이루어졌다(片岡 1988, 1990, 1991, 1993, 1997). 또한 최근에는 李昌熙에 의한 한반도의 양상을 포함한 검토(李 2009)와 松尾奈緒子에 의한 현해탄 연안지역의 자료 검토(松尾 2010)가 있으며, 川上도 출토유적과 유구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川上 2012)하였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수석리식토기에 관해 중요한 것은, ① 한반도와 동일한 기종이 갖추어져서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② 야요이토기와 절충토기(擬朝鮮系無文土器)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석리식토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출토되는 유적 중 출토수가 많은 곳으로는 壱岐市の 하루노츠지유적(原の辻遺跡), 福岡市の 모로오카유적(諸岡遺跡), 오고리시(小郡市)의 미쿠니구릉(三国丘陵)의 유적군(미쿠니노하나유적(三国の鼻遺跡), 요코구마키타다유적(横隈北田遺跡), 요코구마나베쿠라유적(横隈鍋倉遺跡)) 등이 있다. 절충토기가 출토되는 곳은 壱岐市の 原の辻遺跡, 사가평야(佐賀平野)의 나베시마혼손유적(鍋島本村遺跡), 마스다유적군(増田遺跡群), 오기시(小城市)의 하부유적(土生遺跡), 熊本市의 하치노츠보유적(八ノ坪遺跡), 시모노세키시(下関市)의 요시나가유적(吉永遺跡) 등이다(片岡 2006·2007, 林田 2007, 小南 2007). 이들 유적은 거주구역에서 출토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묘역에서 출토되는 사례도 있는데, 위의 유적 중에서 増田遺跡群과 八ノ坪遺跡, 그리고 福岡市の 마즈키다유적(松木田遺跡), 佐賀市の 츠루유적(津留遺跡), 小城市의 지자이유적(自在遺跡) 등이다.

기종구성에 대해 확인해본다면, 수석리식토기는 파수부호, 장경호, 옹과 발(원형 점토대토기), 고배가 있다. 야요이토기는 호, 옹, 발, 고배이다. 다만 야요이토기에는 대형의 매장용 전용 토기도 있다. 수석리식토기의 장경호, 야요이토기에서는 매장용의 대형토기를 제외한다면 기종의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절충토기, 소위 擬朝鮮系無文土器는 수석리식토기의 각 기종에서 확인된다. 土生遺跡 출토 파수부호에는, 경부와 동체부 경계에 야요이토기에 보이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칸자키시(神埼市)의 키리하타유적(切畑遺跡) 출토 장경호는 흑색마연의 흔적이 있으면서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에 침선을 2조 돌린 것으로, 이것은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로 생각된다. 또한 동체부 직경을 비교하면 한반도의 것보다 경부가 조금 굵다고 생각된다. 또한 큐슈에서 출토되는 호에 붙는 파수는 조

합식우각형의 것으로 환상파수는 없다. 이것은 야요이토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점토대와 함께 무문토기의 유무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점토대토기인 옹과 발은, 야요이토기의 구연부 마무리처럼 횡방향의 물손질조정을 구연부 내외 전체, 점토대의 전면(前面)에도 베풀게 되고, 점토대 아래측, 동체부와와의 사이 틈새가 없어진다. 또한 점토대토기의 동체부는 야요이토기의 옹과 발보다 더 부풀어지고, 저부는 돌출하여 외면에 지두압흔이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은 형태적 특징도 야요이토기와 유사해진다. 또한 동체부 외면의 기면 조정흔인 하케메 역시 보이게 된다. 고배는 수석리식의 배부(坏部)가 직선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비해, 구연부 부근에 굴곡을 가진 것이 있다. 고배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한다.

위에서 설명한 절충토기 각 기종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확인,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기종과는 별개로 조합식우각형파수의, 더 긴 경부를 가진 높이 수 십 cm 의 파수부장경호가 있다(도 7). 발표자가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사례가 적은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것은 옹진 백령도 출토의 것으로, 흑색마연되고 환상파수를 가진 장경호인데, 기고가 35.5cm로 큐슈의 것보다 상당히 낮다. 큐슈에서 독자적으로 파수부호와 장경호의 요소를 같이 가진 듯한 기종으로 발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川上 2014).

각 기종은 각각 용도가 있어 제작, 사용되었는데, 큐슈나 야마구치지구(山口地区)에서 외래계토기인 수석리식토기와 재지토기인 야요이토기가 절충된 토기가 제작된 것은, 제작자가 본래 제작하였던 토기의 기종에 대응하는 기종을 주위의 토기군 중에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석리식토기의 각 기종에 야요이토기의 형태적, 제작기술적 요소를 가진, 소위 擬朝鮮系無文土器가 제작된 것이다.

한반도의 무문토기가, 조몽시대 만기 후반의 夜臼Ⅰ式の 단계에 북부큐슈의 토기에 영향을 주어 호, 옹이 출현하였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는 점은 앞서 설명하였다. 그 후 야요이토기는 한반도 무문토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기말, 중기 초두까지 변천하였는데, 계속해서 호, 옹, 발, 고배의 기종 구성이며, 또한 각 기종의 분화가 아직 그다지 완성되지 못하고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공통성이 이 시기에는 남겨져 있던 것이다.

(2) 고배의 증가에 관하여(도 8)

수석리식토기나 야요이토기와의 절충토기가 큐슈와 山口地区에서 출토되는 시기

의 양상으로서, 고배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後藤과 片岡가 이미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後藤 1979, 片岡 1993), 수석리식토기의 고배는 배부(坏部)가 직선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야요이토기의 경우는 배부에 점토대를 부가해서 두껍게 하였으며 수평으로 꺾여져 있다. 또한 각부 역시 수석리식토기는 비교적 직선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비해 야요이토기는 조금 곡선적으로 벌어진다. 각부 내부가 충전되어 있는 것은 수석리식토기와 그 절충토기가 출토되는 시기의 야요이토기에는 없는데, 한반도 남부 사천 방지리유적과 합천 영창리유적 등과 같이 각부 안이 비어있는 것도 많은 점에서 볼 때, 비어있지 않은 것도 수석리식토기에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고배는 한반도 중남부에서 수석리식토기의 단계에 들어와 현저해지는 기종으로 생각된다(庄田 2017에는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토기의 기종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열도측에서는 죠훑시대 만기의 夜臼式부터 천발에 다리가 달린 형태로 존재한다. 야요이 전기에는 夜臼式 아래의 굴절되는 배부 형태의 것과, 板付Ⅰ式에서 다음의 죠노코시식(城ノ越式)과 수구(須玖)Ⅰ式, Ⅱ式の 鍬先口縁을 가진 것으로 형식변천을 이루는 형태의 2 계통 고배가 존재한다. 전자는 야요이시대 전기 중에 없어진다. 기종 구성의 비율을 발표자가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山崎가 제시한 板付遺跡의 기종 구성 비율(山崎 1980)을 보면, 전기 단계에는 그 비율이 높지 않다. 그리고 바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전기 말, 중기 초두보다 이후의 須玖Ⅰ式 시기에 점차 그 수가 늘어난다. 특히 수석리식토기와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佐賀平野의 鍋島本村南遺跡과 増田遺跡群에서 절충토기 고배가 많이 출토된다.

야요이시대 중기 이후 북부큐슈에서 고배가 증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에도 고배가 많이 존재하는 수석리식토기에 의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이전에 지적한 적이 있다(川上 2014). 한반도에서도 수석리식토기 이전의 단계부터 고배가 토기양식을 구성하는 기종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발표자의 인상에는 극히 적은 듯이 생각된다. 다만 북부큐슈에서는 죠훑시대 만기 단계부터 수량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고배가 존재한다.

그런데 야요이시대 전기의 목제 고배도 일본열도 서반부의 각지에서 조금이지만 출토되고 있어(예를 들어 산인지역(山陰地域)에는 中川寧의 분석이 있다(中川 2013)), 토기 고배와의 공존도 상정된다. 즉 높이 쌓아올리는 기종으로 토기 고배를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 이외에, 야요이 전기에 목제의 고배도 일정 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야요이토기에서 고배로서의 기종 안정화에 대해서는 목제 고배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발표자가 생각하였듯이, 단순히 수석리식토기의 영향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것은 재

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고배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수석리식토기 이후, 한반도 남부가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서반부에 고배가 성행한 것에는 무언가의 배경을 상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수석리식토기 이전의 한반도 남부 고배의 양상에 대해서는 교시를 부탁드린다.

4. 늑도식토기가 반입된 시기의 야요이토기와 그 후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지표로 하는 늑도식토기(도 9)는, 야요이시대 중기 중엽 須玖 I 式の 시기 이후 후기 중엽까지 対馬, 壱岐, 北部九州, 山陰까지 퍼져 출토된다. 그 양상은 주로 後藤(後藤 1979, 1987), 片岡(片岡 1990, 1991, 1997), 그리고 李昌熙(李昌熙 2009) 등에 의해 집성, 분석되었다. 출토되는 기종은 점토대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対馬市の 미네유적(三根遺跡)에는 다량의 점토대가 얇은 점토대토기와 함께 호 역시 출토된다. 또한 壱岐市の 原の辻遺跡에서도 파수부호가 출토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일본열도에서는 드문 것이다. 파수부호와 고배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다면 파수와 배부의 형태가 야요이토기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비교적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위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삼각형점토대토기이다.

수석리식토기와 같은 야요이토기와 절충은, 일본열도에서는 우베시(宇部市)의 오키노야마유적(沖ノ山遺跡)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가 들어 있는 소형의 용 이외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사천 늑도유적에서는 야요이토기나 늑도식토기와 절충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어, 절충토기가 제작된 메카니즘을 中園聡가 분석하였다(中園聡 1993). 아직 이 시기에도 수석리식토기 시기와 마찬가지로 상호 공통되는 용도를 가진 기종을 인식할 수 있었던 단계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에 용도가 달라서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종도 출현한다. 우선 늑도식토기의 기종 중 시루는, 일본열도에서는 対馬市の 오다하루야모토유적(太田原ヤモト遺跡)과 세노사에유적(セノサエ遺跡)에서만 출토사례가 확인되고 있다(李昌熙 2009). 시루의 사용은 그 자비 형태와도 연동되어 있으며, 일본열도에서는 야요이토기의 한 기종으로서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자비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야요이토기에만 보이는 지각(支脚)(또는 일부 기대(器台)로 여겨지는 것)으로, 전기 말, 중기 초두 경 이후에 사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에 지적한 적이 있다(川上 2014)(도 11).

늑도식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북부큐슈 야요이토기는 중기 중엽의 須玖 I 式인데,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기종 분화가 진전된다. 특히 호는 기종이 늘어난다. 또한 고배의 종류도 鋤先口縁을 가진 배부(坏部)뿐 아니라, 素口縁의 완형(碗形)의 배부의 것도 보인다. 중기 중엽의 須玖 I 式부터 점차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중기 후엽의 須玖 II 式이 되면 단도마연되고 제사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기종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도 10).

야요이시대 중기 후엽에 병행하는 시기의 한반도 남부에는 환원염소성된 토기도 새롭게 생산되고 산화염소성된 토기와 공존하게 된다. 해협을 사이에 둔 양 지역에서 토기양식의 차이가 현저해진다.

전단계의 수석리식토기와 비교해, 그 출토 기종에 편중이 있다는 점에서 수석리식토기와 출토 배경의 차이는 명확하며, 李昌熙는 교역에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昌熙 2013). 물론 이 삼각형점토대 그 자체가 교역품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기였거나 교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물건일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관계에 대해, 시기를 따라 기종 전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야요이시대 개시기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기종구성의 유사성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느슨한 것이었지만, 수석리식토기가 일본열도에 출토되는 시점에도 절충토기가 제작될 정도로 대응하는 기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늑도식토기 단계가 되면 対馬나 壱岐의 자료는 별도의 배경을 상정하여야 하지만, 일본 열도측에서는 옹과 발에 해당하는 삼각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되며, 절충토기 역시 한반도측의 늑도유적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는데 일본열도측에서는 거의 제작되지 않는 듯하다.

이 차이는 아마 제작자가 해협을 넘어서 이동한 곳의 토지에 일정 기간 생활하였는지 어떤지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늑도식토기의 단계까지는, 죠통시대에서 야요이시대로의 이행기, 즉 선송국리식과 夜臼式 I 式の 단계에 한반도측의 영향으로 일본열도측에 새로운 기종이 성립된 이래, 공통기반을 가진 한반도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는 그 이후에 상호 「비슷하나 다른 토기(田中 1986)」로 변화해간다. 그리고 조금씩 쌍방에서 변화하면서 산화염소성된 토기군으로 이루어진, 아직 조금의 공통된 기반을 가진 기종구성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양 지역에서는 토기의 기종과 소성방법에 다른 양상이 현저화되었다.

한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발전

허 의 행
한국고고환경연구소

目 次

- I. 생업경제 연구
- II. (조)전·후기의 생업경제의 모습
 - 1. 농업
 - 2. 어업
 - 3. 수렵과 채집
 - 4. 기타
- III. 생업경제의 변화와 발전
- IV. 맺음말

I. 생업경제 연구

생업은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로서 벌이, 직업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생계는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의 의미로서, 흔히 먹고 사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생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업적 의미를 갖는 산업, 일을 추적하여야 한다. 청동기시대 생업의 접근은 대체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파생된 업종의 논의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즉, 생업과 관련한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결국 청동기시대 농경과 어로, 수렵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뿐 새로운 시각의 논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간의 생업 관련한 논의도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연구주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정이다.

① 개별유적의 입지나 그곳에서의 토양 특성을 살펴보고 생업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곽중철 1993; 김권구 2001; 金度憲·李在熙 2004; 김현준 1996; 안재호 2000; 許義行 2006; 이홍중·허의행 2010), ② 유적에서 출토된 도구의 출토비와 조성비를 통한 생업양상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孫峻鎬 2006·2008; 허의행·오규진 2006; 이홍중·허의행 2010)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농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③ 동식물 유체와 생업의 관계를 접근하는 것으로서 자연과학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도작 중심의 농업연구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곽승기 2017; 안덕임 2006; 이준정 2009). 나아가 ④ 생업연구의 틀을 정치경제적 관점까지 끌어올려 생업경제가 내포한 다양한 논의의 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金範哲 2005; 김장석 2008). 그러나 ⑤ 생업으로서 농경의 모습은 타 지역 또는 이웃한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당연한 생업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즉, 농경의 중국으로부터의 도입, 이를 일본으로 전파하였다는 농경의 중간지대로서 한국의 청동기시대 생업방식을 바라보며, 큰 차이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의 농경의 생업모습을 비교하기에는 논밭 등의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일본과의 생업방식 비교는 증거는 많으나 한국만의 특이한 모습을 관찰할 수 없어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생업방식 접근에 한계를 느낀다.

결국 본 발표는 한반도 청동기시대 생업의 모습과 이의 발전 모습에 한정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물론 생업방식의 비교 자체가 나라별로도 쉽지 않아 한국 청동기시대의 생업에 대한 논의도 기존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생업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된 상태이며 특별한 논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그간의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생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표자가 느끼는 비판적인 견해를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II. (조)전·후기의 생업경제 모습

1. 농업(농경)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연구의 핵심은 농업이다. 그 중에서도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전의 농경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반도

로의 도입시기, 도작의 전파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별, 시기별 구체적인 농경의 모습을 파악하여 생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밭 경작지의 조사와 주거지 내부의 토양에 대한 부유선별법을 통해 농경자료를 획득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더욱 구체적인 농경 방식의 접근과 당시의 농업의 생업 모습에 다가서고 있다.

경작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논밭의 조성시기와 생산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 진주 대평리유적의 밭 조사를 시작으로 울산 옥현유적과 논산 마전리유적 등지에서 논의 존재가 본격 확인되면서 청동기시대 농경을 통한 농업의 보편화의 본격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곽종철 1995, 1996, 1997; 이홍종 1996, 1999, 2000).

경작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밭을 대상으로 형태 분류에 대한 논의(李相吉 2000; 송영진 2001; 곽종철 2001; 金炳燮 2003; 윤호필·고민정 2006)를 기점으로, 농경기술과 작법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로까지 확대되어 나아갔다(李相吉 2000; 곽종철 2001; 金炳燮 2003·2009; 崔德卿 2002; 李賢惠 2002; 大庭重信 2009; 金度憲 2006; 윤호필 2009). 하지만 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종류, 작물의 소비와 유통, 분배 문제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구릉지와 충적평야 내 입지한 밭의 기능적 차이, 논에서 전환한 밭의 구조적·기능적 검토, 재배 작물별 작부 방식의 차이에 대한 언급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수전지(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 특히 논의 등장은 청동기시대 사회·문화 전반을 바꾼 중요한 사건으로서 전기에서 후기로의 시대를 변화시킨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마 기존의 단순한 밭 재배 방식을 탈피한 더 복잡한 농업적 지식과 경험, 기술적 요인을 구비하여야 하는 여러 이유가 수전지에 작동하였기 때문이다²⁾(이홍종 2000: 2). 따라서 생업경제의 발전과 변화의 핵심은 도작농경의 도입과 확산이라는 틀에서 언급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전의 등장은 현재까지의 발굴조사와 연구성과 등을 통해 늦어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늦은 시기부터로 파악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업으로서 본격화하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보편적으로 운용된 시기는 여전히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1) 비록 지금은 발굴조사와 그 논의가 시들한 면이 있긴 하다.

2) 적합한 지형, 기후 등의 자연의 조건 외에도 농경을 영위할만한 관개시설, 논 구획, 농구의 제작 등과 같은 기술수준의 확립이라든가, 수확물의 보관을 위한 장소, 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의 확보 등과 같은 총체적 여러 요인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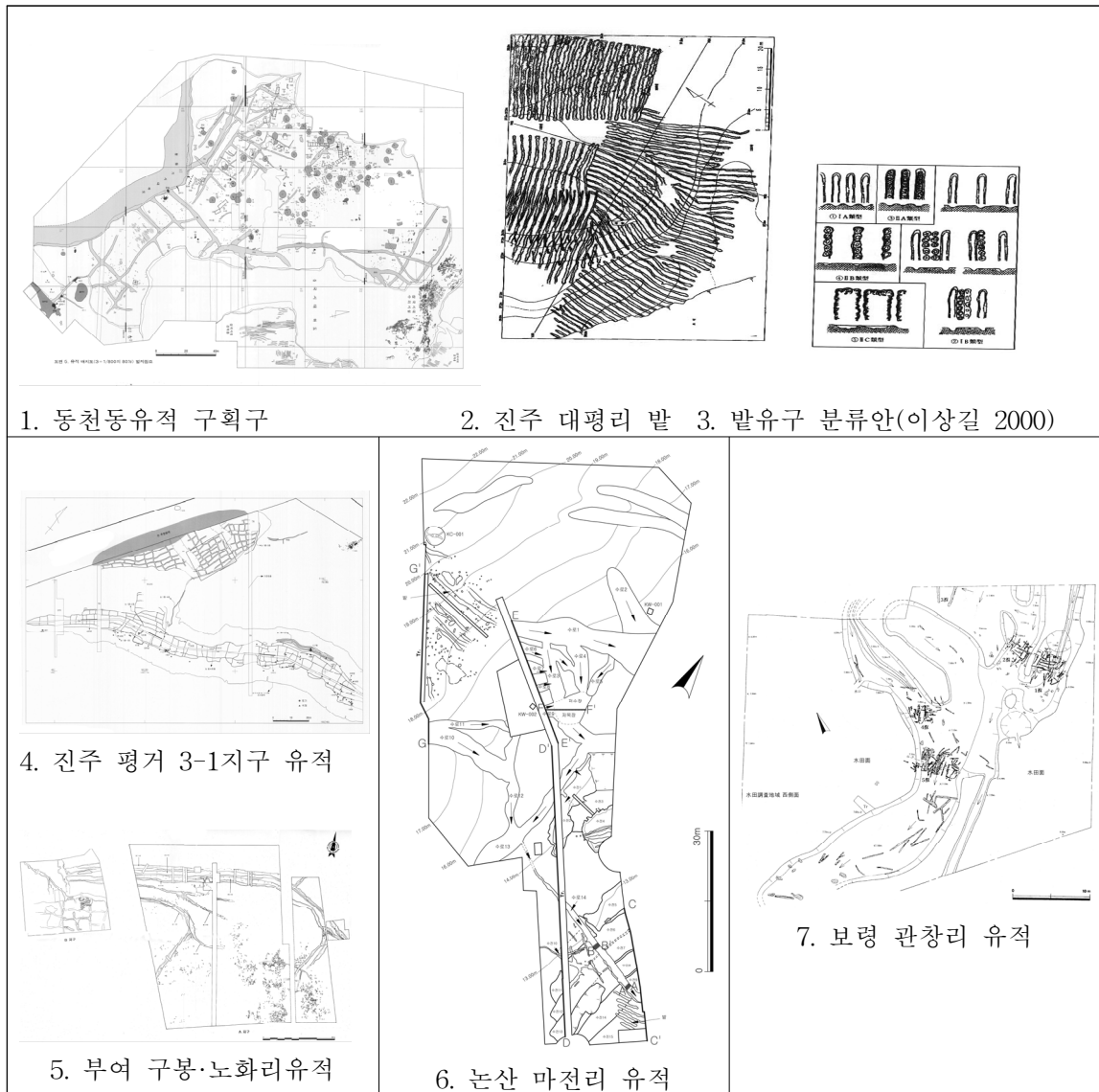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 田作址(上)와 水田址(下)(縮尺不同)

이처럼 생업으로서 청동기시대 보편화된 농업의 등장과 확산의 증거를 경작지에서 찾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역별 생업 및 생계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취락의 주거지 등에서 확인되는 식물유체의 모습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식물유체를 정리한 결과를 보면(안승모 2015), 뚜렷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클 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동기시대 북한지역, 구체적으로 평양의 이북지역에서는 주로 조, 수수의 조성비가 높게 확인된다. 하지만 그 이남으로는 벼와 함께 두류의 흔적이 많이 관찰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청동기시대 전·후기 편년 설정이 명확치 않고 위의 곡물 자료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해석은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벼 재배의 한계

선인 북위 40도를 기준으로 한 평양 이북지역의 농업양상이 잡곡위주의 전작중심의 생업적 모습인데, 이는 중국동북지역의 건지농업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趙志軍 2015). 아마도 중국지역과의 생업양상의 유사한 모습과 연관될 수 있는 자료이다.

남한지역으로 내려오면 상당한 곡물자료의 축적으로 인해 지역별로 농경의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그림 1>.

서울·경기의 가평 등 북한강유역에서는 전·후기 모두 벼과 식물의 흔적은 적고 콩속의 작물재배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아마도 북한의 평양 이남지역과 작물조성상의 유사성이 추정된다. 반면에 한강을 둘러싼 여주 혼암리의 남한강 지역은 주로 전기 주거지에서 벼의 작물유체가 확인되고 있어 지역별 차이를 희미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지표를 명확히 할 자료가 적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호서지역은 농경의 흔적과 지역별 차이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전기와 후기의 작물조성을 보면 두 시기 모두 벼를 중심으로 한 생계의 모습이 추정되지만 잡곡과 두류의 조성상에 차이가 있다(안승모 2008). 전기에는 큰 차이를 지역별로 볼 수 없지만, 후기에는 그 특징이 조금 더 뚜렷하다. 서해안의 당진(당진 자개리1유적), 서천(월기리, 도삼리유적)지역의 후기 주거지에서는 콩·팥 등의 두류가 많이 확인되는 반면 부여지역의 후기 주거지에서는 전기의 작물로 많이 확인되는 조, 기장이 벼와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호서지역이 벼를 중심으로 한 도작 생업과 생계를 주로 하지만, 세부 작물의 조성차이를 보면 전기의 생업 요소가 이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리한 논리일 수 있겠지만 서해안 지역의 전기 고고학적 요소와 후기의 고고학적 요소의 접촉 흔적이 보이는(이흥중 2005), 송국리유형 형성지역 문제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식물유체의 수가 매우 적어 분석은 어렵다. 다만 전라도의 전후기 주거지에서 벼가 상당수 확인되고 이외의 작물유체는 잘 확인되지 않는 데, 전라도만의 지역적, 환경적 원인인지, 생업 방식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상도는 경북과 경남 등의 지역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경북·울산지역의 후기 주거지에서는 조, 기장, 벼가 고루 확인되지만, 다운동 2유적에서는 두류가 다량 확인되고 있어 특이한 결과이다. 경남·진주지역의 전기에는 조·기장 중심의 작물유체가 많고 벼가 소수 확인되는 모습이지만 후기 들어 벼를 중심으로 하면서 조, 기장, 두류 등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다. 울산 등의 여러 지역에서 수전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곳에서의 생산성은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작물유체 분석을 보면 벼 중심의 생업방식이 주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상기 지역은 1~2종류의 작물 위

주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작물이 고루 확인되는 모습에서 남부지역만의 호조
 건 기후 영향이 다양한 작물유체의 재배와 생산을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지역은 춘천 천전리유적의 반구상 경작유구에서 벼규소체가 다량 확인됨으
 로 인해 도작의 존재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경작유구의 형태가 전형적인 논 구조
 가 아니라는 점에서 농경방식과 이곳에서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
 요하다. 그래야만 수도작 중심의 생업인지 타 생업적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천전리 경작유구는 호서지역의 대평리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전기 이른 시기부터 단순한 형태의 논경작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논 경작지를 통한 농경산물의 집약화 모습을 살피기는 경작지 구
 조에 의문이 있어 벼 중심의 생업방식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마천
 가지로 영동지역도 유사한 농경 생업의 모습이다.

이상 농업의 모습을 유구와 유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것은 농경의 생업
 방식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농경의 구체적 증거인 경작지
 또한 조사사례가 많지 않지만 구조적 형태가 호서와 경상도 지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적 차이인지, 벼 산출의 생산성 문제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
 요해 보인다. 하지만 호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논 의 구조와 관개시설의 모습(허의행
 2012)을 보면 생산성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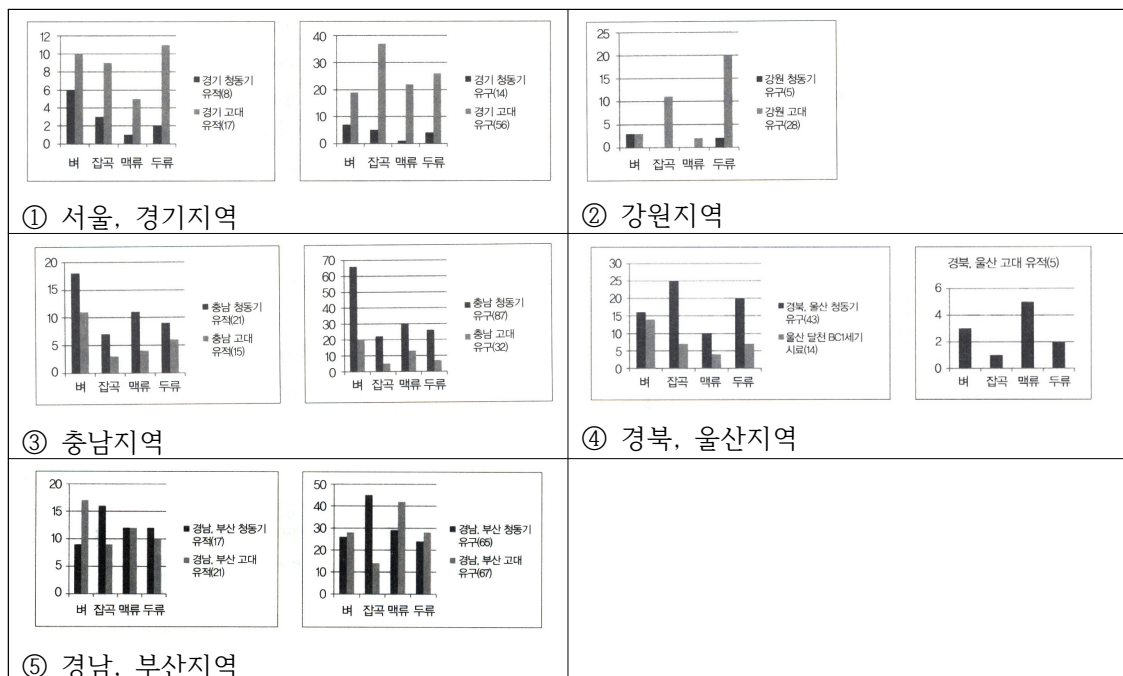


그림 1.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작물유체 조성(안승모 2013:78-92 그림에서 편집)

2. 어업(어로)

청동기시대 어업에 대한 논의는 하천과 바다에 인접한 입지를 통해 취락의 모습을 파악하거나, 위 장소와는 떨어진 곳에 자리한 취락 내 어망추나 낚시용 도구의 확인을 통해 어업의 모습을 파악한다. 또한 어로 관련 유물의 형태와 크기, 양 등을 비교하여 취락의 어로 방식 등의 모습을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어망추를 통한 연구가 많은데, 출토량의 다소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어로의 변화요인을 농경의 본격화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김도현·권지영 2002: 115-119; 金姓旭 2008: 14-15). 생업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어구의 조성, 크기, 형태의 차이가 어로 환경 곧 포획 어종의 차이를 가져와 대형의 어패류를 노린 외양 내 만성 어로 중심에서 청동기시대 들어 토제어망추를 이용한 내수면 어로활동으로 전환되었음을 파악하기도 한다(金姓旭 2008: 11).

생업으로서 생계의 모습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서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는 패층을 분석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다. 더구나 봄-가을에는 도미를 중심으로 한 어업에서, 가을-이듬해 봄에는 굴을 중심으로 하는 패류 채집 중심의 어업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金姓旭 2008: 13). 특히 이 시기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한 굴의 취식을 언급하기도 한다(신숙현 2015: 61).

이처럼 청동기시대 해안에 입지한 취락의 생업에 대한 모습은 주로 어로와 연관하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서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식물유체 등의 모습을 통해 보면 농경의 도입(김건수 1999; 김도현·권지영 2002; 이흥중 1999)과 함께 이에 맞춘 어패류의 섭취로 생계방식의 전환 모습을 살피기도 한다.

여하튼 청동기시대 어업은 분명 한반도의 전 지역의 모든 취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장소와 입지를 갖춘 취락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들어와 다양한 생업환경이 나타나지만 어업은 일부 집단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김성욱 2008: 14). 다만 주목할 것은 어로를 주로 하지 않은 농업 집단에서도 수전을 통한 담수어 방식의 존재 가능성은 있다(甲元眞之 2002; 김성욱 2008; 안재호 2010: 165). 수전 연구를 농업의 관점에서만 보는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³⁾. 더불어 어업을 주로 하는 해안가 입지 취락 내 소금의 생산이나 이의 유통 등과 같은 다양한 생업경제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실제로 수전지에 물을 담수하여 물고기를 기르고 가을에 물을 빼내면서 물고기를 잡아 생업을 유지한 사례가 중국 등의 민속사례에서 알려지고 있어, 수전지에서의 토양 및 유체 분석 등의 여러 자연과학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수렵과 채집

청동기시대 농경의 확산으로 인해 벼를 위시한 재배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을 것이지만 여전히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육상동물의 섭취도 같이 하였을 것이다(안덕임 2006: 16, 곽승기 2017: 70). 농경을 통한 영양소 보충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단백질과 같은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안승모 2008).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생업도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규모 경작과 함께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의 먹거리 해결은 늘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서현 2016). 그러한 수렵의 흔적으로는 함정과 수렵도구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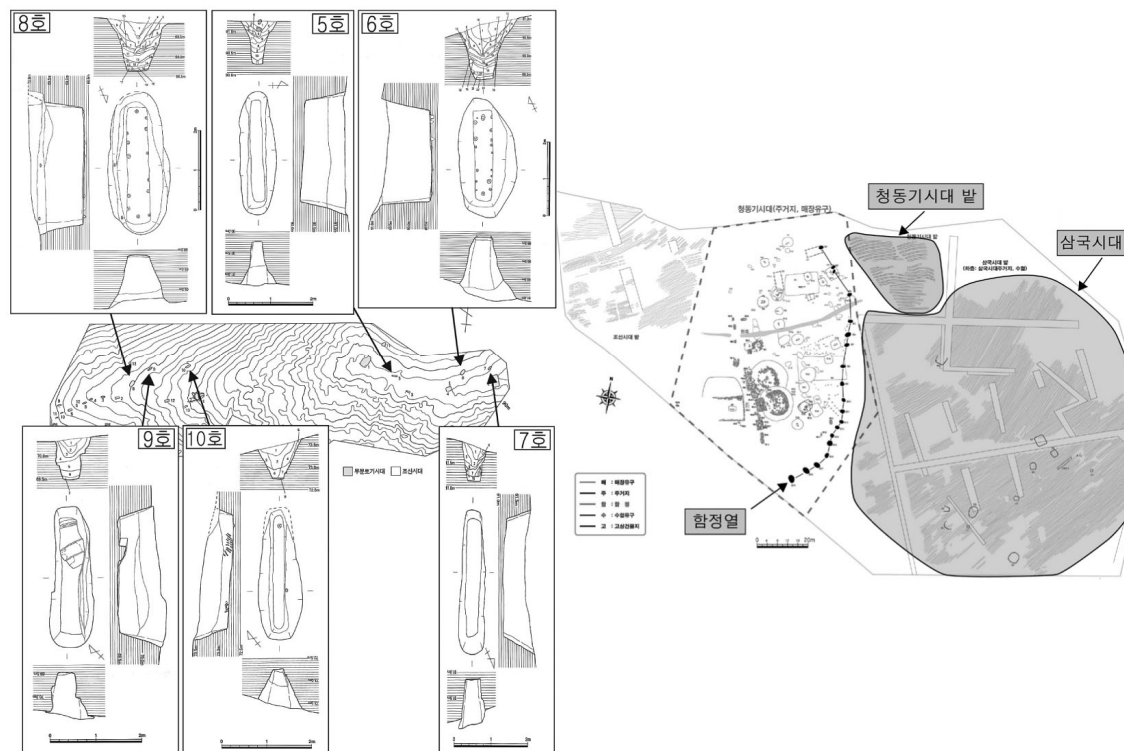


그림 2. 청동기시대 함정의 모습과 입지에 따른 배치(左下: 구릉형, 右下: 평지형) (김권중 2010에서 도면 발췌)

함정은 수렵 시설물의 대표로서 크게 평지형과 구릉형의 두 형태로 구분한다. 평지형 함정은 취락의 내·외부에 배치하여 경작지를 보호하고(김도현 2005), 구릉형 함정은 이동로에 배치하면서 동물을 포획하는 목적이 강하다(김권중 2010: 11). 대체적인 시기는 평지형이 빠르고 구릉형이 느린 것으로 판단하며, 기능은 방어의 목적에서 순수 수렵의 목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김권중 2010: 14). 이들의

등장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본격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데(김권중 2010: 13-14), 대부분의 모든 취락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취락에서만 관찰되는 점에서 전업방식의 취락을 생각할 수 있으나, 수렵도구로서 석촉등의 도구가 대부분의 취락에서 모두 비슷한 비율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수렵은 전업적 모습보다는 생계적 방식의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반면 채집은 생업적인 면에서 청동기시대 들어 그 빈도는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며, 생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신석기시대부터 주요한 식량자원으로 나타나는 도토리 등의 견과류는 일부 지역과 취락 등에서 그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보편화된 모습은 없다. 작물재배 등의 농경이 진행되면서 그다지 주요한 먹거리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안승모 2012). 하지만 마전리유적이거나 기타 저습지유적 일부에서 복숭아 등의 과실류 등이 확인되고 있어 채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채집대상으로서 과실류 등의 증가는 청동기시대부터 본격화 하는데, 일본의 논농사 도래와 함께 복숭아, 매실 등의 나무 재배가 전해진 것으로 보면(小畑弘己 2015: 26) 과수원 방식의 생업경제의 도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수 경작지의 형태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수는 경작보다는 채집을 통한 획득의 생계적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4. 기타

앞서의 생업적 요소가 식생활과 관련한 생계 방식적 요소가 강하다면, 청동기시대 들어서 분업화·전문화된 생업의 모습은 상업적 측면의 모습을 접근하게 한다.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관점의 접근으로서 타 취락, 지역 간 교류 및 교역 등의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연구적 접근은 주로 취락 내 관찰되는 석기조성비의 모습을 통해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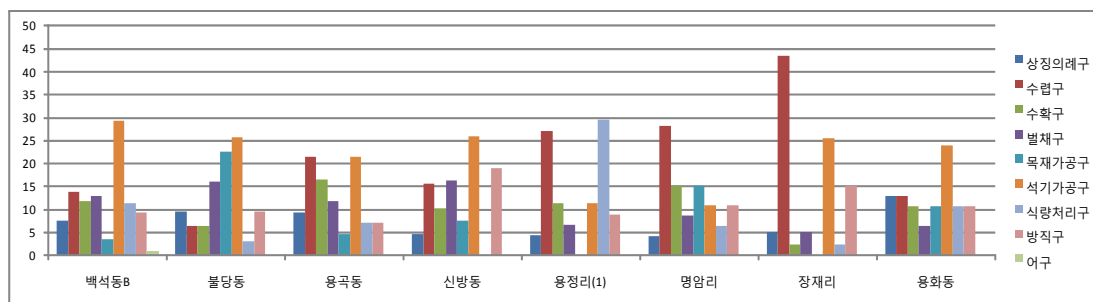


그림 3. 취락 별 석기조성비(이홍중·허의행 2010에서)

첫째로 목재 도구의 생산, 소비와 관련된 임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산지성 입지와 취락 내 벌목구와 관련된 도구의 수적 우위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생산의 모습은 마천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되는 저목장 시설의 존재를 통해 추정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들어 증가하는 목재도구는 분명 질 좋은 나무의 유통과 관련된 생업적 목적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재도구와 관련된 유물의 석기 조성비가 취락별 큰 차이가 없어 목재생산의 전업적인 생업의 모습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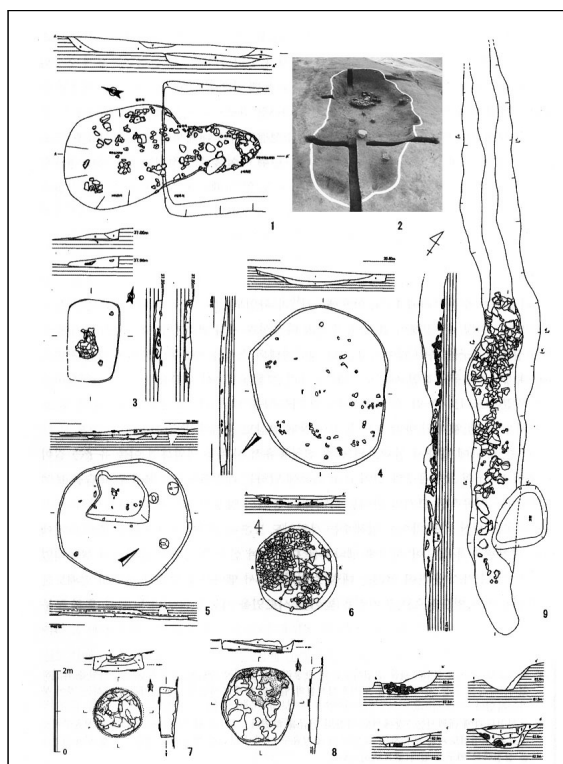


그림 4. 전기와 후기 각 유적별 토기소성유구
(庄田愼矢 2007, 195쪽 도면 수정 후 全載)

(1: 백석동, 2: 운전리 B-1호 수혈, 3: 안영리, 4·5: 관창리, 6: 대평리, 7·8: 원북리, 9: 영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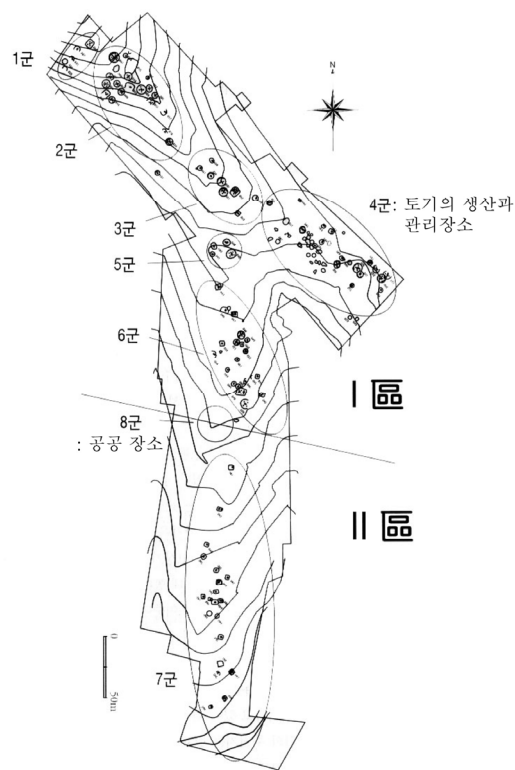


그림 5.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토기 생산 장소의 입지(이홍중 2005, 130쪽 도면 수정 후 全載)

둘째로 실과 의류 등을 생산하는 방직업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취락 내 방추차 등의 製絲의 모습에서 衣와 관련된 전문 집단의 존재, 취락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아직 뚜렷하게 이를 뒷받침할 유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취락별 製絲관련 유물들도 많지 않다. 다만 방추차의 변화가 전기와는 달리 후기 들어 소형·경량화 되는 것에는 고급 물품의 의류 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朴炳旭

2014: 37) 이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상업적 판매, 물물교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유적지 내 많은 수가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류의 자가소비를 주 목적으로 하겠지만, 중요 물건의 경우 위세품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필요 물품과의 교환의 대상으로 의류의 모습을 추정할 수는 있다.

셋째로 수공업의 생업 모습으로서 토기와 석기, 청동기 등의 수공 생산품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4-5)

토기의 생산은 소성유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기의 소성유구는 늦은 시기부터 취락 내 본격 등장하며 설치되어 간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과 유통, 반입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토기 생산시설은 전·후기별 특징을 볼 수 있다. 전기에는 유적 내 주거 근처에서 한·두기 정도 설치되며, 일부는 주거를 폐기한 후 이를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토기의 생산도 이루어졌다. 물론 유적 밖의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노천에서 바로 생산하였거나 일부는 수혈유구를 전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허의행 2008). 한편, 후기에는 토기 생산시설의 증가가 뚜렷한데, 형태와 규모 또한 전기와는 다르게 원형의 규격화와 규모의 축소화로 이어지며, 입지와 배치에서도 일부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군집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생산량의 증대와 함께 유통과 교환 등의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석기는 토기와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도구류 생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석기의 상업적 이용은 생산품의 제작 차원의 방향으로 접근하는데(이인학 2010; 黃昌漢 2004, 2009), 고령 대홍리유적 등지에서 석기를 생산하기 위한 유구의 존재가 확인되어 석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적 집단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손준호 2010a; 황창한 2012). 또한 당진 자개리유적의 석기 생산지의 파악을 통해 석재의 유통과 교환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후기 들어 석재와 석기를 생산하여 전업으로 삼는 취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옥이나 청동기 등의 기타 수공업품의 생산업 모습이다.

玉 등의 수공업품 생산도 전업적·전문적 취락보다는 취락 내부에서의 자체 제작과 생산을 언급한다. 전기부터 생산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아직 시설물의 존재는 없고, 후기에 들어서면서 본격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庄田愼矢 2007: 122-123).

반면에 靑銅器는 주거 내 제작과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공방지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 취락 내 제작은 불가하였을 것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적 수준을 요한다는 점에서 전문 제작 집단과 취락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庄田愼矢 2007: 97), 당연

이의 생산과 유통의 모습 등은 충분하다. 일본으로의 전파와 관련한 논의가 많은 편이다.

넷째로 수공업품으로서 목기 생산업을 살필 수 있다. 목재의 벌채와 생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적 차원이 아닌 목제품의 가공과 제작을 주로 하는 것이다. 저습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목기의 출토 또한 급증하였고 이들을 생산하는 장소와 시설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목기 또한 석기와 마찬가지로 주거 내 제작과 생산의 가능성은 높다. 다만, 주요 목기의 제작을 위해서는 질 좋은 나무를 선정하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제작품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생업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농업 수전도작과 관련이 매우 깊은 모습이어서(조현종 2014) 전업적 취락의 모습이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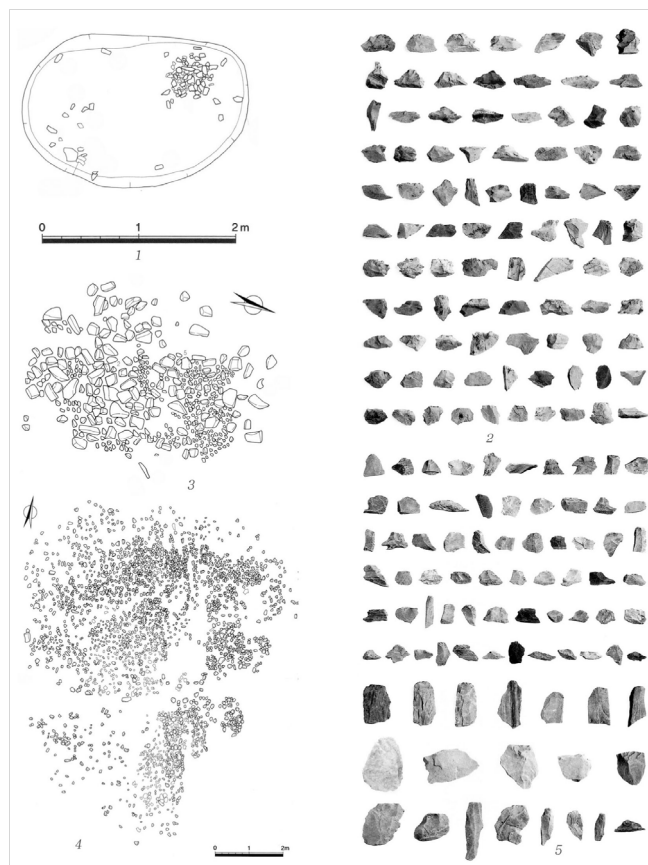


그림 6. 고령 대홍리유적 석기 제작 유적(황창한 2012 : 33쪽에서)

마지막으로 수렵과 관련된 생업의 측면일 수 있으나 동물 사육을 통한 생산성 측면으로서 축산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식료저장의 한 수단으로 가축 사육화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며(이준정 2009: 259), 인근 중국에서는 개와 돼지 등의 동물 사육이 일찍이 진행된 점을 참고하면(趙志軍 2015), 한반도 청동기시대 단백질 보충 및 기타 부산품 획득을 위한 축산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가축 사육화의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고⁴⁾ (이준정 2009: 263), 설혹 가축 사육과 생산이 진행되었다 해도 관련 시설물의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의 자연과학적분석을 통한 가축사육의 문제 해결 논의는 활발하다. 탄소동위원소분석을 통한 청동기시대 개가 인간의 음식물로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4) 가축화의 가능성은 농경의 잉여생산물을 축적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곧, 잡곡류의 잉여생산으로 인한 사료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며(이준정 2009: 265), 그러한 점에서 농작물 잉여생산의 확대가 활발한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가축사육의 가능성이 높다.

있어(안덕임 2006: 14), 마냥 부인하기만은 어렵다. 수렵을 통한, 또는 사육을 통한 축산업 방식의 생업경제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 또한 청동기시대 모든 취락이 아닌 일부 취락의 전업적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생업경제의 변화와 발전

1. 농경 생업의 변화

청동기시대 생업경제는 도작농경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문화의 모습이 변화하는 전·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시작은 농업(농경)이며 이에 파생한 다양한 생업의 모습이 관찰되고, 더불어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논과 밭을 대상으로 한 농업은 기술적 진전과 함께 구조의 형태 변화를 보이며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환경을 발전시켰다. 밭은 신석기시대 문암리유적에서 형태가 확인됨으로 해서 이의 시작이 일찍부터 진행되었으며, 형태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거의 없다. 하지만 수도작으로서 논은 시간차를 두고 점차 발전하여 완비되었다기 보다는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거나(이홍종 2000), 전기 늦은 시기에 등장하면서 변화·발전하여 후기에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相吉 2002: 60-61; 趙現鐘 2000: 20-22; 안재호 2010). 분명한 것은 물 관리를 위한 수리관개 시설을 갖춘 논은 후기부터 본격 등장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완성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허의행 2012). 이때부터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전문화하고 분업화된 취락의 존재로까지 이어진다. 생산 전문 취락, 저장 전문 취락, 소비 전문 및 자가 생산 소비취락의 등장을 볼 수 있다(허의행 2006, 김장석 2008). 생업환경에 맞춘 분화된 취락의 모습이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수전은 일부 지역과 장소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농경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제방식이 취락 모두에서 보편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청동기시대 취락의 주거에서 빈번하게 벼가 확인되고 있어 전시기적으로는 수도 경작의 보편화 모습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작의 직접 증거로서 논의 조사 예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조사된 논면의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고, 일부 중·대규모의 취락이 존재하는 곳의 저습한 지점에서도 논의 존재가 불확실한 모습 등을 보면 청동기시대 논 경작의 취락 내 보편화와 도작의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⁵⁾. 물론 연구자의 논유구 조사에 대한 인식과 전공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굴 자료의 누락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형급 취락과 연결되는 저습한 지대에 경작유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생각을 필요로 한다.

도작이 청동기시대의 중요 생업이고 후기로 들어서면서 농경도구의 증가가 확실해지면서 농경산물의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벼의 산출량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분분석 등의 결과에서도 농업의 집약화 증거가 미약하다(김민구 2013). 청동기시대에는 여전히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의 비중이 높고(신숙정 2001), 청동기시대 출토인골에 대한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 분석결과에서도 신석기시대 이래 잡곡의 섭취가 상당하다는 점(이준정 2011), 청동기시대에는 식량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분석과 성과(손준호 2004)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수도작이 생업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었다 하더라도 논경작을 통한 취락 내 벼의 생산적 보편화는 회의적이다(유병록 2014). 오히려 이 시기에는 논을 조성하고 경영하였던 전문 생산 집단에 의한 생산과 유통, 즉 농경기술과 잉여생산물을 독점하고 유통하는 엘리트 집단(고민정·Martin T. Bale 2009; 윤호필 2008: 12-16)에 의해 생업을 유지해 간 전업·전문 취락(경작지 중심 취락)(윤호필 2014: 155)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까지 만해도 수전의 조성과 쌀의 보급은 그리 원활치 않았다(곽종철 2002). 적절한 토지의 선정과 재배로서의 경작기술 등의 어려움이 당시까지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의 생산과 보급은 위세품과 공헌, 권력의 의미로 청동기시대에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김범철 2006; 김장석 2008; 안재호 2010; 윤호필 2008)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생업과 생계방식의 변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는 생계방식에서도 전기와 후기별 차이를 보인다. 농경의 생계 방식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주로 조, 기장, 콩 등의 농경을 위주로 하면서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벼를 취식하였다. 반면에 후기에는 전기의 작물유체가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어 생계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전기와는 달리 벼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 더불어 잡곡과 함께 두류, 특히 팥의 보편화가 진행되는 데에 특징이 있다(안승모 2008). 농경을 통한 생계방식이 전작 중심의 생계에서 수도작과 특화된 작물 중심의 생계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이다. 즉,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5) 대표적인 예가 필자가 조사한 연기 송담리유적 34지구 주거지에서 출토된 쌀의 흔적이다. 43,000여립 이상의 쌀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곡부와 저습지에 대한 조사에서 논과 관련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더 풍족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기에는 지역별 생계방식에 차이가 잘 관찰되지 않지만, 후기에는 지역별 작물조성에 차이가 관찰되고 있어 지역의 토양에 특화된 농경산물의 산출로 생업과 생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별 작물유체의 차이는 교환과 교류의 증거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농경산물의 조성비를 벗어난 작물유체의 모습에서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기 송담리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과도한 양의 쌀과 울산 다운동 유적의 두류 등은 작물의 저장성 향상과 함께 물물교환을 위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그 중 연기 송담리유적에서 출토된 쌀은 전기 주거지에서도 드물게 많은 양이 실사례로 출토되었다.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경작지와 관련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더불어 송국리와 관련한 유적의 존재가 근처에서 미미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벼의 외부로부터의 반입, 또는 타 생산품과의 물물교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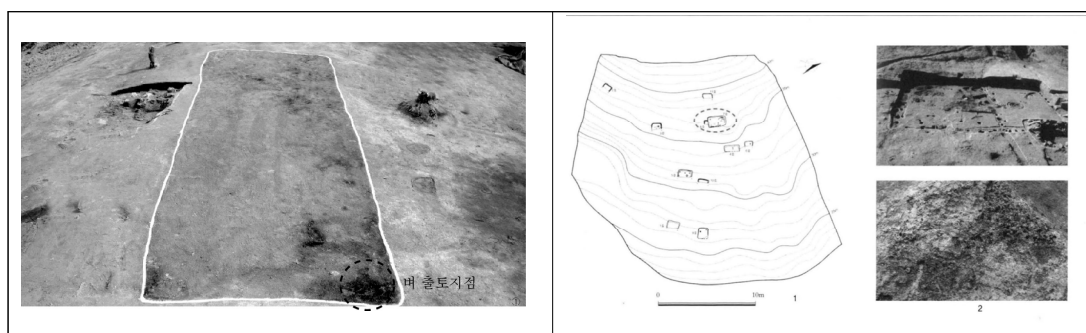


그림 7. 곡물출토 주거지(좌: 송담리 34지점 KC-001, 우: 울산 다운동 II유적 7호)

기타 생업의 변화모습을 보면 신석기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수렵은 활수렵에서 함정수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도 농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시간과 노동력의 증가 현상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김도현 2008:29). 특히 후기에는 사육의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어, 수렵을 통해 획득한 동물을 기르고 이를 다른 물품과 판매 및 교환하는 생업의 일환으로 하는 축산업으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기타 수공업의 모습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뚜렷한데, 토기 등의 수공업품 생산은 처음에 한정된 단위집단에서 점차 상위의 협업체제에 의한 생산체제로 전환하였고(田崎博之 2005: 208-209), 후기에 본격 들어서면서 개별에서 군집으로의 생산체제로 바뀌어 간다. 이는 후기 늦은 시기(田崎의 II기)에 한정된 지역의 토기생산이 복수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어느 한 지역(한정된 공방구역)을 집중생산지로 선택하는

것과 연관한다(田崎博之 2005: 208-209). 많은 양의 생산은 결국 주변지역 또는 타 지역으로 물품의 이동을 가져올 것이며 교환의 대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석기의 수공업품 또한 전·후기 석기 양상과 조성비를 통해 생산 전문 취락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한다. 전기에는 취락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일부 유적에서는 타 취락과 교역을 위한 석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후기 들어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자가 소비 취락도 존재하지만 이를 넘어서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등장이 있다(손준호 2010). 약간의 견해차는 있지만 전기에는 이미 특정 석기 기종이 유적별로 중점 생산되면서 생산 전문화의 단계로 접어들며, 후기에 특정 취락에서 석기 생산을 유적별로 분담하여 기능해 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趙大衍·朴書賢 2013). 취락 내 토기생산과 마찬가지로 자가 생산과 소비(洪周希 2017), 이를 넘어서 전 생산의 모습을 통해 교환과 교류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목기의 수공업은 마전리유적에서 확인된 저목장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저목장은 농경이 본격 등장하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확인되는데⁶⁾, 부여 구봉·노화리유적의 청동기시대 논 층 아래에서 확인되는 환상유구의 존재를 통해 이 시기부터 하천의 흐름을 제어하면서 저목장을 설치하고, 여기서 담수된 목재를 이용한 목기 가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⁷⁾. 하지만 청동기의 제작, 농경 중심취락과 마찬가지로 장소적 제약, 노동시간과 노동력의 문제 등 여러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일반취락이 아닌 이의 생산을 전문으로 한 취락의 존재, 유통 등의 상업으로서 제작과 가공, 판매, 물물교환 등의 모습을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IV. 맺음말

현재 청동기시대 생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대체로 농경을 중심으로 한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전기와 후기의 구분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방향의 생업에 대한 논의도 농경이며, 사회 변화의 원인도 농경이라는 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발표자도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새로운 관점의 생업 모습을 살펴보지도 못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농업과 관련한 농경

6) 목기는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석기시대에도 실물자료를 확인하였다(김권구 2008: 56). 따라서 목기의 생산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생산을 위한 시설물은 청동기시대에만 확인되고 있어 취락 구성요소의 일부로 편입 가능하다.

7) 논산 오강리 신석기시대 저습지에서 목재가 저장된 모습이 확인되어, 신석기시대에도 저목장의 존재와 목기 가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의 출현을 사회변동의 결과로 본 관점은 주목된다(Martin T. Bale 2014: 126). 즉, 청동기시대 경작체계를 갖춘 농업 등의 생업적 모습은 사회 변화가 먼저 일어난 후 뒤이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에서 후기로 이행하면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새로운 취락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생업 방식을 채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이제는 농경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생업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축산업, 임업 등의 관점에서 농경을 바라볼 수 있고, 상업의 관점에서 농경의 모습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후자의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생업이 발전하고 변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물품의 판매와 교환 등의 시장 경제의 모습이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서 농경과 함께 생업체계에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⁸⁾. 물론 청동기시대 지역 내에서 상업적 경제 행위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을 넓혀 보면 상업적 경제 행위(유통과 물류?)는 농경산물 뿐 아니라 청동기 등의 수공업품 등의 상업 행위가 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과 일본에서 뚜렷이 보인다는 점에서(이홍종 2010; 魯 視玟 外 2008), 생업경제에서 상업적 모습은 분명하다.

또한 이제는 청동기시대 생업도 유구와 유물의 취락유형간 비교와 같이 지역별 생업관계를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호서지역 내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에서 두류가 많이 확인되는 취락, 벼가 많이 확인되는 취락, 전기 취락과 마찬가지로 잡곡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취락의 등장과 발전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부족한 물품의 보충을 위한 상호 간 상업적 교류 등의 여러 논의를 생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이전에 호서지역 내 전기의 취락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계지대에서 타 지역의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일부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취락 상호간 교류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허의행 2014). 물론 이러한 논의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생업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관점의 방향에서 보면, 취락 간 부족한 물품의 교환이나 취락민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상업적 행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취락 간 네트워크의 형성 논의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고민정 · Martin T.Bale 2008; 庄田愼矢 2007, 윤호필 2014), 좀 더 고고학적 물질자료에 근거한 청동기시대 전 · 후기 취락 간 생업의 관계설정과 발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지중해지역, 남미북부와 하와이에서 집약적 농업체계와 궤를 같이 하는 복합수장사회의 조직 발달은 하달형의 설명모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농업생산물외에도 수공업생산의 전문화, 장거리교역 등의 영역에서 수장층의 직접적인 관여를 알려주는 사례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는데(金範哲 2006: 77), 발표자는 이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한국의 청동기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진주 대평이유적을 중심으로-」 『경남연구』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郭鍾喆, 1993, 「先史·古代 稻 資料 出土遺蹟의 土地條件과 稻作·生業」 『古文化』 42·43合,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곽종철, 1995, 「沖積地遺蹟의 土壤에 대한 관찰 · 기재 · 분석법」 『古文化』 第47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곽종철, 1996, 「沖積地遺蹟의 지형환경 퇴적물에 대한 관찰 기재 분석법」 『科技考古研究』 창간호, 아주대학교박물관.
- 곽종철, 1997, 「沖積地遺蹟 매물 논의 조사법 소개(上), (下)」 『韓國上古史學報』 第24號, 第25號, 韓國上古史學會.
- 곽종철, 2001, 「우리 나라의 선사~고대 논 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곽승기, 2017, 「특정화합물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중서부지방 생업양상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제95호, 韓國上古史學會.
-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제67집, 한국고고학회.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 · 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 김권중, 2010, 「선사시대 함정의 사용방법과 발생 배경」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紀念論叢』.
- 김민구, 2013, 「농업연구와 식물자료: 몇가지 이론적 과제」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金度憲, 2005, 「수렵함정과 사냥법에 대한 검토」 『湖南考古學報』 22, 湖南考古學會.
- 金度憲, 2006, 「선사 · 고대의 경작유구에 대한 검토」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 김도현 · 권지영, 2002, 「청동기시대 토제 어망추에 대한 검토-울산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울산연구』 4, 울산대학교 박물관.
- 金度憲, 2008, 「청동기시대의 수렵과 채집」 『韓國青銅器學報』 第3號, 韓國青銅器學會.
- 金度憲·李在熙, 2004,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 32號, 嶺南考古學會.

- 金範哲, 2005, 「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作集約化 - 聚落體系와 土壤分析의 空間的 相關關係에 對한 GIS分析을 中心으로」,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 金範哲, 2006,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와 政治經濟」 『湖南考古學報』 24, 호남고고학회.
- 金炳燮, 2003, 「韓國의 古代 밭 遺構에 對한 檢討」 『古文化』 第62輯, 韓國大學 博物館協會.
- 김병섭, 2009, 「밭유구의 調査方法과 田作方法」 『한국과 일본의 선사·고대 농경기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金姓旭, 2008, 「청동기시대 어로활동」 『韓國靑銅器學報』 第3號, 韓國靑銅器學會.
- 김장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한국고고학회.
- 金賢峻, 1996, 「靑銅器時代 聚落의 立地條件을 통해서 본 生業 研究」, 漢陽大學 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魯視玟·平尾良光·下村智, 2008, 「九州中部域における靑銅器の鉛同位對比から見る流通」, 『한·일 교류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大庭重信, 2009, 「밭농사(畠作農耕)의 調査·研究-오사카 地域의 事例」 『한국과 일본의 선사·고대 농경기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Martin T. Bale, 2014, 「경제만이 아니다-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실험적·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湖南考古學會.
- 朴炳旭, 2014, 「靑銅器時代 製絲術 研究-호서지역 출토 전·중기 방추차 비교분석을 中心으로-」, 忠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第53輯, 호남고고학회.
- 손준호,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檢討」 『韓國考古學報』 51, 韓國考古學會.
- 孫峻鎬,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第10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孫峻鎬, 2006,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孫峻鎬, 2008, 「石器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靑銅器學報』 第3號, 韓國靑銅器學會.
- 孫峻鎬, 2010a,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호남고고학

- 보』 36, 호남고고학회.
- 손준호, 2010b, 「청동기시대의 석기 생산」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국립중앙박물관.
- 宋永鎭, 2001, 「IV. 考察」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경상대학교박물관.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 신숙현, 2015, 「군산 오식군도의 신석기-청동기시대 굴 자원 이용 연구-노래섬·띠섬 패총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第26輯,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안덕임, 2006,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활 복원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第54號, 韓國上古史學會.
- 安承模, 200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作物組成-種子遺體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28輯, 湖南考古學會.
- 안승모, 2012, 「식물유체로 본 선사 고대 견과류 이용의 변화」 『湖南考古學報』 40輯, 湖南考古學會.
- 안승모, 2013,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韓國考古學會.
- 안승모, 2015, 『동아시아 고고실물 선사시대- 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34, 韓國考古學會.
- 안재호, 2010, 「굴립주건물이 있는 청동기시대 취락상」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許義行·吳圭珍, 2006, 「無文土器時代 聚落 立地와 經濟活動 研究」 『國立公州博物館紀要』 第5輯, 국립공주박물관.
- 유병록, 2014, 「한반도 남부 조·전기~중기 취락의 변천과 농경」 『청동기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8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고민정, 2006, 「발유구 조사법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 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윤호필, 2008,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사회」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 2009, 「진주 평거동유적으로 본 선사·고대의 농경기술-진주 평거3지구 유적(I 구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선사·고대 농경기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윤호필,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윤호필, 2014,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및 전개」 『청동기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8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이동주·장호진, 2012, 「어망추로 본 청동기시대 어로 양상-포항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14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李相吉, 2000, 「남강유역의 농경-대평지역 받을 중심으로-」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
- 李相吉, 2002, 「南部地方 初期農耕의 現段階-遺構를 中心으로-」 『韓日 初期農耕 比較研究』, 大阪市學藝員等共同研究 韓半島綜合學術調查團.
- 이인학, 2010, 『청동기시대 취락 내 석기 제작 양상 검토』, 고려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준정, 2009, 「또 하나의 저장수단, 가축의 이용: 한반도지역 가축 이용의 역사」 『선사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사회평론.
- 이준정, 2011, 「작물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농경의 전개 과정-한반도 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73, 한국상고사학회.
- 李賢惠, 2002,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밭농사」 『震檀學報』 94, 震檀學會.
- 李弘鍾,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李弘鍾, 1998,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한국고대사연구』
- 이홍중, 2000, 「우리 나라의 초기 수전농경」 『한국농공학회지』 제42권 제3호, 한국농공학회.
- 李弘鍾, 2005, 「寬倉里聚落의 景觀」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
- 李弘鍾,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韓國上古史學會.
- 이홍중, 2010, 「도작문화의 정착과 확산」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이홍중·허의행, 2010,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0, 한국고고학회.
- 庄田愼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 田崎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
-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중부지역 취락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湖西考古學』 28, 호서고고학회.

- 趙志軍, 2015, 「中國史前農耕化的過程」 『동아시아 고고실물 선사시대 중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현중, 2014, 「목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도구론』, 서경문화사.
- 崔德卿, 2002, 「古代韓國의 旱田 耕作法과 農作制에 對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第37號, 韓國上古史學會.
- 小畑弘己, 2015, 「最新成果からみた九州後晩期農耕論と縄文時代農耕の諸段階」 『동아시아 고고실물 선사시대 일본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許義行, 2006, 「無文土器時代 聚落立地와 生計經濟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許義行, 2008, 「前期 青銅器時代 豎穴遺構의 性格과 變化樣相」 『韓國青銅器學報』4, 韓國青銅器學會.
- 허의행, 2012,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灌溉體系와 展開樣相」 『湖南考古學報』41號, 湖南考古學會.
- 허의행,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許義行, 2014,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의 中心과 境界」 『호서고고학』34, 호서고고학회.
- 黃昌漢, 2004, 「無文土器時代 磨製石鏃의 製作方法 研究」 『湖南考古學報』20, 湖南考古學會.
- 黃昌漢, 2009, 「青銅器時代 石器 製作의 兩極技法 研究」 『韓國上古史學報』63, 韓國上古史學會.
- 황창한, 2012,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考古廣場』9, 부산고고학연구회.
- 홍주희, 201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공방에서의 석기 생산방식 검토」, 『韓國青銅器學報』20, 韓國青銅器學會.
- 甲元眞之, 2002, 「東アジア先史時代漁撈」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IV』

人文背景下的“千山山地石棚”起源与发展(概要)

华 玉 冰
辽宁大学历史学院

目 次

- 一、以石棚分布为基础的“千山山地文化区
- 二、区域文化背景与石棚的起源
- 三、石棚墓葬的发展与辽东青铜文化圈的形成
- 四、简要总结

在中国东北，石棚分布仅限于辽河以东，西流松花江以南，图们江、鸭绿江以西，南至海的范围之内。可分为两个密集区，即千山山地（以往称“辽东半岛”）与长白山地（或称“辽北吉南地区”）。其中又以前者分布最为集中，且极富地域特征，与韩半岛北部地区地域相邻，同类遗存之间的关系密切。

自十九世纪末千山山地区石棚被发现以来，相关研究一直没有中断，但有关其起源及初始年代问题一直没有较大的进展。近年来，随着一些新资料发现，尤其是大范围内考古学文化谱系格局研究的不断深入，这一区域的考古学文化面貌逐渐清晰起来，以此为视角，会发现解决上述问题的一些线索。

一、以石棚分布为基础的“千山山地文化区”

以石棚墓的分布看，其最南部的一座是地处大连市金州区北部向应镇的小关屯石棚，

南部再无相关遗存发现，自此向北亦有大面积的空白区，推测其应为石棚分布的南缘；东侧不过蒲石河，主要见于瑗河两岸；向北大体以千山山脉的北端起点本溪连山关横向连线为界；在半岛及鸭绿江下游地带，石棚不见于沿海平原区。上述区域目前共发现石棚墓69处地点，占东北地区石棚地点总数（114处）的60%以上。

盖石墓的分布与石棚墓基本一致，其密集区亦在半岛中部碧流河一带，只是其南部范围明显较石棚墓北移，大体在庄河与瓦房店市区连线以北的地区。这一区域盖石墓的地点60处，约占东北地区总数（129）的47%。

依据石棚墓与盖石墓的上述分布特点，过去一般将其所在地域命名为辽东半岛北部地区（或辽东北部地区），现在看称之为千山山地区较为合适，亦可将鸭绿江下游局部地区涵盖在内，核心区位于半岛中部的碧流河流域。这一区域现中国行政区划隶属于辽宁的鞍山、营口市的全部以及丹东市的西北部、大连市金州区北部。

千山山地区发现石棚、盖石墓数量众多，但经发掘且有出土遗物者却较少。从出土陶器特征看，属一独立的考古学文化类型，本文称之为伙家窝堡-双房类型，年代上限不晚于公元前11世纪，但这并不能反映出石棚墓葬出现的实际情况，有必要通过区域文化背景与文化来源进行考察。

二、区域文化背景与石棚的起源

辽东东北部及千山山地是中国东北旧石器文化最为发达的地区。其中有旧石器时代早期的本溪庙后山、营口金牛山，晚期的海城仙人洞等遗址，其人类体质进化的程度、文化之先进性及与周邻广阔区域文化的关联性皆为学界所瞩目。

（一）新石器时代早期的区域刻划纹传统

以目前的考古发现看，辽河平原及辽南沿海地区最早的考古学文化，包括“新乐下层文化”、“小珠山下层文化”等，都流行之字纹筒形罐，应该是受到了来自辽西同期考古学文化的影响。同一时期，之字纹筒形罐在中国东北分布极为广阔，西起大兴安岭和七老图山，北至西流松花江流域和霍林河流域，南抵燕山和渤海、黄海沿岸。在鸭绿江左岸韩半岛的美松里遗址下层也有发现。

较为特殊的情况是，千山山地区新石器时代早期遗存数量较少，从调查发现的陶片看多饰刻划纹饰，不见之字纹，其原因有待进一步的工作。

以目前的研究成果看，辽东本土器物群表面流行各类刻划纹装饰，如人字纹、横线纹、平行斜线纹等。至少可追溯至公元前4500年前，以辽东东北部的本溪“水洞下层文化”为代表。约公元前4000年左右，属刻划纹系统的“后洼上层文化”、“小珠山中层文化”等占据了辽南地区，并不断扩展其影响。向东渗透到图们江流域，形成了以西浦项二期为代表的遗存，向南影响至山东半岛。

偏堡子类型占据辽东与北沟文化的形成

约公元前 3000 年前后，辽东、辽西考古学文化的面貌几乎同时发生改变。辽西的之字纹筒形罐系统文化消亡，代之以绳纹为装饰纹样的“小河沿文化”，墓葬形式也发生改变。辽东则兴起了以饰附加堆纹为特点的“偏堡子文化”，甚至东逾鸭绿江达到了韩半岛的大宁江流域，平安北道堂山遗址上层、双鹤里遗址均有发现。两种文化相遇形成“南宝类型”。

约公元前 2500 年前后，偏堡子文化分化为辽南沿海与龙山文化关系密切的“小珠山上层文化”和辽东及千山山地区遗留有诸多偏堡子文化因素的“北沟文化”。其中北沟文化陶器上有较多的刻划纹饰，应是与本地早期文化因素结合的产物。

积石墓的出现与石棚的起源

辽东地区新石器时代早期没有发现墓葬，自偏堡子文化占据辽东以后始见较少的土坑墓。小珠山上层文化阶段，其分布区内积石墓开始出现。

目前，学界越来越多的学者倾向于辽东的积石墓与辽西的红山文化积石冢有关，至少在形式上有关联。为了解决时间上间隔较大的问题，有学者提出了通过中原传播过来的观点。实际上，从仰韶时代诸考古学文化的密切关系看，这种观点还有进一步扩展讨论的空间。

从文化构成看，龙山文化与偏堡子文化都不流行积石墓，那么这类墓葬的产生很可能是借鉴与模仿。

从辽东地区由北沟文化发展起来的马城子文化的墓葬形式看，其洞穴墓及火葬习俗与小河沿文化有一定的相似性，其墓葬形式的出现也可以看作对是借鉴与模仿。

那么，同样由北沟文化发展而来，广布于千山山地的石棚墓是否也是在此阶段借鉴其他类型墓葬，比如积石墓而出现的呢？其实，积石墓与石棚混合型的墓地在韩半岛北部，千山山地南部区都有发现。

三、石棚墓葬的发展与辽东青铜文化圈的形成

（一）辽东青铜时代初期考古学文化格局

约公元前21世纪，辽东地区进入青铜时代。直至公元前11世纪左右，存在来源不同的多种考古学文化，简介如下。

辽南地区的双砬子一期文化、双砬子二期文化、双砬子三期文化。

上述三种考古学文化有较强的渊源关系。其中双砬子一期文化源于本地新石器时代晚期的小珠山上层文化，双砬子二期文化阶段受到了来自山东半岛岳石文化的强烈影响，双砬子三期文化遗址堆积较厚，多有防御设施。各考古学文化的墓葬形式均为积石墓，多非火葬。

辽河平原区西部为高台山文化、东部为新乐上层文化。

两种考古学文化的三足器皆较发达。墓葬形式为土坑墓，非火葬。

辽东北部地区则为马城子文化。

遗址堆积较薄，墓葬为洞穴墓，火葬。出现盖石墓。

千山山地区不见上述各考古学文化遗存。但出现一些属青铜时代的城址，推测其墓葬形式为石棚。

(二) 辽东青铜考古文化圈的形成

1、年代

约公元前11世纪。

标志

首先，断绝了与山东半岛的联系；辽东半岛沿海诸河流域鼎盛的双砬子三期文化终结，从其诸多遗址都被火烧过、大批遗物留在屋内等情形看，不排除战争的可能。

其次，具有东北西部区地域背景的高台山文化退出，主体沿西拉木伦河成为夏家店上层文化主要构成因素。

重要的是，出现以弦纹壶、东北系铜剑等为代表的共性文化因素。其中弦纹壶属水器，是特殊的礼器；主要源于马城子文化，地域传统的集合，同时作为区域文化的标志对外传播。

3、形成阶段的主要考古学文化

新城子文化：主要分布在辽东东北部地区，墓葬形式为石棺墓、盖石墓，典型随葬陶器为弦纹壶与钵的组合。

双房文化：主要分布在千山山地区，以石棚墓、盖石墓为主要墓葬类型，以叠沿罐、

高颈壶为主要随葬陶器组合。其中凸棱壶最早见于上马石瓮棺墓、单砣子M2等，年代不晚于公元前19世纪。叠沿罐、双竖耳壶缘于北沟文化。

老虎冲类型：主要分布于辽河平原区，来源复杂，以双耳罐为典型陶器。遗存本身似具有会盟性质。

（三）发展及演变

1、约公元前11至公元前6世纪（西周至春秋早期）

区域内诸考古学文化在保持共性文化因素基础上，各自的独立性较强，存在此消彼长的发展过程。而且，相互间的关系密切程度也不同。期间，新城子文化较为活跃，与其他两种文化都保持着密切的关系，而老虎冲类型与双房类型的关系相对疏远。

新城子文化向朝鲜半岛的鸭绿江流域发展，双房文化则向大同江流域渗透。

2、约公元前6世纪至公元前4世纪（春秋晚期至战国早期）

源于老虎冲类型的郑家洼子类型兴盛。同时，与双砣子三期文化相关的岗上类型复苏。

郑家洼子类型开始向千山山地及辽东地区渗透。

约公元前4-3世纪（战国晚期）

伴随燕文化到来，与郑家洼子类型共同占据整个辽东。

双房类型、岗上类型大部分退出辽东，新城子文化一部分留存本地。

至此，辽东青铜文化圈解体。

四、简要总结

从文化背景看，石棚墓的起源有可能追溯至“北沟文化”时期，即公元前2500年左右，系模仿相关文化墓葬类型而产生的。公元前11世纪以后空前发展，与辽东的新城子文化关系密切，向韩半岛北部大同江流域扩张。公元前4-3世纪以后部分向长白山地集结，退出千山山地区。

인문배경으로 본 “천산산지 석봉”의 기원과 발전(개요)

华 玉 冰

目 次

1. 석봉의 분포를 기초로 한 “천산산지문화구”
2. 구역 문화 배경과 석봉의 기원
3. 석봉묘자의 발전과 요동 청동문화권의 형성
4. 발전과 변천
5. 요점 정리

중국동북지방에서 석봉(石棚)의 분포는 요하 이동으로 국한된다. 범위는 서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남쪽, 두만강과 압록강의 서쪽, 남으로는 발해만까지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두 개의 밀집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천산산지(이전에는 “요동반도”로 불렸음)와 장백산지(혹은 “요북길남지구”로 부르기도 함)이다. 이 중 전자는 석봉이 제일 밀집되고 있고 지역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또한 한반도 북부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류의 유존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 천산산지의 석봉이 발견된 이래,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기원 및 초기 연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특히 거시적인 범위 내에서 고고학문화의 계보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지면서 이 구역의 고고학문화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시적인 시각을 통해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석봉묘 분포를 기초로 한 “천산산지문화구”

석봉묘(石棚墓)의 분포를 보면, 제일 남부의 것으로 대련시(大連市) 금주구(金州區) 북부 향응진(向應鎮)에 위치한 소관둔(小關屯) 석봉을 들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남부지역에서는 관련 유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북쪽으로 큰 공백지역이 있는데, 아마 석봉묘 분포의 남쪽 변두리가 될 것이다. 동으로는 포석하를 넘지 않고, 주로 애하(瑗河) 양안에서 확인된다. 북으로는 대체로 천산산맥의 북단 기점인 본계(本溪)와 연결된 횡방향의 선을 경계로 한다. 요동반도와 압록강 하류지대에서 석봉은 연해(沿海) 평원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지역에서 최근까지 모두 69개소에서 석봉묘가 발견되었으며, 동북지역 석봉묘 발견 지점(114개소)의 60%에 달한다.

개석묘(蓋石墓)의 분포는 석봉묘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밀집지역은 요동반도 중부의 벽류하(碧流河) 일대인데, 개석묘는 분포범위가 명확한 석봉묘의 남쪽 경계보다 다소 북쪽에 위치한다. 대체적으로 장하시(莊河市)와 와방점시(瓦房店市)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구에 해당한다. 이 구역의 개석묘는 60개소에 이르며, 동북지구 총수량(129)의 약 47%를 점한다.

과거에는 석봉묘와 개석묘의 분포 특징을 근거로 보통 지역명을 따서 요동반도 북부지구(혹은 요동북부지구)로 명명하였지만, 현재의 양상을 보면 천산산지구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압록강 하류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핵심지역은 요동반도 중부의 벽류하유역이다. 이 구역은 현재 중국 행정구역상 요녕 안산시(鞍山市), 영구시(營口市) 전체와 단둥시(丹東市)의 서북부, 대련시 금주구 북부에 해당한다.

천산산지에서 발견된 석봉묘, 개석묘의 수량은 매우 많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거쳤거나 유물이 출토된 경우는 적은 편이다. 출토 토기 특징을 참고하면, 하나의 독립된 고고학문화유형에 속한다. 본문에서는 이를 화가와보-쌍방유형(伙家窩堡-雙房類型)으로 부르려고 한다. 연대 상한은 기원전 11세기보다 늦지 않지만, 이 연대가 석봉묘 출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다. 해당 구역의 문화적 배경과 문화의 연원에 대한 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구역 문화 배경과 석봉의 기원

요동 동북부와 천산산지는 중국 동북지역 구석기문화가 제일 발달한 지역이다. 그 중 구석기시대 전기의 본계 묘후산(廟後山), 영구 금우산(金牛山), 후기의 해성(海城) 선인동(仙人洞) 등 유적이 있고, 그 인류의 체질 진화의 정도, 문화의 선진성 및 주변에 인접한 지역 문화와의 관련성은 학계에서 모두 주목하는 주제이다.

1) 신석기시대 전기의 각획문(刻劃紋) 전통

최근의 고고학 발견을 보면, 요하 평원과 요남 연해지구의 제일 이른 고고학문화인 ‘신락하층문화(新樂下層文化)’, ‘소주산하층문화(小珠山下層文化)’ 등에서 모두 ‘之’ 자문 통형관(筒形罐)이 유행했는데, 분명히 동시기 요서에 온 고고학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동시기에 ‘之’ 자문 통형관은 중국동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서로는 대흥안령(大興安嶺)과 칠로도산(七老圖山)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송화강의 서쪽 유역과 곽림하(霍林河)유역에 이른다. 남으로는 연산과 발해, 황해 연안까지 다다른다. 압록강 좌안 한반도의 미송리유적 하층에서도 ‘之’ 자문이 발견된 바 있다.

비교적 특수한 것은 천산산지구 신석기시대 전기유존의 수량이 비교적 적고, 현지조사에서 발견되는 토기편은 각획문양이 많고 ‘之’ 자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 보면, 요동 본지의 기물군은 표면에 각종 각획문 장식이 유행하는데, ‘人’ 자문, 횡선문, 평행사선문 등이 확인된다. 최소한 기원전 4500년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요동 동북부의 본계 “수동하층문화(水洞下層文化)”가 대표적이다. 약 기원전 4000년 경에 각획문 계통의 “후와상층문화(後窪上層文化)”, “소주산중층문화(小珠山中層文化)” 등이 요남지구를 장악하는데,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한다. 동쪽으로는 두만강유역까지 침투하여 서포항2기를 대표로하는 유존을 형성하였고, 남으로는 산둥반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2) 편보자유형의 요동 장악과 북구문화의 형성

약 기원전 3000년 전후로 요동과 요서의 고고학문화 면모는 거의 동시에 변화가

발생한다. 요서의 ‘之’ 자문 통형관 계통 문화가 소멸하고 대신 승문 위주의 문양인 “소하연문화(小河沿文化)”가 등장하며, 묘장 형식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요동에서 흥기한 부가퇴문(附加堆紋)을 특징으로 하는 “편보자문화(偏堡子文化)”는 동으로 압록강을 거쳐 한반도의 대녕강(大寧江)(대동강?)유역까지 다다르고, 평안북도 당산유적상층, 쌍학리유적 등에서 모두 발견된다. 그리고 두 종류의 문화가 서로 만나 “남보유형(南寶類型)”을 형성한다.

약 기원전 2500년 전후, 편보자문화는 용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남 연해의 “소주산상층문화”와 편보자문화 요소가 매우 많은 요동 및 천산산지구의 “북구문화(北溝文化)”로 분화된다. 그 중 북구문화의 토기에는 비교적 많은 각획문이 있는데, 이는 재지의 초기문화 요소와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것이다.

3) 적석묘의 출현과 석봉의 기원

요동지구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 편보자문화가 요동지역에 출현한 이후부터 비교적 적은 수의 토갱묘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소주산상층문화 단계는 그 분포지역 내에 적석묘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갈수록 많은 학자들이 요동의 적석묘와 요서의 홍산문화 적석총을 관련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형식상에서는 관련이 있다. 양자 간의 비교적 큰 시간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연구자는 중원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양소시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고학문화들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아직 논의를 더 확장시켜 볼 여지가 있다.

문화 구성 양상을 보면 용산문화와 편보자문화는 모두 적석묘가 유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묘장의 출현은 어쩌면 타지역의 문화를 참고·모방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북구문화에서 발전해서 천산산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석봉묘도 적석묘의 출현처럼 역시 이 단계에 다른 유형의 묘장을 참고한 것은 아닐까. 사실 적석묘와 석봉 혼합형의 묘지는 한반도 북부와 천산산지 남부 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3. 석봉묘장의 발전과 요동 청동문화권의 형성

1) 요동 청동기시대 초기 고고학문화의 양상

요동지역은 약 기원전 21세기에 청동기시대로 진입한다. 그대로 기원전 11세기 경까지 각기 다른 기원의 다양한 고고학문화가 존재하였다.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요남지구의 쌍타자(雙砬子)1기문화, 쌍타자2기문화, 쌍타자3기문화.

상술한 3종의 고고학문화는 비교적 강한 연원 관계를 가진다. 그 중 쌍타자 1기 문화는 당지 신석기시대 후기의 소주산상층문화에서 기원하였고, 쌍타자2기문화 단계에 산동반도에서 온 악석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쌍타자3기문화유적의 퇴적은 비교적 두꺼우며, 방어시설이 많다. 각 고고학문화의 묘장 형식은 모두 적석묘이며, 대부분 화장(火葬)은 하지 않았다.

(2) 요하 평원구 서부의 고대산문화(高臺山文化)와 동부의 신락상층문화

두 고고학문화는 삼족기가 비교적 발달했다. 묘장 형식은 토갱묘이며, 화장은 하지 않았다.

(3) 요동 북부지구의 마성자문화(馬城子文化)

유적의 퇴적이 비교적 얇다. 묘장은 동혈묘(洞穴墓)이며 화장을 하였다. 개석묘가 출현한다.

천산산지구에서는 상술한 각 고고학문화유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성지가 일부 출현하는데, 관련 묘장 형식은 아마 석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요동 청동고고문화권의 형성

(1) 연대

약 기원전 11세기

(2) 지표

먼저 산동반도와 연결이 단절된다. 요동반도 연해의 모든 강 유역에서 성행하던 쌍타자3기문화가 종결하고, 그 수많은 유적은 모두 화재를 당하거나, 다량의 유물이 주거시설 내에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동북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고대산문화가 퇴출되고,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를 중심으로 하던 하가점상층문화가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중요한 것은, 현문호(弦紋壺)와 동북계 동검 등으로 대표되는 공통성을 가진 문화요소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이 중 현문호는 수기(水器)에 속하는데 특수한 예기(禮器)이다. 주로 마성자문화에 기원한 지역 전통의 집합체이다. 동시에 구역문화의 지표로서 대외로 전파된다.

(3) 형성 단계의 주요 고고학문화

신성자문화(新城子文化) : 주로 요동 동북부지구에 분포한다. 묘장 형식은 석관묘, 개석묘이며, 현문호와 발의 조합이 전형적으로 부장된다.

쌍방문화(雙房文化) : 주로 천산산지구에 분포한다. 석봉묘, 개석묘 위주의 묘장 유형을 가지며, 첩연관, 고경호 위주의 부장 토기 조합을 가진다. 그 중 돌대가 있는 호는 상마석의 웅관묘, 단타자 M2 등에서 제일 먼저 확인되며, 연대는 기원전 19세기보다 늦지 않다. 첩순관, 쌍수이호는 복구문화에서 연원하였다.

노호충유형(老虎沖類型) : 주로 요하 평원구에 분포한다. 기원이 복잡하고, 쌍이관을 전형 토기로 한다. 유존 자체는 회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발전과 변천

1) 약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서주~춘추전기)

구역 내의 고고학문화는 공통된 문화요소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독립성이 강해지며, 소멸과 성장의 발전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상호간 관계의 밀접도 역시 다르다. 이 시기에 신성자문화는 비교적 활기를 띠고, 다른 두 문화(쌍방문화, 노호충유형)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노호충유형과 쌍방유형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하다.

2) 약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춘추후기~전국전기)

노호충유형에서 비롯된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이 흥성한다. 동시에 쌍타자3기문화와 관련있는 강상유형(崗上類型)이 회생한다. 정가와자유형이 천산산지 및 요동지구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3) 약 기원전 4~3세기(전국후기)

연문화가 출현하고 정가와자유형과 함께 요동 전 지역을 점유한다. 쌍방유형, 강상유형의 대부분이 요동에서 퇴출되고, 신성자문화의 일부가 잔존한다.

이 시기가 되면 요동 청동문화권이 해체된다.

5. 요점 정리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석봉묘의 기원은 아마 “북구문화”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기원전 2500년 정도이다. 관련 문화의 묘장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방하여 석봉묘가 탄생하였다. 기원전 11세기 이후 공전에 없던 발전을 이루며, 요동의 신성자문화와의 관계가 밀접해 진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의 대동강 유역으로 확장한다. 기원전 4~3세기 이후 부분적으로 장백산지에 집결하고 천산산지에서는 퇴출된다.

“최근 자료로 본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남한 청동기의 특성”에 대한 토론문

조 진 선
전남대학교

강인욱 선생님의 발표문은 최근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의 청동기 문화양상과 성립배경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문은 동아시아적 시각을 벗어나 강인욱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청동기문화의 유입과 발전과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적 관점, 특히 북방초원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토론자가 이에 합당한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임해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4점의 청동기는 모두 단조품으로 석제 목걸이의 일부, 즉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주거지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삼각만입석촉, 장방형석도, 석제어망추, 토제어망추, 관옥장식품 등이 출토된 각목돌대문토기단계의 주거지로 그 시기는 기원전 13세기 전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청동기시대는 당초부터 청동기가 존재하는 명실상부한 청동기시대로 위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동검 이전 단계의 초기 청동기 사용시기가 확실해진 것이고, 그 계통을 세이마-투르비노에서 기원하여 카라숙 계통으로 지역화 된 것과 관련시켜 이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돌대문토기의 확산과 함께 자바이칼에서 연해주 일대를 거쳐서 강원도 일대로 청동기 제작 전통이 파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인욱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면, 13~9세기의 만주 일대 청동기는 카라숙 계통의 청동기와 중원 계통의 청동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돌대문토기도 위낙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해주를 거쳐 강원도 지역으로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서북부보다는 동북부 루트의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II기 청동기시대 전기에서는 동검의 사용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논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강인욱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동검의 출현 연대를 AMS연대에 따라 기원전 11~9세기로 소급하게 되면, 한반도 중부지역은 동북아시아 동검(또는 비파형동검) 기원지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검(비파형동검)의 기원지로 요동지역이나 요서지역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요서지역을 좀 더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현시점에서 강인욱 선생님의 견해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아니 사실은 1995년 박진욱이 봉천 대아리 돌관무덤과 신평 선암리 돌관무덤에서 나온 비파형동검을 시원형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를 북한학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강인욱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요서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의 연대가 기원전 9세기를 상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서지역은 기년자료를 통한 편년이고, 요동이나 한반도는 방사성탄소 연대를 토대로 한 편년이라는 점입니다. 방사성탄소연대에 기초하면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 연대도 기원전 12세기경까지 상향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요동기원설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요서지역을 비파형동검의 기원지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사성탄소연대에 기초한 한반도에서 동검의 출현연대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한국 석검 기원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비파형동검 모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인욱 선생님은 비파형동검 이전에 유행한 특이한 형태의 동검을 한반도에서 석검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어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석검의 비파형동검 모방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석검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논문(송아름 2017)을 보아도 석검의 방사성탄소연대는 B.P.3200에 이르며, Cal.B.C.는 기원전 12세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검의 비파형동검 모방설 역시 방사성탄소연대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계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인욱 선생님의 생각을 좀 더 피력해주셨으면 합니다.

3. 강인욱 선생님은 오늘 청동기시대 조기에 확인되는 청동기 장식품의 기원, 청동기시대 전기에 확인되는 초기 동검의 석검 기원설을 이야기하셨지만 기원전 9세기부터 보고 있는 비파형동검의 기원, 또는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의 등장 과정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는 계기와 과정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작은 질문으로 광주 역동 출토 청동장식을 검파두식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고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생각인지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 박진욱, 1995, 「고조선의 비파형단검문화에 대한 재검토」, 『조선고고연구』 2.
성 철, 2012, 「비파형단검의 발상지에 대한 견해」, 『조선고고연구』 1.
송아름, 2017, 「남한지역 마제석검 형태 변이의 시·공간적 분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청동유물과 일본열도”에 대한 토론문

이 양 수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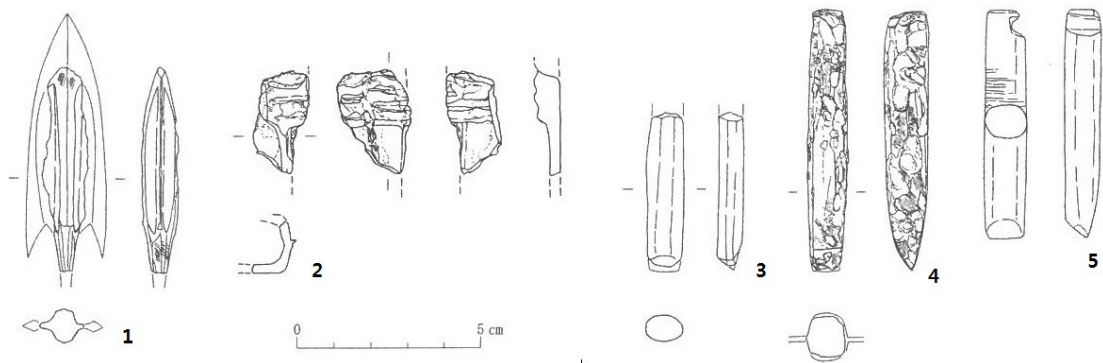
1. 일본의 초기 청동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는 현재로서는 야요이시대 전기 초두의 것으로 이야기되는 福岡 今川 유적 포함층 출토 동촉(도1-1)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요령식 동검을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사한 자료로서 김해 무계리 지석묘 출토 동촉 등과 대비된다.

다음으로 福岡 三澤北中尾 유적 2b구 127호 토광 출토의 동부편(도1-2)은 야요이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板付IIa식 신단계에서 IIb식 고단계의 토기와 동반하여 출토된다. 이 동부편은 3조의 돌대가 돌아가는 것으로 유사한 것은 부여 구봉리, 전 영암 출토 거푸집,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 등이 있다. 한반도의 다뉴세문경 단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예 외에도 전술한 今川 유적 채집 청동기(도1-3)와 山口 井ノ山 유적 출토 청동기(도1-4) 역시 부여 송국리 석관묘 출토 동착(도1-5)과 같이 요령식동검을 재가공한 공구로 추정된다.

이렇듯 일본에서 확인되는 초기의 청동기는 요령식동검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반도 남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발표자의 유입기보다 한 단계 이른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토기시대-조몽시대-야요이시대-고분시대라는 시기구분을 이제는 세계사에 맞추어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조몽시대)-청동기시대(야요이시대 전기)-철기시대(야요이시대 중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도 1. 일본 야요이시대 전기에 속하는 청동기

2. 岸田 유적 출토품의 성격

발표자는 岸田 유적 출토품을 일본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분위기로 읽힌다.

岸田 유적에서는 총 8점의 무기형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야요이시대 중기초두에 속하는 K0471옹관묘에서 동검, K0473옹관묘에서 동검과 동모, SR0437 목관묘에서 동검이 출토되었고, 중기전엽의 SK4916옹관묘에서 동검과 동모, 중기중엽의 SK0482옹관묘에서 동검과 동모, 중기말엽의 SK0443옹관묘에서 철과가 출토되어 청동제, 철제 무기를 가진 무덤이 연속되어 조영된다.

K0471옹관묘는 묘광 내에서 城ノ越식 소호를 부장한 김해식옹관으로 매장주체부인 옹관 내의 우측에서 적색 칠을 칠한 검집에 담긴 채 동검이 출토되었다. 길이 37.7cm, 검신장 35.1cm의 대형이다. 이 동검은 일본에서 동검 등장기에 이례적으로 대형의 것이다. 이 같이 대형 동검은 한반도 출토 한국식동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K0473옹관묘도 구연부만 남아있지만 묘광 내에 城ノ越식 소호가 부장되어 있으며 김해식옹관에 속한다. 동검과 동모 등이 출토되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장 35.2cm, 검신장 33.0cm의 동검과 동반한 높이 6.25cm의 대형 청동제십자형과두식이다. 청동제십자형검과두식이 佐賀 吉野ヶ里 유적과 동 柚比本村 유적에서 검신장 40cm 전후의 중세형B류 동검과 동반한 검과두식의 크기를 상회하는 최대급의 것이다.

세형동검의 등장기부터 일본 출토 무기형청동기는 한반도 출토품과 형태적 특징이 다르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그 근거는 윤무병 동검 분류의 I식과 II식이 혼재되

지 않고 I식만 출토된 단순기의 岸田 유적에서 세형과 중세형동검의 크기의 경계이던 검신장 34cm를 넘는 동검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대형 동검을 시작으로 하는 무기형청동기가 일본에서 중세형, 중광형, 광형으로의 대형화로 가능 방향성의 시작인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점, 혹시 그것이 아니라 원래 주조할 때는 이와 같은 대형의 것이었지만 사용에 의한 마연으로 작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岸田 유적이 위치한 早良 평야에는 吉武高木 유적과 吉武大石 유적이라는 吉武 유적군이 가장 두드러지는 유적이다. 이 가운데 吉武高木 유적 3호 목관묘는 동모1점, 동과1점, 동검2점의 무기형청동기와 다뉴세문경1점, 비취제 광옥1점, 벽옥제 관옥95점을 동반하여 ‘최고의 왕묘’로 이야기된다. 결국 岸田 유적의 동검 소유자는 吉武高木 3호 목관묘의 주인공의 영향 하에 있었을 것이고 그 청동기의 제작 역시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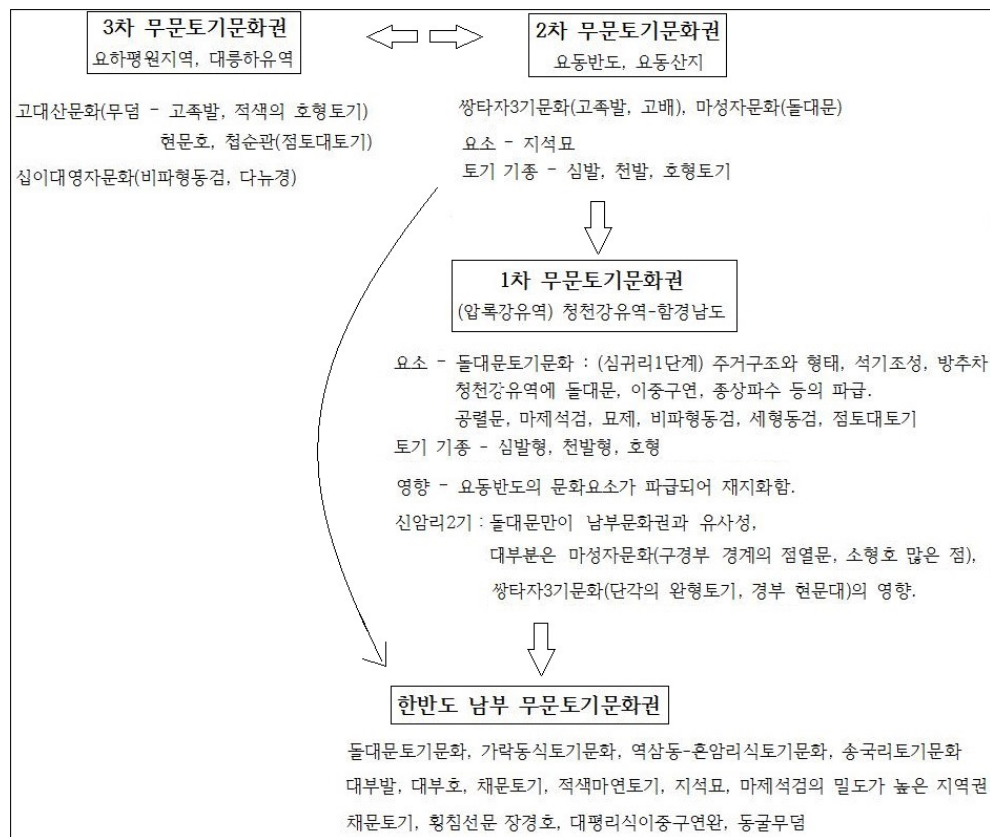
그리고 검신장 35cm를 넘는 대형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도 찾기 힘들지만, 이전 시기의 마제석검의 대형화 경향이나 30cm를 넘는 한국식동검은 사천 늑도 유적에서도 확인되는 바, 이러한 장신의 대형 동검의 제작이 단순히 일본일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무문토기와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토론편

안 재 호
동국대학교

천선행(2017)의 본 연구는 남한지역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문화를 중심으로, 그 기원과 전파의 과정에서 문화상의 유사성을 통하여 각문화권의 상호관계와 영향 그리고 문화의 농담을 기술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필자가 그 내용을 간략한 도식으로 써 작성한 것이다.

표 1. 천선행(2017)의 무문토기문화권역의 특징과 관계



중국의 고대산문화로부터 요동지역의 여러 문화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통도는 천선행씨의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필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론을 제기할만한 내용이 없다.

몇몇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으로써 토론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두만강유역과 그 북쪽과 동쪽 지역의 문화

위 표에서는 두만강유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와 남부지역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논문의 주제가 중국과의 관계인 탓에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도 있리라 생각하지만, 무산 호곡유적의 공렬문토기 그리고 김천 송죽리유적의 무각목돌대문토기는 두만강유역과의 관계에서 살펴 볼 수가 없는가?

필자는 공렬문토기의 경우는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던 지역으로서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성자유적 청동기시대 하층에서도 천발에 공렬문이 시문된 예가 제법 있고, 연해주지역이나 흑룡강성에서도 공렬문이나 그 유사한 예는 찾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시베리아에서의 전파라고 생각하며, 늦어도 마성자유적에 공렬문이 나타날 시기에 한반도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공렬문 신석기시대 후반기 발생설은 신석기시대에 왜 전통적인 빗살문양을 버리고 공렬문을 창안하여 시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의문을 해소시킬만한 설명이 필요하고, 발생지로서 공렬문토기의 개체수가 적고, 그 분포상으로 뒤이어 나타나는 청동기시대의 공렬문토기의 분포권과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천전리유형의 능형석축(일체형석축)이나 북한지역의 유엽형석축 등은 연해주지역에서 그 직접적인 조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만강유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권설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2. 문화권의 설정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한지역에도 매우 복잡한 다문화가 분포한다. 그 각각은 성격도 다르고 계통과 생계형태도 다른 것이 많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분모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엄밀히 살펴보면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기술한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락동식토기만 하더라도 호서 지역에선 장기적으로 존속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문화적 농담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예는 2차문화권에는 쌍타자3기문화의 요동반도와 마성자문화의 요동산지로 묶여 있는데, 1차문화권인 압록강유역이나 청천강유역과 함경남도 지역에 동일한 농도로 두 문화가 전파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본고에 서술하고 있듯이 신암리2기가 마성자문화나 쌍타자문화에 가깝다고한다면, 압록강유역은 청천강유역과는 분리하여 오히려 2차문화권으로 설정해야 타당한 설명이 아닌가.

따라서 시각과 분류의 차이에 따라서 문화권의 설정은 여러 이견이 도출될 수가 있겠다. 물론 이러한 문화권도 단계마다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방법론적으로도 타당하겠다.

3. 청동기시대 문화의 스펙트럼 - 문화권인가 교류망인가 -

남한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북방지역도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하였다. 그 좁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 개개를 인정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청동기시대문화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중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각각의 문화권역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변과의 교류상을 통하여 상대적 유사도에 따라 광역의 문화권역을 설정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 모방일 뿐이다. 연구의 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점을 가지있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도 기존의 문화권역을 독립적으로 두고서 인접문화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문화상을 분명히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방법으로서 직·간접적인 교류망을 찾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無文土器と弥生土器”에 대한 토론문

이 기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川上洋一 선생님의 발표문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는 일본 야요이시대 개시기 전후부터 야요이시대 중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의 무문토기와 일본 야요이토기의 영향 관계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가 야요이시대의 토기 조성 및 제작 기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 야요이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문이 세부적인 유물 분석보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놓은 성격이기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절충토기’에 관하여

본 발표문에서 한반도의 무문토기가 일본 야요이토기에 준 영향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은 크게 보아 ① 외래계 토기(무문토기)와 재지토기(야요이토기)의 공반, ② 제작 기법의 채용, ③ 절충 토기의 등장, ④ 기종 구성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절충토기의 등장은 ‘이동한 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중 ‘일정 기간 생활’이라는 것은 이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문화 요소로서의 토기의 단순 전파와 이주민에 의한 토기 문화의 渡來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를 ‘절충토기’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충토기’라고 해도 여러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지의 기형에 외래계 토기 문양 요소의 부가, 외래계 토기의 기종을 재지의 제작 기법으로 제작 등 다양한 절충의 방식이 있을 것이며, 또한 토기의 기능과 가장 깊게 관련되어 있는 토기 형태가 재지적인 것인지 또는 외래적인 것인지에 따라 절충토기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절충토기의 분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물질 문화 확산의 방향성

지금까지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물질 문화의 전파 방향은 북 → 남으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요녕지방에서 한반도 북부, 한반도 남부, 일본 큐슈 지역으로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야요이시대 중 일본에서 한반도로 토기 문화의 확산 등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늑도식토기 단계 늑도 유적에서 야요이토기와 절충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현상은, 발표문의 논지에 의하면 일본에서 한반도로의 이주민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야요이시대에 일본에서 한반도로의 문화 확산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토기 기종 구성의 변화

토기 기종 구성의 변화는 결국 생업 경제의 변화 또는 조리 방식의 변화에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요이시대 개시기를 전후해 무문토기의 영향으로 야요이토기 기종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일본 열도 내 도작 농경의 전파, 정착에 따른 생업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늑도식토기가 출토되는 단계에 야요이 토기 조성에 시루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조리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것인지? 혹시 생업 경제나 조리 방식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양식적인 측면에서 토기 기종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토기와 일본 죠몽시대 토기

본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의 이전 단계, 즉 돌대각목문토기와 공렬문토기의 단계에 일본 큐슈지역과의 영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한다. 큐슈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공렬토기와 돌대문토기를 한반도의 것과 영향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혹은 죠몽시대부터 시작된 재지 계통의 토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 일본 재지계요소의 존속

본 발표문에서는 주로 야요이토기에 대한 한반도 무문토기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야요이토기의 성립에 있어서는 한반도로부터의 외래계 요소 외에도 죠몽토기부터 계속되는 재지적 요소가 기종 구성이나 제작 기법 등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일례로 고배의 한 계통을 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죠몽시대부터 이어지는 재지의 기종이나 제작 기법이 존속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일본열도 내 수석리식토기와 늑도식토기 출토 배경의 차이

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석리식토기와 늑도식토기의 출토 배경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집단의 이주가 있었는가 또는 토기가 여러 과정, 예를 들어 교역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단순히 이동되었을 뿐인가의 차이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큐슈로의 집단 이동은 수석리식토기 단계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발전”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중부고고학연구소

발표문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인 농업, 어업, 수렵, 채집, 수공업 등에 대해 간단한 연구사와 함께 생업경제의 전반적인 변화과정과 발전양상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검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생업경제를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식량획득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 수공업의 양상을 살펴본 것은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각의 생업형태를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청동기시대의 생업양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한국 선사시대 생업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수렵, 채집, 어로를 중심으로 ‘식량을 잡는 생업형태(신석기시대)’에서 농경을 중심으로 ‘식량을 기르는 생업형태(청동기시대)’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식량을 자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식량확보의 다양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모습에서 농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핵심을 농업으로 보았으며, 그중 도작농경의 등장을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를 바꾼 중요 사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도작농경의 발전과 확산도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농경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토론자도 동의하는 바이며,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경활동의 시기적인 양상에 대한 세부적 관점은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청동기시대 (조)전기는 직접적인 농경관련 자료가 빈약하여 그 시기의 농경활동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기의 농경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미미하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전기에 확인된 경작지 사례는 거의 없지만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동시기의 주거지나 기타유구에서 곡물유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고 농경구 또한 많이 출토되고 있어 간접적인 증거들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농경활동을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일부 언급은 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전기와 후기는 문화상(취락, 주거지, 무덤 등)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문화상의 차이가 농경활동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발표문에 농경의 생업방식을 정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별 농경의 생업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차이를 ‘생산성’으로 보셨습니다. 농경에서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작지의 입지, 토질, 기후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지역별 생산성의 차이를 농경기술의 차이라고 보아도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문에는 전기와 후기의 작물 조성에 대한 차이는 언급되었지만 전기의 작물과 후기의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기와 후기의 작물종류나 경작지(논과 밭)에 따른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3. 어업과 관련해서 발표자는 어업의 행위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의 일부 취락집단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보셨습니다. 어업의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천이나 해안 주변에 인접한 취락에서 어업(어로)행위는 보편적인 식량획득 방법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촌취락을 상정하면 현재의 자료는 매우 한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보편적인 생업활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어업의 형태로 담수어 방식과 어촌취락에서의 소금생산을 언급하셨는데, 어업형태의 다양성은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사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향후 이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중

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타 생업의 형태에서 분업화·전문화된 생업 모습을 상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목재도구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임업’, 실과 의류 등을 생산하는 ‘방직업’, 토기·석기·옥·목기·청동기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 등입니다. 이러한 생업의 형태는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취락간 네트워크(교류, 교역)를 통해 전문화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문취락이 청동기시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 또한 전문 취락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과연 ‘상업적 형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특히, 임업이나 방직업 등은 관련된 증거가 너무 부족하고 수공업 중에서도 일부 종류(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 청동기 정도)만 유통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 상업적 측면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생산-유통-소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청동기시대 사회에서의 전문취락의 비중과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발표자는 생업과 생계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농경을 통한 생계방식이 전작 중심의 생계에서 수도작과 특화된 작물 중심의 생계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수도작이 농경의 중심이 되고 보편화 되었다는 의미인데, 앞선 설명에서는 일부 대형 취락에서의 논 경작지의 부재와 논 면적이 작은 점, 벼의 높은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아직 수렵, 채집, 어로 등이 비중이 높은 점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수도작이 청동기시대 생업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 양자가 대립되는 설명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수도작이 청동기시대의 생계방식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밭경작과 비교해 볼 때 곡물생산량과 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문배경으로 본 ‘천산산지 석봉’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토론문

이 영 문
목포대학교

화옥빙교수의 ‘인문배경으로 본 천산산지 석봉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발표문은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문화 양상을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전국 후기까지 그 변화를 살피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고학문화 계보를 통해 석봉의 기원과 초기 연대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매우 참신하다 할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 석봉 분포는 요하 이동으로 서로는 송화강 남쪽과 압록강 서쪽과 남으로 발해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범위에서 밀집분포지역은 천산산지와 장백산지(요북길남지구)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천산산지 지역은 압록강 서부 일부를 포함하여 鞍山市, 營口市 전체와 丹東市の 서북부, 대련 금주구 북부에 해당하는 요동반도 북부지역(요동 북부지역)으로 요동 석봉 분포와 거의 일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모두 69개소에서 석봉이 확인되어 중국 동북지역 총 114개소의 60%에 해당하여 가장 밀집된 곳이다. 이곳에는 잘 알려진 석봉산 지석묘를 비롯한 초대형 지석묘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되어 있다.

화옥빙교수에 요동지역 석봉과 관련된 고고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몇가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은 하나의 지석묘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석봉의 기원을 북구(北溝)문화로 보고 기원전 2,500년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기원전 3000년경에 형성된 편보자(偏堡子)문화는 요동지역을 장악하고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문화이다. 기원전 2500년 전후에는 요남 연해의

소주산상층문화와 요동 천산산지의 북구문화로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천산산지에 분포한 석봉묘는 다른 묘장 유형의 영향이나 지속적인 모방으로 북구문화에서 새로운 묘장으로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요동 청동문화형성과 관련된 쌍방문화는 주로 천산산지구에 분포하고, 묘장은 석봉묘와 개석묘이며, 주요 부장유물로 첩연관(疊沿罐), 고경호(高頸壺) 토기이다. 첩연관 토기는 쌍수이호 토기와 함께 북구문화에서 연원한 토기로, 상마석 옹관묘와 단타자 M2 등 예로 보아 기원전 19세기보다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천산산지 지역의 화가와보(伙家窩堡)-쌍방(雙房)유형이 기원전 11세기보다 늦지 않기 때문에 석봉묘 출현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쌍방문화를 형성시킨 북구문화와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문화의 연원에 대한 연구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석봉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북구문화구와 석봉 분포와 일치하기 때문에 추론한 것인지 토기의 형태에서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즉 북구문화의 고고학문화 양상과 석봉 관련 문화 양상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요동 청동문화 초기 고고학문화 양상에서 기원전 21세기에 시작되어 기원전 11세기까지 각기 다른 기원의 다양한 묘장들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신석기 후기 소주산 상층문화에서 기원한 요남지구의 쌍타자문화의 3기문화는 적석묘, 요하평원구 서부지역의 고대산문화는 토갱묘, 요동 북부지구의 마성자문화는 동혈묘와 개석묘 출현으로 요약된다. 각 지역 청동문화권의 묘장 형태에서 천산산지구에서는 위의 묘장 문화가 확인 되지 않아 묘장 형식을 석봉묘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요동 청동고고문화권의 형성 단계에는 쌍타자 3기문화와 고대산문화가 사라지고, 신성자문화와 쌍방문화가 주요 고고학문화로 등장한다. 현문호(弦紋壺)와 동북계 동검 등 유물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성을 가진 문화가 출현하는 단계이다. 묘장은 요동 동북부 지역의 신성자문화가 석관묘와 개석묘, 천산산지 지역의 쌍방문화가 석봉묘와 개석묘를 주 묘장으로 채택되어 지역과 묘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동 청동고고문화의 발전과 변천은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서주-춘추 전기),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춘추 후기-전국 전기), 기원전 4-3세기(전국 후기)로 편년하였다. 이 편년은 한국의 청동기문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국 청동문화에서 보면 대전 비래동 지석묘와 광주 역동 석곽묘의 절대연대 자료는 기원전 11세기 전후이다. 한국 지석묘가 12세기 경에는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절대연대나 유물로 자료들이 많다. 절대연대 자료로 보면 한국 지석묘의 연대도 가장 성행한 시

기가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이며, 기원전 4-3세기에는 많지 않아 한국 지석묘는 기원전 3-2세기경에 소멸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한반도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고고문화의 발전과 변천은 하나의 청동문화권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석묘문화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점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지석묘문화 공통점과 차별성, 지역성 등에 대해 소견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거석을 이용한 건조물은 거석신앙이라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은 하나의 거석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의 지석묘는 탁자식이나 기반식, 개석식 같은 지석묘 유형으로 보아 지역적인 형식 분포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을 수 있다. 좀 더 세분하면 중국 요동지역과 북한, 남한의 중부지역은 탁자식 지석묘 문화권으로, 충남 서해안지역인 보령지역에서 경북 동해안지역을 잇는 그 이남지역은 기반식 지석묘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석묘의 명칭과 지명의 동질성

중국과 한국 지석묘의 명칭이나 지명, 지석묘의 형태와 관련된 전설 등은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민간신앙의 대상물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석묘의 명칭은 문헌에는 대석(大石)이나 관석(冠石)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금나라와 고려시대(13세기 전후) 이후부터 중국은 석봉(石棚), 한국은 지석(支石) 등으로 통일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중의 양 지역은 예부터 부르던 지석묘 명칭이 마을명이나 지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수석(姑嫂石)이란 지명도 대형 석봉과 관련되어 있다. 산둥성의 하마석(蝦蟆石)이라 부른 지석묘는 한국의 두꺼비 바위라 부른 지석묘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절강성의 선인기반암(仙人碁盤岩)은 한국의 선암(仙岩)이나 신선바위도 선인들이 바위에서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러한 지명과 명칭, 전설은 지석묘가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양국간의 친연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2. 대형 지석묘 입지의 유사성



사진 1. 북한 은율 관산리 지석묘



사진 2. 중국 개주 석봉산 지석묘



사진 3. 전남 곡성 금반리 지석묘

지석묘의 입지는 대형 지석묘의 경우 구릉 정상부나 산기슭 높은 대지상에 단독입지하며, 군집의 경우평지나 구릉, 산기슭에서 열상이나 군상으로 배치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입지의 특징이다.

지석묘의 입지에서 단독 입지와 군집 입지의 경우는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 석실의 배치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단독 입지의 경우는 규모가 큰 대형 지석묘이며, 1기가 대부분이다. 주로 구릉상과 산기슭 대지상에 주로 입지하며, 하천과 그 주변의 평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입지한 공통점이다. 한국 중서부와 임진강유역에서는 모두 대형 탁자식이지만 중부 이남지역에서 지석 4개가 고인 대형 기반식인 점에서 지역성이 뚜렷하다.

이와 규모나 형태에서 유사한 대형 지석묘들이 군집을 이룬 지석묘군의 한쪽에 독립되어 1기씩 배치된 예도 중국과 북한, 남한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남부지역에서 특히 많다. 남부지역에서 보이는 거대한 기반식 지석묘는 석실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지석묘는 지연집단(지역공동체)이나 혈연집단(혈연공동체)의 상

징적인 기념물로 축조된 것으로 본다면 문화권이나 영역권을 상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식묘 석실 구조의 다양성과 차별성

하지만 지식묘 형태와 구조, 출토유물에서는 다양성과 지역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형식과 구조에서 개석식 지식묘의 경우 지역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의 개석형 지식묘는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위체형 지식묘는 혼하 상류와 훈하 상류에서, 정석형은 압록강 상류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어 지역적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도 침촌형 지식묘는 대동강유역과 황해도지역에서, 목방형 지식묘는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도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다. 남한지역에서는 탁자식 지식묘는 서해안을 따라 전남 영암과 해남까지 분포하고 있지만 탁자식만 군집된 곳은 거의 없고 대형 기반식이나 개석식 지식묘 군집안에 1기 정도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남해안지역의 지식묘에서는 거대한 묘역시설과 소단위 묘역이 연접되거나 단독 묘역을 갖춘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과 구조에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종족집단들이 그들만의 종족 상징물로 무덤 형식을 달리 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장례풍습이나 무덤의 유형은 종족집단을 드러내는 표지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당시 공통적인 상식을 가진 지식묘이지만 각 지역별로 다시 세분될 수 있는 형식과 석실 유형, 묘역시설이 확인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족집단의 성향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식묘 부장유물의 선호도와 지역성

지식묘 출토유물에서도 중국, 북한, 남한지역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비파형동검 등 무기류와 장신구, 부장토기가 부장유물로 선호한 점에서는 같지만 유물의 종류에서는 선호도 차이는 뚜렷하다. 중국과 북한은 다양한 청동유물이 부장되지만 청동거울과 철검, 철부 등 철기유물은 중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남한은 비파형형동검이 중심이며, 간혹 비파형동모, 청동검과두식 등 한정된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과는 차이가 있다. 부장 토기의 형태는 지역성이 뚜렷하다. 중국은 다양하지만 단지형과 호형토기가, 북한은 미송리식토기와 목방리식토기가, 남한에서는 적색마연호와 채문토기가 부장유물로 주로 사용된다.

석기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석부가 출토되지만 석검이나 석촉은 매우 드문 편이다. 북한은 석검과 석촉이 부장되지만 많지 않다. 석검은 유경유구식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만 나타나고, 석촉은 삼각만입촉과 이단경촉이 많은 편이다. 석과나 석창, 환상석부는 북한 지식묘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석검과 석촉

이 대표적인 부장유물이며, 중국과 북한에 비해 부장유물과 부장양상에서 정형화된 모습으로 매우 발전된 양상이다.

이상에서 본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은 지석묘라는 하나의 거석문화권 설정이 가능하고, 지석묘의 하부구조와 출토유물 등 부장풍습에서 보면 더 세분될 수 있다. 즉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석묘 축조집단 안에서도 여러 종족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석묘는 동일시기 유적 중 대부분이 파악된 상태이며, 이를 통한 당시 사회의 큰 범위의 문화권이나 지역공동체의 영역권, 종족(혈연)공동체의 생활권 추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